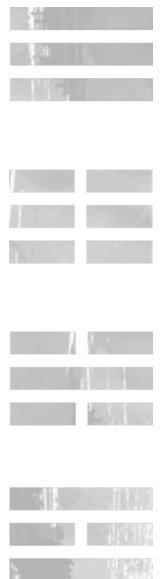


국립태권도박물관 | 기획전시 |

Special Exhibition at the National Taekwondo Museum

태권낭자

Taekwondo Girls



국립태권도박물관 | 기획전시 |
Special Exhibition at the National Taekwondo Museum

태권낭자

Taekwondo Girls

전시기획 및 진행

기획총괄	김중헌(이사장)
전시총괄	정상기(관장)
전시기획	이경원
전시진행	이경원(전시) 송봉수(소장품) 나승재(조사연구) 김명혜(교육) 강현선, 김현정, 채희원, 정혜인, 이선화
구술채록(영상)	김영숙, 남궁명석, 장정희, 정효심, 임신자, 서영애
기증자	곽태용, 김영선, 김영숙, 김영작, 민경호, 박진성, 방만규, 백진건 서명수, 서영애, 서춘희, 송남정, 안해옥, 원선진, 이경명, 이규석 이규형, 이승국, 최경안, 최영환, 최창신, 하태경
자료협조	한국정책방송원 KTV 한국영상자료원 국기원 대한태권도협회 세계태권도연맹
논고	송남정(우석대 태권도학과 교수) 나승재(국립태권도박물관 학예연구사)
전시디자인/시공	(주)하움디자인, 근영 D&P
전시도록	참디자인(주)
번역	(주)디지털헤럴드
사진촬영	ZEBRA 스튜디오(최지현 작가)
영상제작	(주)다락컴퍼니
학술보고서 발간	2025년 08월 『초기 여성 태권도 발전사 연구』 발간 : 국립태권도박물관 / 연구기관 :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2024년 10월 『여성태권도인 구술채록』 국립태권도박물관 3차 아카이빙 발간 : 국립태권도박물관 / 연구기관 : (주)다락컴퍼니

일러두기	• 이 책은 국립태권도박물관이 2026년 9월 1일부터 12월 27일까지 개최한 『태권낭자』 기획전시 도록입니다. • 도록에 실린 도판의 저작권은 태권도진흥재단에 있으며, 도록에 게재된 모든 내용 및 자료는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도록에 수록된 모든 글은 한글 표기를 원칙으로 하고, 내용 전개 상 필요한 경우에는 한문 또는 외국어를 병기하였습니다. • 도판 정보는 이름(국문·영문), 연도, 크기, 소장처 순으로 표기하였고, 국립태권도박물관 소장처 표기는 생략하였습니다. • 이 도록에는 전시에 사용되지 않은 자료도 수록하였습니다.
------	--



목 차

Contents

발간사	08
Foreword	
인사말	09
Greetings	
전시개요	10
Exhibition Overview	
21세기 이전 여성 태권도 발전사	12
The History of Women's Taekwondo Before the 21st Century	
1부 소녀, 태권도에 입문하다	14
Part 1: Girls Take Up Taekwondo	
2부 소녀, 수련의 한계를 넘다	20
Part 2: Girls Transcending the Limits of Training	
1. 여성 수련인의 증가	22
Increase in Female Practitioners	
2. 여자부 태권도 공식 경기 개최	42
Emergence of Women in Official Taekwondo Competitions	
3. 한국여성태권도연맹 창립	54
Founding of the Korea Women Taekwondo Federation	
3부 소녀, 태권낭자로 거듭나다	62
Part 3: From Girls to Taekwondo Athletes	
1. 엘리트 여성 태권도 선수 육성	64
Development of Elite Female Taekwondo Athletes	
2. 여성 심판과 지도자 등장	102
The Emergence of Female Referees and Instructors	
3. 태권낭자회	122
Taekwon Nangjahoe	

4부 소녀, 여성 태권도를 이끌다	134
Part 4: Girls Lead Women's Taekwondo	
1. 여성 태권도 정식종목 채택	136
Adoption of Women's Taekwondo as an Official Event	
2. 태권도의 다양성, 여성이 이끌다	158
Women Drive the Diversification of Taekwondo	
5부 소녀, 길을 되돌아보다	188
Part 5: Girls Look Back on Their Journey	
1. 김영숙	190
Kim Young-sook	
2. 남궁명석	192
Namkung Myong-sok	
3. 장정희	194
Jang Jeong-hui	
4. 정효심	196
Jeong Hyo-sim	
5. 임신자	198
Lim Shin-ja	
6. 서영애	200
Seo Young-ae	
논고 1. 『여성과 태권도: 도전과 성취』	202
나승재(국립태권도박물관 학예연구사)	
논고 2. 『여성 태권도인으로서의 삶과 태권도 활동 경험』	206
송남정(우석대학교 교수)	
도판목록	209
List of Plates	

발간사

Foreword

태권도는 광복 이후 우리 사회의 변화와 함께 성장해 왔으며, 오늘날에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수련되는 무예이자 스포츠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태권도는 남녀노소 누구나 수련할 수 있는 무예로 발전해 왔지만, 태권도가 제도화되는 과정에서 여성 태권도인의 활동과 기여는 충분히 기록되고 조명되지 못했습니다.

여성 태권도의 발자취를 기록하는 것은 곧 태권도의 역사를 온전히 기록하는 일입니다. 여성 전용 수련 공간의 개설을 비롯하여 공식 경기와 체급 체계의 정착, 여성 지도자와 심판의 등장은 여성 태권도인의 활동 영역을 넓히는 데 그치지 않고, 태권도가 경기 스포츠로 발전하고 세계인이 함께 하는 문화로 확장되는 데에도 중요한 기반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여성 태권도의 역사를 보여주는 문헌 자료는 충분하지 않은 실정입니다. 남아 있는 기록이 부족할수록 그 공백을 보완하기 위한 조사와 연구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집니다. 태권도진흥재단은 이러한 기록의 한계를 보완하고 여성 태권도의 역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2024년 『여성 태권도인 구술채록』과 2025년 『초기 여성 태권도 발전사 연구』를 추진하며 관련 자료의 발굴과 연구를 지속해 왔습니다.

이번 특별기획전 《태권낭자》는 그동안 축적해 온 조사·연구 성과와 소장 자료를 한자리에 모아 선보이는 자리입니다. 1950년대 여성 태권도 수련의 시작에서부터 1970년대 조직화와 제도화, 1980년대 엘리트 선수의 육성과 국제무대 진출에 이르기까지 여성 태권도의 발전 과정을 주요 소장 자료와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이 도록에는 전시에서 미처 소개하지 못한 자료의 상세 정보와 조사·연구 성과를 함께 수록하여 여성 태권도의 역사를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태권도진흥재단은 앞으로도 태권도 문화유산의 조사·수집·보존·연구를 지속하고, 그 성과를 전시와 기록을 통해 널리 알리는 노력을 이어가겠습니다. 이번 전시가 여성 태권도인의 발자취를 통해 태권도의 역사를 새롭게 살펴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이 도록이 그 역사를 오래도록 기록하고 기억하는 소중한 자료로 남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귀중한 자료를 기증해 주신 분들과 자료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 기관 및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소중한 기억과 경험을 나누어 주신 여성 태권도인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전시의 기획과 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국립태권도박물관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 9월

태권도진흥재단 이사장 김 중 현

인사말

Greetings

국립태권도박물관은 세계 유일의 태권도 전문 국립박물관으로서 태권도 자료의 수집과 보존, 조사·연구, 전시와 교육을 통해 태권도의 역사와 문화를 기록하고 그 가치를 알리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특별기획전 《태권낭자》는 태권도의 역사에서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여성 태권도인의 활동과 발자취를 조명하기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국립태권도박물관은 전시를 준비하며 초기 여성 태권도인의 구술채록과 관련 자료의 조사·수집,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그 성과를 전시와 도록에 담았습니다.

특히 초기 여성 태권도인의 활동을 보여주는 문헌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만큼, 당사자의 기억과 경험을 기록하는 구술채록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수련을 시작하던 당시의 환경과 경기 경험, 지도자와 심판으로 활동하며 겪었던 이야기는 문헌만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여성 태권도의 역사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소중한 자료입니다.

전시는 여성의 태권도 입문과 수련을 시작으로 선수로의 성장, 지도자와 심판으로 활동 영역을 넓혀가는 과정을 살펴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1971년 여성 전용 태권도장 관련 자료를 비롯하여 한국여성태권도연맹 창립 자료, 전국여자부 태권도대회 자료집, 여성 태권도 전문잡지 『태권낭자』, 국가대표 선수와 국제심판 관련 자료 등 100여 점을 통해 여성 태권도의 변화와 발전 과정을 소개합니다. 또한 초기 여성 태권도인 여섯 분의 구술 영상을 통해 당시의 경험과 기억을 생생하게 만나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전시 기간에는 체험 및 연계 교육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하여 어린이와 가족 관람객이 여성 태권도의 역사를 보다 친근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전시가 여성 태권도인의 도전과 성취를 새롭게 바라보고, 그들의 발자취를 태권도의 역사 속에 온전히 기록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소중한 기억을 나누어 주신 김영숙, 남궁명석, 장정희, 정효심, 임신자, 서영애 선생님을 비롯하여 귀중한 자료를 기증·제공해 주신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연구에 참여해 주신 전주대학교 이숙경 교수님과 도록에 귀중한 글을 기고해 주신 우석대학교 송남정 교수님, 그리고 전시 준비에 협조해 주신 관계 기관 및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 9월

국립태권도박물관장 정 상 기

전시개요

Exhibition Overview

본 전시는 초기 여성 태권도의 발전 과정을 조명하여, 태권도 역사 속에서 여성이 어떠한 주체로 존재해 왔는지를 재조명하는 데 목적이 있다. 태권도는 남녀노소 누구나 수련할 수 있는 무예로 정의되어 왔으나, 제도화 초기 여성 태권도인의 활동과 기여는 충분히 기록되지 못했다.

초기 여성 태권도인들의 수련은 단순한 스포츠 참여를 넘어 사회적 제약과 고정관념을 극복하려는 실천이었으며, 태권도는 여성에게 신체 단련과 자기 확신, 주체성을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과정은 태권도 문화의 인식과 확장에도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왔다.

본 전시는 21세기 이전 태권도의 형성과 확장 과정 속에서 여성 태권도의 중요한 서사를 제시함으로써, 시대와 사회의 변화 속에서 여성 태권도의 경험이 축적되어 온 과정을 조명하고 태권도 문화의 역사적 깊이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This exhibition sheds light on the early development of women’s taekwondo and reexamines the important role women played as active participants in the sport’s history. Although taekwondo has long been regarded as a martial art open to people of all ages and genders, the activities and contributions of women during its early institutionalization were not fully documented.

For early female taekwondo practitioners, training was more than participation in a sport. It was also a way to overcome social constraints and stereotypes, build physical strength and self-confidence, and develop a sense of identity. Through this process, women helped broaden the sport’s culture and reshape how it was understood and experienced.

By placing the story of women’s taekwondo within the larger history of how the sport took shape and spread worldwide before the 21st century, this exhibition reveals how women’s experiences in taekwondo have built up and changed in step with shifting times and societies. At the same time, it highlights both the historical depth of taekwondo culture and its potential for further growth and expansion.



21세기 이전 여성 태권도 발전사

The History of Women's Taekwondo Before the 21st Century

여명기

- 1945 ● 광복
- 1957 ● 당수도 연무대회 '김덕희' 여성 수련생 등장 대한뉴스 제140호, 무덕관 소속 '김덕희' 벽돌 격파
김영숙 태권도 입문 무덕관 입문 '구술채록 김영숙 편'

태동기

- 1961 ● 대한태수도협회 창립 태권도 통합 조직 등장, 제도화 시작
- 1963 ● 전국체전 태권도 정식 종목 채택 남자부만 정식종목 채택
- 1965 ● 대한태권도협회로 개칭 대한태수도협회→대한태권도협회 개칭
- 1966 ● 여성 초단자 3명 등장 '세 여장부', 신문 보도로 사회 주목
- 1968 ● 여성 3단(김홍) 등장 '최초 여성 고단자', 신문 보도
제1회 주한외국인 태권도개인선수권대회 공식대회에서 여자부 최초 대회(5명 참가)
- 1969 ● 권옥희(3단), 송영임(2단) 해외 파견 '최초의 해외 여성 지도자', 신문 보도

성장기

- 1970 ● 제1회 전국여자부 태권도대회 개최
여성 공식 경기 시작, 41명 참가(3개조 경기, 남궁명석, 김순아, 김순옥 최초 우승)
- 1971 ● 여성전문 태권도장 개관 최초의 여성전문태권도장 '선미태권도장' 개관(김영숙 관장)
전국여자부 태권도우수선수선발대회 개최 남궁명석, 여자부 개인 및 우수선수 모두 석권
- 1973 ● 세계태권도연맹(WTF) 창설 태권도의 국제화 공식화 시작
- 1974 ● 국기원 설립 및 정관 제정 기술 표준화-지도자 양성의 중심기관 출범
- 1975 ● 제5회 주한외국인 및 여자부개인선수권대회 여자부 대회 명칭 사용
이화여자대학교 '이화태권도' 동아리 개설 김영숙 관장이 이화여대 학생들 지도
- 1976 ● 제3회 전국 중·고등학교 태권도 개인선수권 대회 남녀 통합 경기 진행(중등부 여성 선수 참가)
- 1978 ● 프레월드게임 초청 태권도 대회
여자국가대표 선발전 진행, 임신자, 김경주, 양현자, 남궁숙, 안선기 금메달 획득
제5회 한국 중·고등학교 태권도 개인선수권 대회 여고부 38개교 69명 참가, 8체급 진행
- 1979 ● 한국여성태권도연맹 창립 여성 전용 조직 출범, 회장 이학선
제1회 여성태권도개인선수권대회 한국여성태권도연맹 창립 후 개최
한국국가대표선발전(대만국제초청태권도대회) 임신자, 최선자 금메달

발전기

- 1981 ● 81년도 전국 종별 신인선수권대회 여자부 신설
여성 심판자격취득 장정남(4단), 김안자(4단)
- 1984 ● 한국여성태권도연맹 해체 대한태권도협회 의결
성신여자대학교 태권도부 창설 '82 용인대, '83 경희대 태권도학과 개설
제7회 회장기쟁탈 전국대학대학태권도대회 여자부 참가
- 1985 ● 제7회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여자부 경기 시범종목 채택
- 1986 ● 제7회 아시아태권도선수권대회 여자 대표팀 첫 참가
86년 전국여자개인선수권대회 대한태권도협회 여자태권도 활성화를 위한 대회 창설
'여성태권도회' 결성 여성지도자 21명으로 단체 결성
- 1987 ● 태권낭자회 여성태권도회→태권낭자회로 명칭변경 / 태권낭자회 계간지 발행
- 1987 ● 제1회 세계여자태권도선수권대회 국제 여성 태권도 공식 대회
- 1988 ● 대한태권도협회 여성분과위원회 신설 기술전문위원회 산하 위원회(장정남 초대 위원장)
제24회 서울 올림픽
태권도 시범종목 채택, '최초의 여성 국제심판' 서춘희 / 여자부 국가대표팀 여성 지도자 '박필순' 코치 활동

도약기

- 1990 ● 제1회 태권낭자회장배 여자선수권대회 회원들간의 경량급, 중량급 구분하여 진행
상임심판원 제도 시행 여성 유일 상임심판원 이정연, 김혜연
- 1992 ● 제25회 바르셀로나 올림픽
태권도 시범종목 채택 / 여자부 국가대표팀 여성 지도자 '임신자' 코치 활동
- 1993 ● 제74회 전국체육대회 여자부 시범종목 채택
- 1994 ● 94년 전국여자개인선수권대회 주심·부심 심판원 전원 여성 심판 기용
태권도, 2000년 시드니 올림픽 여자부, 남자부 정식종목 채택
한국여성태권도회 태권낭자회→한국여성태권도회 명칭 변경, 해체
- 1995 ● 인천시청 여자태권도 실업팀 창단 최초 여자태권도 실업팀 창단, 지도자 '임신자' 감독
제76회 전국체육대회 여자부 정식종목 채택
- 1997 ● 제79회 전국체육대회 기존 여자일반부 외, 여고부 신설
97년 전국종별선수권대회 여자부 신설, (여자개인선수권→종별선수권 통합)
제26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여중부 시범종목 채택
태권도 연구개발특별위원회 여성 유일 위원 정효심(여성분과위원장) 참여
- 1999 ● 제1회 국제여자오픈태권도대회 김영숙 조직위원장
제34회 대통령기 전국단체대항 태권도대회 여자부 통합(여고등부, 여대학부, 여일반부)
- 2000 ● 2000년 전국종별선수권대회 여중부 신설
제29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여자부 정식종목 채택
제27회 시드니올림픽 2체급 출전 '정재은, '이선희' 금메달
- 2001 ● 한국여성태권도연맹 창립준비위원회 결성
- 2002 ● 대한태권도협회 산하단체로 정식 승인 제1대 회장 이등자

국립태권도박물관 | 기획전시 |

태권낭자

Taekwondo Girls

1부 소녀, 태권도에 입문하다

Part 1: Girls Take Up Taekwondo

전쟁의 상흔을 딛고 국가 재건과 산업화에 박차를 가하던 시절, 여성의 사회적 활동은 제한적이었고 무예는 남성의 영역으로 여겨졌다. 이러한 통념 속에서 여성의 태권도 수련은 사회적 금기에 맞서는 도전이었다.

1962년 국민체육진흥법 제정 이후 생활체육이 확산되며 태권도는 여성에게도 건강과 호신을 위한 수련으로 보급되었고, 여성 고단자 배출, 해외 파견 및 공식 경기 참여도 점차 늘어났다. 그러나 당시 가부장적 사회구조 속에서 태권도의 제도화는 남성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로 인해 초기 여성 수련자들은 남성 중심으로 설계된 훈련 체계와 규범이라는 장벽을 묵묵히 감내하며 수련을 이어갔다.

During a period when the nation was overcoming the scars of war and driving reconstruction and industrialization, women's social activities remained limited, and martial arts were largely regarded as solely in the male domain. Amid these prevailing attitudes, women who took up taekwondo directly challenged social taboos surrounding both gender and martial arts.

After the National Sports Promotion Act was enacted in 1962, recreational sports began to spread more widely, and taekwondo was introduced to women as a way to improve their fitness and learn self-defense. As a result, the number of female high-ranking black belts grew, and women increasingly took part in overseas assignments and official competitions. However, within the patriarchal social structure of the time, the institutionalization of taekwondo remained centered on men. Early women practitioners therefore continued their training while quietly enduring the barriers created by systems and norms designed primarily for male practitioners.



대한뉴스 제140호
「당수도 연무대회」

Daehan News, Issue 140
“Tang Soo Do Demonstration Tournament”

1957 | 1분 15초 | 한국정책방송원

1957년 11월 13일, 서울 시공관에서 무덕관 주최로 당수도 연무대회가 개최되었다. 150여 명의 당수도 선수가 참가한 가운데, 특히 홍일점이었던 ‘김덕희’ 양의 벽돌 격파 시연은 수많은 관람객으로부터 뜨거운 박수갈채를 받았다.



태권의 세 아가씨 영예의 초단

Three Taekwondo Ladies Receive Honorary
1st Dan

1966. 9. 20. | 조선일보

한성여고 체육관에서 열린 제20회 태권도 승단 심사에서 여성 수련생 3명이 당당히 초단을 획득하며 화제가 된 소식이다.

이영옥, 이경희, 홍순자 양은 300여 명의 남성 참가자 사이에서 합격선인 360점을 상회하는 370점을 기록하며 뛰어난 기량을 발휘하였다.

용산 지도관 소속인 이들은 호기심으로 수련을 시작한 지 약 1년 반 만에 결실을 보았다. 이들의 승단으로 당시 태권도협회에 등록된 우리나라 여성 유단자는 총 5명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1963년 1명, 1965년 1명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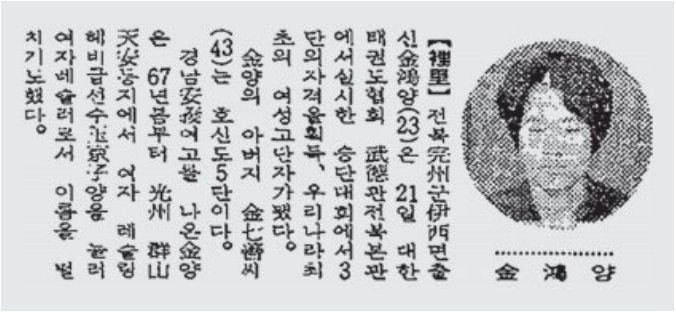


여자 태권도 3단 완주
‘김홍’ 양 획득

Miss Kim Hong Earns 3rd Dan in Women's
Taekwondo

1968. 4. 22. | 경향신문

전북 완주군 이서면 출신의 김홍(23) 양은 지난 21일, 대한태권도협회 무덕관 전북본관에서 실시된 승단 심사에서 3단 자격을 획득하였다. 이로써 김홍 양은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고단자라는 영예를 안게 되었다.



여자 태권 사범, 해외 진출

Female Taekwondo Instructors Dispatched Overseas

1969. 2. 22. | 조선일보

한국 여성 태권도 사범으로서 최초의 해외 파견 소식을 전하고 있다. 태국 방콕의 태권도 지관은 현지의 여성 수련 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이들을 지도할 적임자로 당시 국내 여성 최고단자였던 권옥희(24세, 3단) 양의 파견을 대한태권도협회에 요청하였다. 덕성여중 시절 태권도에 입문하여 당시 미 8군 사범으로 활동 중이던 권 양은 1년간 방콕에 머물며 태국 각지를 순회 지도할 예정이다. 이는 한국 여성 태권도의 우수성을 해외에 알린 첫 번째 사례로 평가받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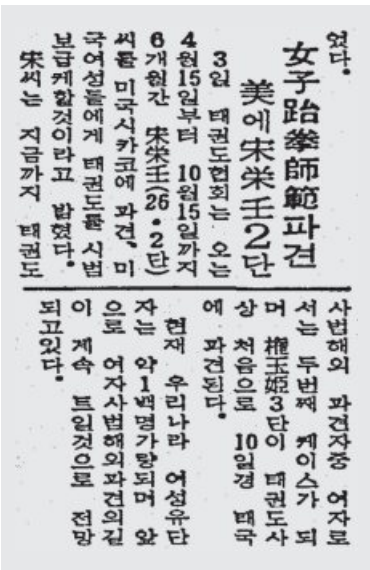


여자 태권 사범 파견

Dispatch of Female Taekwondo Instructors

1969. 4. 4. | 조선일보

여성 태권도 사범의 해외 파견이 본격화되었음을 알리는 기사이다. 대한태권도협회는 송영임(26세, 2단) 사범을 미국 시카고로 파견하여 6개월간 현지 여성들에게 태권도를 보급할 계획을 밝혔다. 이는 권옥희 사범의 태국 파견에 이은 여성 사범으로서의 두 번째 해외 진출 사례이다. 당시 우리나라의 여성 유단자가 약 100명에 달하던 시점에서, 이러한 파견 사례는 여성 지도자들의 해외 진출 기회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임을 시사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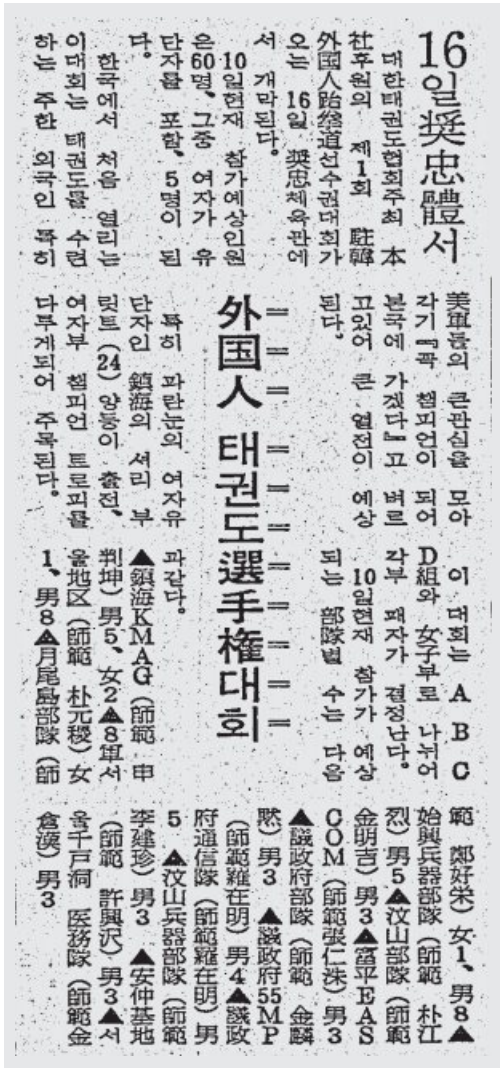


외국인 태권도 선수권 대회

Foreigner Taekwondo Championships

1968. 6. 11. | 조선일보

대한태권도협회가 주최하는 제1회 주한 외국인 태권도 선수권 대회의 개최 소식을 전하고 있다. 1968년 6월 16일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이 대회에는 유단자를 포함한 5명의 여성 참가자가 출전하여 큰 관심을 모았다. 특히 진해 지역 소속의 유단자인 서리 부릿트(24세) 양 등이 여성부 챔피언 트로피를 놓고 각축을 벌였다. 대회는 실력에 따라 A·B·C·D조와 여성부로 나뉘어 진행되었으며, 진해와 미 8군 서울지구, 월미도 부대 소속 여성 수련생들의 참여는 초기 외국인 대상 태권도 보급과 여성 태권도 저변 확대의 단면을 잘 보여준다.



국립태권도박물관 | 기획전시 |

태권낭자

Taekwondo Girls

2부 소녀, 수련의 한계를 넘다

Part 2: Girls Transcending the Limits of Training

1970년대는 여성 태권도가 수련의 단계를 넘어 조직화와 제도화를 통해 비약적으로 성장한 시기였다.

1971년 김영숙 사범의 '선미도장' 개관은 여성 전용 수련 공간의 출현으로, 주체적 훈련과 지도자 양성의 기반이 되었다. 한편 제1회 전국여자부 태권도대회를 시작으로 공식 경기가 정착되고 체급별 경기 체계가 도입되며 전문성이 강화되었다. 동시에 학교 체육과 동아리 확산으로 여성 수련 인구가 크게 증가하고 선수층이 형성되었다. 나아가 1979년 한국여성태권도연맹 창립은 이러한 흐름을 집약한 전환점으로, 여성 태권도의 독자적 발전 기반을 마련하였다.

The 1970s marked a period when women's taekwondo moved beyond the training stage and experienced rapid growth through greater organization and institutionalization.

The opening of Master Kim Young-sook's "Seonmi Dojang" in 1971 signaled the emergence of a women-only training space, laying the foundation for independent practice and the development of female instructors. Starting with the 1st National Women's Taekwondo Championship, official competitions were established, a weight-class system was introduced, and the sport's professional character was strengthened. At the same time, the expansion of school physical education programs and clubs led to a significant increase in the number of female practitioners and to the formation of a competitive pool of athletes. Furthermore, the founding of the Korea Women Taekwondo Federation (KWTF) in 1979 served as a turning point that brought these trends together, laying the groundwork for independent development of women's taekwondo.



1 여성 수련인의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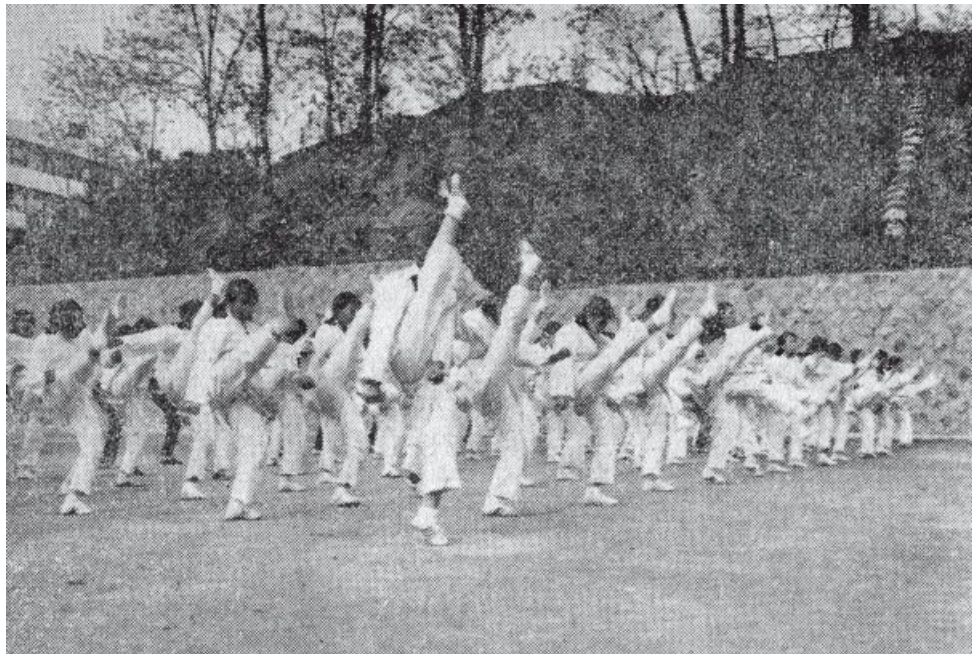
Increase in Female Practitioners

1966년 대한태권도협회에 등록된 여성 유단자는 5명에 불과했으나, 1969년에는 약 100명으로 증가하며 점차 성장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여성 수련생은 1970년 약 2,300명 수준으로 늘어났고, ‘국기 태권도’ 지정 이후 1972년에는 6,000여 명으로 빠르게 확산되었다.

특히 학도호국단 활동과 학교 체육 확대를 계기로 초·중·고등학교에 태권도부가 창설되고 정규·특별활동으로 도입되면서 여학생 참여가 크게 증가하였다. 방과후 교육, 대학 동아리, 직장 태권도부와 시범단 활동도 저변 확대에 기여했다. 이러한 흐름은 여성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변화시키며 태권도의 대중화와 인식 확산을 이끄는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

In 1966, only five female black belts were registered with the Korea Taekwondo Association, but by 1969 that number had grown to around 100, signaling the start of a steady rise. By 1970, the number of female practitioners had reached about 2,300, and after taekwondo was designated the “national martial art” in 1972, that number surged to more than 6,000.

The creation of taekwondo clubs in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s—driven by activities of the Student National Defense Corps and the expansion of physical education in schools — and their adoption as regular or extracurricular programs led to a sharp increase in the number of female students practicing taekwondo. After-school programs, university clubs, workplace taekwondo clubs, and demonstration team activities also played a major part in broadening the sport’s base. These developments helped break down social prejudices against women in martial arts and provided a crucial foundation for the popularization of taekwondo and wider recognition of the sport.



은광여자고등학교 태권도부 (1977년)

『태권도』 창간호 『각종 태권도 대회』

Taekwondo, First Issue
“Various Taekwondo Competitions”

1971 | 25.3×18.2



1971년 초에 개최된 승단 심사 소식과 함께 당시 여성 태권도인들의 활약상을 기록하고 있다. 1971년 2월 14일 한성여고에서 열린 『제42회 전국 태권도 승단 심사 대회』에는 총 316명이 응시하였다. 이 중 여성 응시자는 17명이었으며, 특히 김동순(21세) 양이 400점 만점으로 전체 수석을 차지하며 큰 주목을 받았다. 이어 3월 14일 대신고등학교에서 개최된 『제5회 소년부 승단 심사 대회』에도 전체 응시자 355명 중 12명의 여학생이 참여하는 등 초기 여성 태권도의 저변 확대를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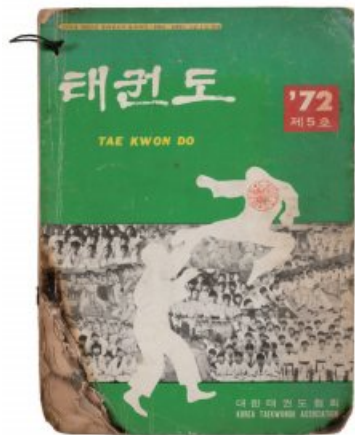


『태권도』 제5호

『학교 순례』

Taekwondo, Issue 5
“School Tour”

1972 | 25.4×1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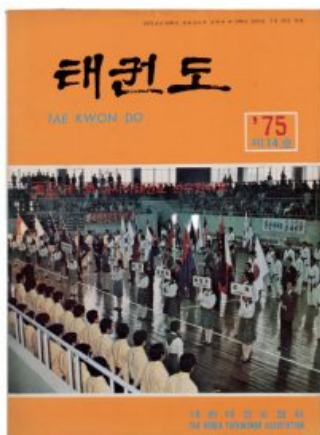
‘학교 순례’ 특집은 태권도를 전체 합동 수련이나 과외 활동으로 채택한 초등학교들을 소개하고 있다. 해당 기록을 통해 1960년대 후반부터 이미 여러 학교에서 태권도 교육이 시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후 그 대상은 중·고등학교까지 확대되었다.

『태권도』 제14호

『태권도의 메아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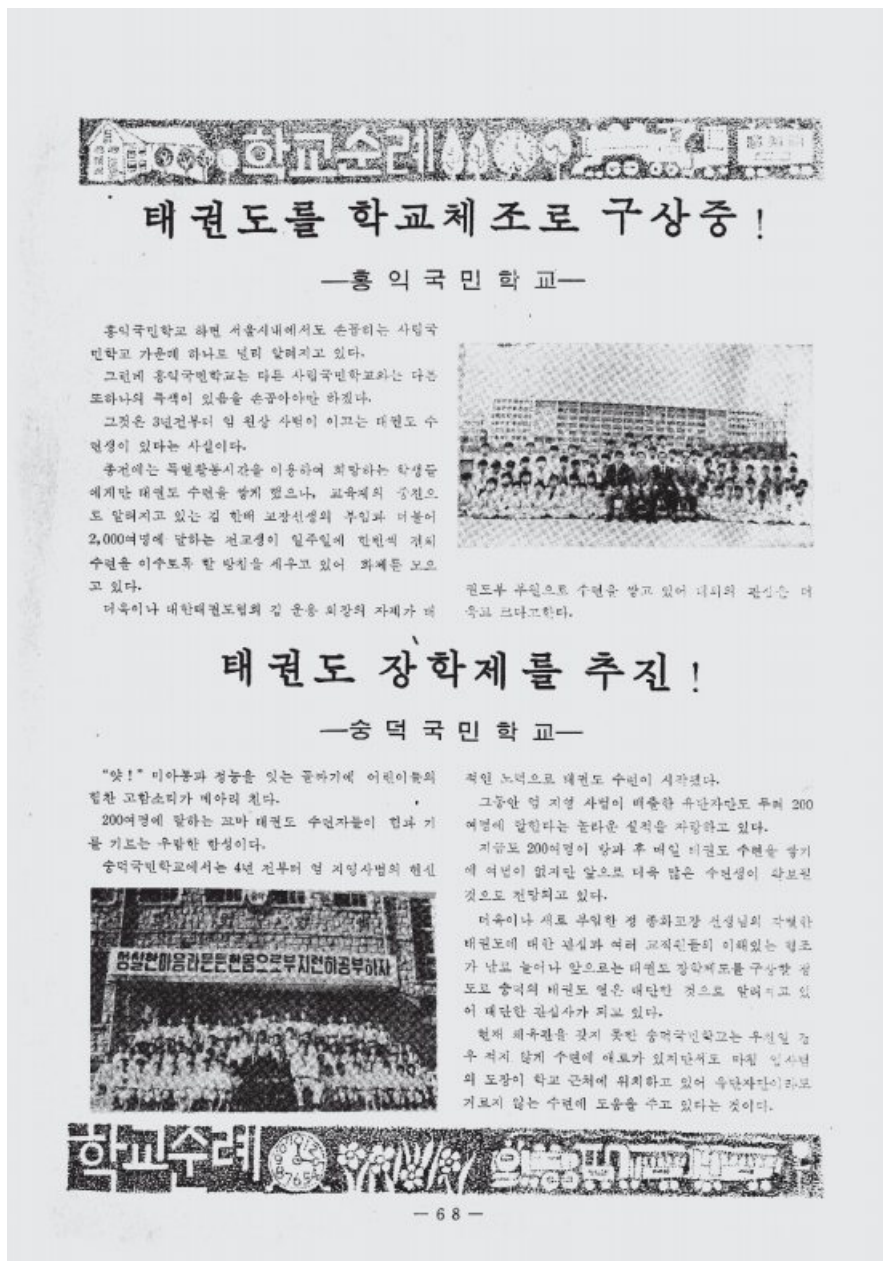
Taekwondo, Issue 14
“Echoes of Taekwondo”

1975 | 25.5×18.5



삼성초등학교 이을용 여교사가 직접 태권도를 익혀 어린이들에게 방과 후 교육을 실시한 과정을 소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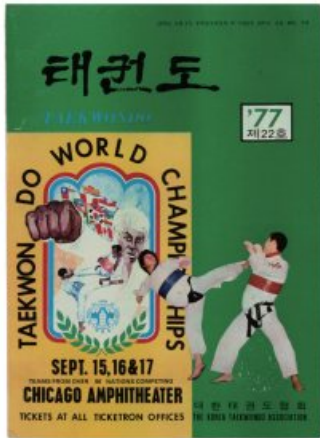
이을용 교사는 여성이 태권도를 배우는 것에 대한 주변의 따가운 시선을 극복하며 수련에 정진하였다. 그 결과 당시 여학생 26명과 남학생 35명이 초단증을 획득하는 것을 목표로 지도에 전념하였다. 여교사의 주도로 학교 현장에서 태권도 교육이 뿌리 내리는 선구적인 사례를 보여준 다.



『태권도』 제22호 『여성태권도 지도자로서의 꿈을 키우자』

Taekwondo, Issue 22
“Let’s Nurture Dreams as Female
Taekwondo Instructors”

1977 | 25.5×1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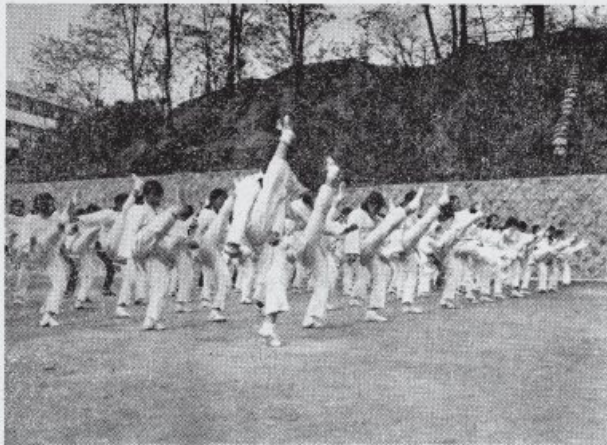


은광여자고등학교 태권도부의 창설 과정과 지도 목표를 소개하고 있다.
은광여고 이강목 교장은 태권도를 통해 학생들의 강한 체력과 지적·미적 감각을 함양하고, 태권도 정신을 바탕으로 청소년기의 올바른 가치관을 재정립하고자 태권도부 조직을 추진하였다. 부 창설 소식에 200여 명의 학생이 지원하는 등 뜨거운 관심을 보였으며, 이에 학교 측은 제2회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한국 대표팀 코치였던 고의민 사범을 영입하였다.
단원들은 제8회 주한 외국인 및 여자부 태권도선수권대회 상위 입상을 목표로 맹훈련에 돌입하며 여성 태권도 지도자로서의 꿈을 키워나갔다.

◇ 태권도 학교 ◇ ————— ◇ TAEKWONDO SCHOOL ◇

여성태권도 지도자로서의 꿈을 키우자 Cradle for Women Taekwondo Leaders

은광여자고등학교



200여명의 수련생이 기본동작을 익히고 있다.

국기원을 마주보는 강남구 역삼동의 은광여자고등학교는 4,000여명이 하늘의 사발을 이상으로써 드높게 자리잡은 진비의 전당으로 **지적충실, 부덕함양, 건강제일**을 학교표훈으로 이나라 여성의 충과 효에 앞장서는 전인교육에 매진하고 있다.

학훈이 그렇듯이 전인교육을 위한 특별활동으로 각종 운동부와 합창단, 부타우스펠드부는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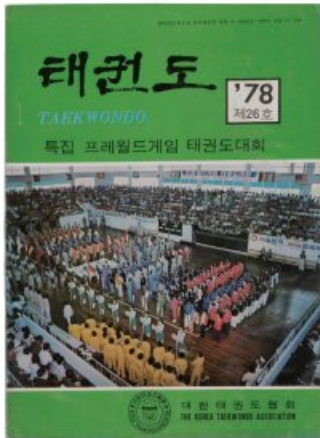
학교의 자랑거리로 들 수 있는데 지난 3월에는 정식으로 태권도부를 창설하여 더욱 활기를 띄고 있다.

이강목 교장은 태권도부 창설에 있어 강한 체력을 통한 미적, 지적을 권장하고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더욱 아름답고 슬기롭게 믿음직스러운 국내 전체여성 태권도인들의 여성체육지도자양성이라는 목표를 세웠다고 한다. 또한 안보

『태권도』 제26호 『태권도부 설치에 대하여』

Taekwondo, Issue 26
“On Establishing Taekwondo Clubs”

1978 | 25.7×18.7



☆學校巡礼☆ ————— ☆Reportage on school☆



태권도부 설치에 대하여

송신여자중고등학교장 박 보 열

학도 호국단이 조직된 이후 여학생도 원단 유사시에는 첫 대신 여군으로써 국보 방위회 일역을 담당해야 하는 중대한 책임을 지니게 되었다. 이러한 국가가 요구하는 중책을 다 할 수 있으려면 먼저 고도의 정신 무장과 강인한 체력이 준비 되어야 함은 두 말할 필요도 없다. 그결과 연 국가 안보에 대한 정신 무장을 견고히 하고 강인한 체력을 양성함에 있어 여학생에게 적합한 국방 체육 종목이 무엇일까? 하교 나는 여력가지 체육 종목을 검토되 보았던 것이다. 그러다가 태권도야말로 삼기 목적을 달성 하는 데 있어 가장 적합한 종목이라고 생각 하였다.

태권도는 그 발생한 곳이 조국인 대한민국이요 그 뿐 아니라 현재 세계 각국에 보급되어 국제적인 체육 종목으로 눈부신 발전을 하고 있으며 국위 선양에 공헌한 바도 지대한 운동이다. 우리 학교 학생들에게 태권도를 보급시킴으로써 첫째 민족 주체 의식을 앙양, 둘째 불굴의 강인

한 체력과 정신을 양성, 셋째 협동 단결의 정신 배양, 넷째 유사시의 호신 방위 등을 도모 하려 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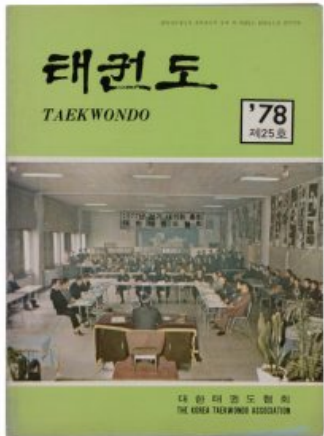
호국단 특별 활동의 한 부분 태권도부를 설치 하였으나 지금 부원은 몇명 되지 않아 그 성과 별로 큰 바 없다. 작년 7월23일 거행된 주한 외국인 및 여자 개인 대회에서 소수의 선수가 출전 금메달(고 2 임애란) 은메달(고 3 이옥경) 동메달(고 3 안순덕)을 획득했다. 앞으로 태권도부를 더욱 확충, 교내 활동을 강화하는 동시에 사립을 초빙하여 지도를 담당하게 할 계획이며 급진도에는 태권도를 국방 체육 종목으로 선정 건교령에 주 일시간 실시할 여정을 가지고 있다. 물론 태권도부 발족은 부원들의 열성적인 학습 태도에 따르겠지만 학교 선생님들의 전체 협조와 뒷 받침이 필요한 것이므로 학교 전체가 관심을 가지고 이에 입한 방침임을 밝혀둔다.



『태권도』 제25호
『여대생들의 태권도』

Taekwondo, Issue 25
“Taekwondo Among Female University
Students”

1978 | 25.7×18.8



1971년 최초의 여성 전용 태권도장인 ‘선미태권도장’을 설립한 김영숙 관장은 1975년 이화여자 대학교에 최초의 태권도 동아리인 ‘이화태권’을 개설하였다.

해당 호에는 김영숙 사범의 기고문과 함께 태권도를 수련하는 학부생 4명의 생생한 경험담이 수록되어 있다. 이는 여성 태권도가 도장을 넘어 대학 체육 문화의 일환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기록이다.



제1회 국제여자오픈
태권도대회 팜플릿

Pamphlet for the 1st International Women's
Open Taekwondo Championships

2000 | 29×22.5

제1회 국제여자오픈
태권도 대회 자료집

Proceedings of the 1st International
Women's Open Taekwondo Championships

2000 | 30.7×22.7

제1회 국제여자오픈
태권도 대회 결과보고서

Results Report for the 1st International
Women's Open Taekwondo Championships

2000 | 30.8×22.5

김영숙 관장은 해외에 진출하여 태권도 전파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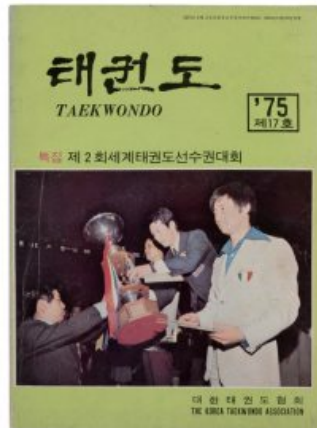
2000년 7월 미국 LA에서 제1회 국제여자오픈태권도대회를 개최하는 등 여성태권도를 세계에 전파한 선구자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태권도』 제17호 『여성의 해에 태권도 여걸들』

Taekwondo, Issue 17
“Taekwondo Heroines in the Year of Women”

1975 | 25.5×18.7



대능 청주공장 직장 태권도부의 활동상을 기록하고 있다. 태권도부는 1974년 충북태권도협회장의 후원으로 창설되었다.

이들은 제6회 주한외국인 및 여자부 대회를 앞두고 60여 명 중 7명을 선발하여 강화 훈련을 실시했으며, 최종 6명이 출전하여 메달 4개(금1, 은1, 동2)를 획득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여자가 무슨 태권도냐”라던 당시의 편견 어린 시선을 선망으로 바꾼 의미 있는 성과로 기록되어 있다.



제6회 외국인·여성태권도 선수권대회 페넌트

6th Foreigners' & Women's Taekwondo Championships Pennant

1975 | 28.5×19.5

제7회 외국인·여성태권도 선수권대회 페넌트

7th Foreigners' & Women's Taekwondo Championships Pennant

1976 | 36×27.5

1970년대 여성 태권도인이 참가할 수 있었던 대표적인 대회로, 선수들이 기량을 겨루고 상위 입상을 목표로 훈련하며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태권도』 제13호 『눈보라 속에도 국기의 부정이』

Taekwondo, Issue 13
“Even in the Blizzard, a Father’s Love for
the National Sport”

1974 | 25.7×1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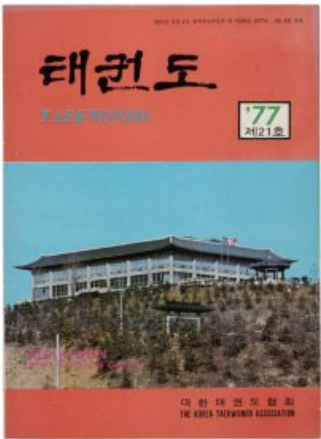
아버지 김재향 씨와 딸 김경주 양의 특별한 태권도 이야기를 담고 있다. 딸이 태권도를 배우는 과정을 상세히 설명하며, 이를 헌신적으로 응원하는 아버지의 따뜻한 부성애를 소개한다. 김경주 양은 1973년 시흥군 교육감기 쟁탈 태권도 대회 웰터급에 출전하여 남학생들을 제치고 우승을 차지하며 뛰어난 실력을 입증하였다. 이어 1974년에는 2단으로 승단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태권도』 제21호 『나는 태권도가 좋아요』

Taekwondo, Issue 21
“I Love Taekwondo”

1977 | 25.5×1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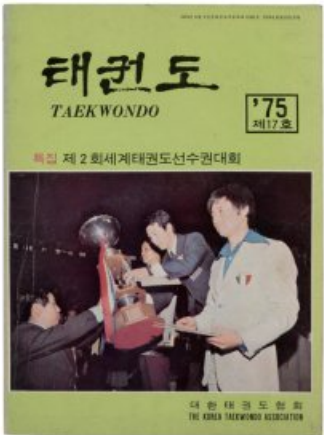
서울대신초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류승옥(4학년) 양과 두 여동생 등 세 자매가 함께 태권도를 수련하며 성장하는 과정을 담고 있다. 첫째 류승옥 양은 1974년 초등학교 입학과 동시에 아버지의 권유로 태권도에 입문하였다. 이후 동생들도 수련을 시작하여 1976년에는 첫째와 둘째(승임)가 2품을, 셋째(승희)가 1품을 나란히 획득하였다. 당시만 해도 여자 아이가 태권도를 배우는 것에 대한 편견이 있어 남몰래 도장을 다녀야 했던 일화가 소개되어 있다.



『태권도』 제17호
『태권도 연무시범으로
봉사활동 펴는 여성시범단』

Taekwondo, Issue 17
“Women’s Demonstration Team Engaging
in Volunteer Work Through Taekwondo
Demonstrations”

1975 | 25.5×18.7



태권도 연무 시범을 통해 사회봉사 활동을 펼치는 ‘한국비둘기태권도시범단’의 창단과 활약상을 소개하고 있다.

이 시범단은 1975년 이규정 사범을 코치로 하여 여성 유단자 15명을 포함한 총 30명의 단원으로 조직되었다. 이들은 군부대나 복지 시설 등을 방문하여 위문 시범 공연을 선보이는 등 활발한 봉사활동을 전개하였다. 이는 여성 태권도인들이 무도 연마를 넘어 사회적 실천에 앞장섬으로써 많은 태권도인의 귀감이 된 사례로 기록되어 있다.



한국비둘기태권도시범단
페넌트

Korea Pigeon Taekwondo Demonstration
Team Pennant

1979 | 24.5×16.2



「태권도」제7·8합본호
『태권만평』

Taekwondo, Combined Issues 7 & 8 "Taekwondo Cartoons"

1973 | 25.7×1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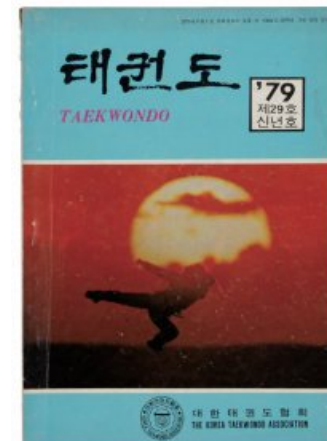
만평은 당시 세계 각지로 뻗어 나가는 태권도의 위상과 더불어 한국 사회 내에서 여성 태권도 수련 인구가 증가하던 시대상을 풍자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태권도」 제29호
『연재만화 태순양』

Taekwondo, Issues 29
"Serialized Comic: Taesunyang"

1979 | 25.7×18.5



태권도를 배우는 여주인공 ‘태순이’를 내세워 다양한 에피소드를 그려낸 8컷 연재만화이다. 1974년 6월호부터 1982년 12월호까지 장기간 연재되었다. 1970년대 중반부터 여성 태권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고 실제 여성 수련생이 증가하던 시대적 배경을 잘 보여준다.



만화영화
「태권동자 마루치 아라치」

Animated Film: Taegwondongja
Maruchi Arachi

1977 | 80분 | 한국영상자료원

임정규 감독이 연출한 1970년대 한국의 대표적인 태권도 만화영화이다. 주인공 마루치와 아라치가 태권도를 통해 악당 파란 해골단에 맞서 싸우는 모험을 다루고 있다.
특히 여주인공 ‘아라치’는 남주인공과 대등한 태권도 실력을 갖춘 능동적인 인물로 묘사되었다. 왕호체육관의 유승선 관장은 1976년 작품 「로봇 태권 V」의 태권도 동작 지도사범으로도 활동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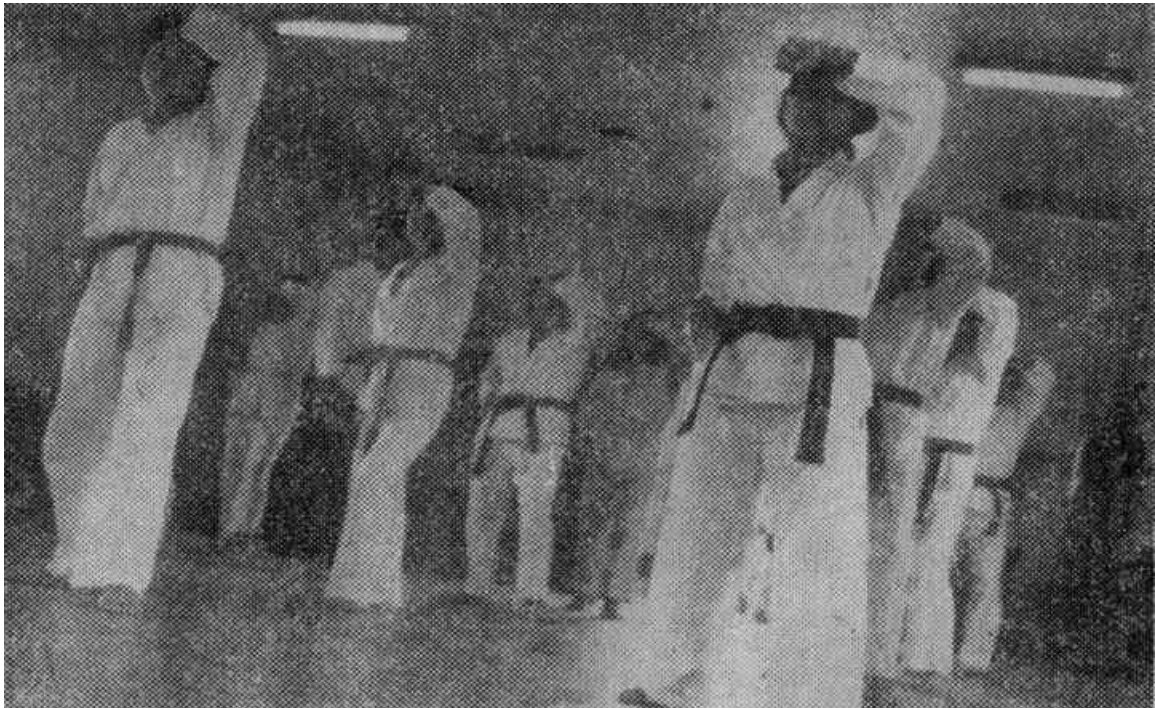
한국·홍콩 합작 영화
「위험한 영웅」

Korea-Hong Kong Co-production Film:
Dangerous Her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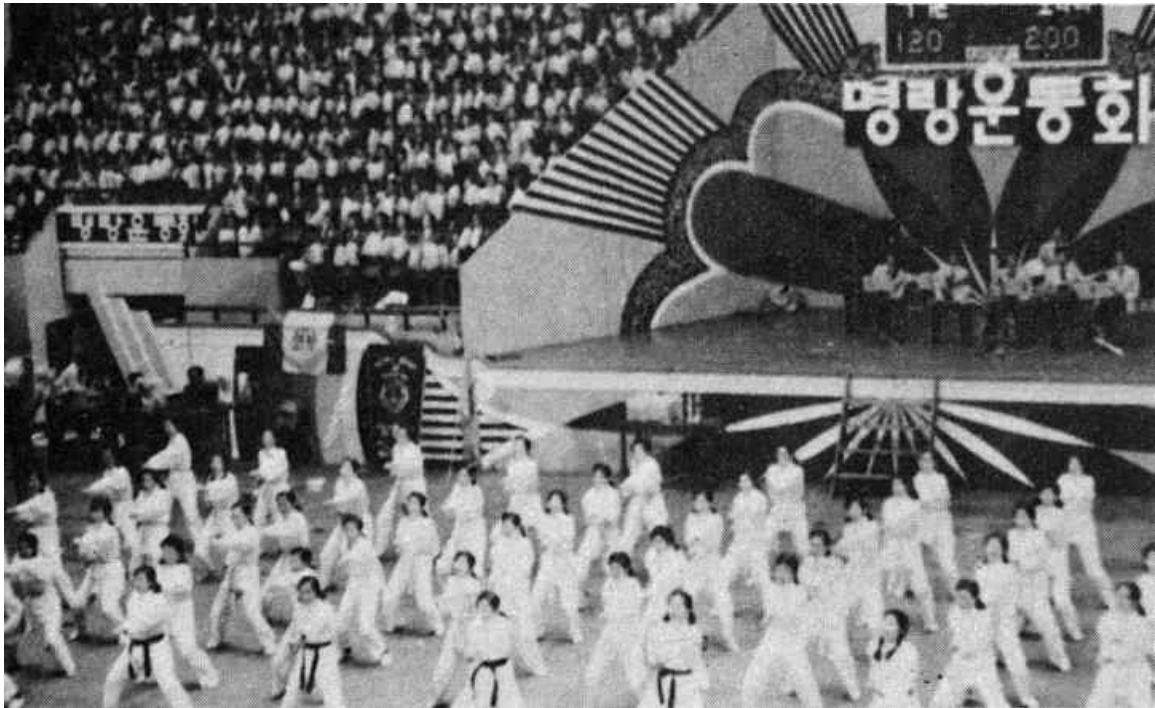
1974 | 96분 | 한국영상자료원

홍콩의 거장 오우삼 감독이 한국에서 제작한 무협 영화로, 국내에서는 「위험한 영웅」이라는 제목으로 개봉하였다.
원제인 「여자태권군영회(女子太拳群英會)」에서 알 수 있듯이 태권도를 수련하는 여성들의 활약이 부각된 작품이며, 한국 최초의 여성 전용 도장을 세운 김영숙 사범이 무술 지도와 대역, 출연 등으로 참여하였다.
주인공은 민족의 전통 무술을 계승해야 한다는 숭고한 신념을 바탕으로, 태권도를 말살하려는 세력에 맞서 싸워 승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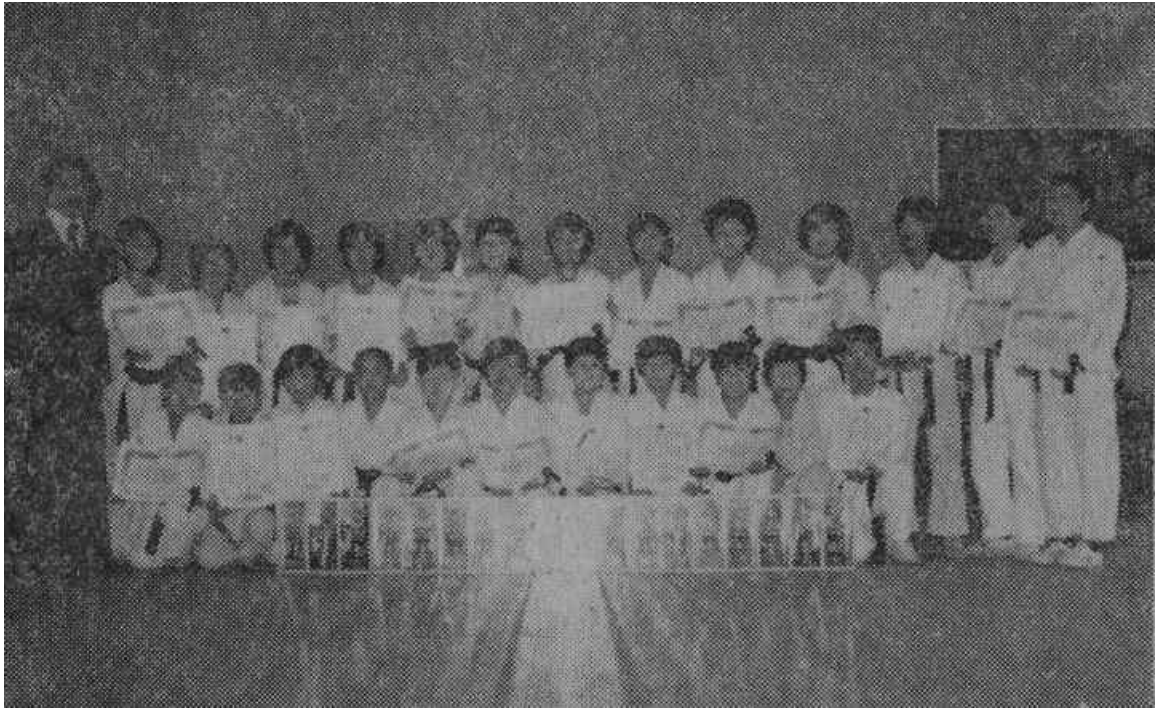




대능 청주공장 태권도부 훈련 (1975년)



MBC-TV '명랑운동회' 시간에 태권도 연무시범을 보이는 은광여자고등학교 태권도부원들 (1978년)



서울미동초등학교 1977년 졸업생 일동과 기념촬영 (1977년)



이화여자대학교 태권도 부원들의 수련후 기념촬영 (1978년)

2 여자부 태권도 공식 경기 개최

Emergence of Women in Official Taekwondo Competitions

1970년대는 여성 태권도가 공식 경기 종목으로 자리 잡기 시작한 시기였다. 1970년 제1회 전국 여자부 태권도대회를 시작으로, 1971년 제2회 대회와 우수선수 선발대회가 개최되며 여성 경기의 기반이 형성되었다. 초기에는 단·급 중심으로 운영되었으나, 1970년대 후반에는 중·고등학교 여자부가 창설되고 체급별 경기 체계가 도입되며 경쟁 구조가 전문화되었다. 1978년 협회장기 대회에서는 여고부가 8체급으로 운영되었고, 같은 해 프레월드게임을 통해 여성 선수들이 국제 무대에 진출하였다. 이러한 흐름은 여성 태권도 경기가 제도화되고 세계화로 나아가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The 1970s was the decade when women's taekwondo began to take shape as an official competitive sport. Beginning with the 1st National Women's Taekwondo Championship in 1970, the basis for women to compete was strengthened through the 2nd Championship and a selection tournament for top athletes in 1971. In the early years, events were organized by dan and geup rank. By the late 1970s, however, separate divisions for middle and high school girls had been established, and a weight-class system was introduced, giving women's competition a more specialized and systematic structure. At the 1978 Association President's Cup, the high school girls' division included eight weight classes, and in the same year, female athletes appeared on the international stage for the first time through Pre-World Games events. These developments marked an important turning point in both the institutionalization and globalization of competitive women's taekwondo.



여자부 태권도개인선수권대회 (1971년)

새 챔피언 15명 국민학교 태권도

Fifteen New Champions in Elementary School Taekwondo

1970. 10. 26. | 경향신문

1970년 10월 24일과 25일 양일간 한성여고 체육관에서 개최된 제1회 전국국민학교태권도선수권대회 겸 전국여자부태권도개인선수권대회의 소식을 전하고 있다. 이 대회에는 전국에서 41명의 여성 선수를 포함하여 총 446명의 선수가 출전하였다. 여자부에서도 3명의 부문별 우승자가 배출되었다. 특히 여자부 개인전에서는 실력에 따라 A·B·C조로 나누어 경기가 치러졌으며, 남궁명석, 김순아, 김순옥 선수가 각각 정상에 올랐다. 이 대회는 초등학교생과 여성을 대상으로 한 초기 전국 규모 대회의 위상을 잘 보여준다.

[여자부 개인전 결승 결과]

- A조(2단) 남궁명석(판정승) - 엄은실
- B조(초단) 김순아(판정승) - 최형숙
- C조(1급~3급) 김순옥(KO승) - 광영환

새 챔피언 15명
국민학교태권도

제1회 전국국민학교태권도
개인선수권대회 겸 전국여자
부태권도 개인선수권대회가
전국에서 41명의 여자선수
를 포함한 4백46명이 출전한
가운데 24, 25양일간 漢城
여고체육관에서 열려 金起範
(龍門국교)등 15명의 국민
학교어린이 챔피언과 3명의
여자부선수권자가 탄생했다.
◇국민학교부 각급승자
▲A조Ⅱ黃仁규(원곡·강릉)
李昌훈(솔타이급·大邱명천)
尹仁성(백범급·崇仁)孔희배
(매곡·南大門)韓규명(타
이트급·전곡)鄭용인(원터급·
漢江)劉창규(미동급·森川중
앙)楊희태(해비급·단심비)
▲B조Ⅱ郭성천(솔타이급·南
大門)鄭용성(백범급·봉천)金
지중(매곡·議政府중앙)金
기범(라이트급·里門)金학철
(원터급·漢江)宋용만(미동급
·청구)朴진수(해비급·창성)
◇여자부개인전
▲A조(2단)전승
남궁명석 판정 엄은실
▲B조(초단)결승
김순아 판정 최형숙
▲C조(1급~3급)전승
김순옥 KO승 광영환

「태권도」 제2호(여름호)
『각종 태권도 대회』

Taekwondo, Issue 2 (Summer Issue)
“Various Taekwondo Competitions”

1971 | 25.3×1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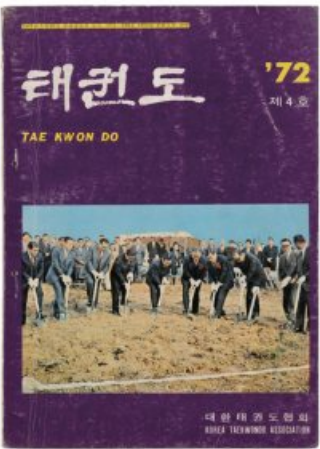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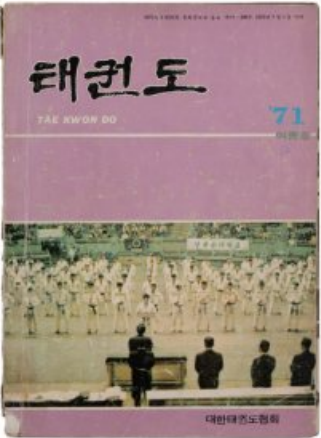
1971년 6월 19일부터 20일까지 한성여고 체육관과 장충체육관에서 개최된 ‘제2회 전국국민학교아동우수선수권대회 및 전국여자부태권도우수선수권대회’의 소식을 다루고 있다. 이 대회는 체급별 경기가 아닌 수련생의 숙련도에 따라 A조(2단 이상), B조(1단), C조(1급~3급)로 부문을 나누어 진행된 것이 특징이다. 여자부 A조에서는 남궁명석 선수가 1위를 차지하였으며, 엄은실(2위), 최춘희·김춘옥(공동 3위) 선수가 각각 입상의 영예를 안았다.

「태권도」 제4호
『1971년 여자부 우수선수』

Taekwondo, Issue 4
“Outstanding Female Athletes of 1971”

1972 | 25.2×18.7

1971년 10월에 개최된 ‘전국여자부태권도우수선수선발대회’의 주요 결과와 부문별 우승자를 소개하고 있다. 이 대회에서 남궁명석(A조), 송봉희(B조), 김옥자(C조) 선수가 각각 각 부문 1위를 차지하였다. 특히 A조 우승자인 남궁명석 선수는 같은 해 열린 ‘여자부개인선수권대회’와 ‘여자부우수선수선발대회’를 모두 석권하며, 1971년 태권도계를 빛낸 최고의 여자부 우수선수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1971年度 女子部 優秀選手



A組 (二段)
南宮 명석
1952년 11월 3일생
서울 태생
수련연수 : 6년
수련동기 : 송구를 하다가 우연히 마음이 끌렸음.
우승소감 : 기쁘다. 여자도 태권도를 할 수 있다는 자부심 더욱 길러 가고 싶다. 앞으로 태권도를 통해 인격도야에 더욱 힘쓸 생각이다.
한국 고유의 무예를 수련함으로써 여권신장의 일익도 담당하고 싶다.

B組 (初段)
송 봉희
1955년 2월 17일생
인천 태생
수련연수 : 1년
수련동기 : 집에 아들이 없어 동생들을 돌봐야 하는 입장으로 태권도 수련을 결심했다.
수상소감 : 무척 기쁘다. 태권도를 모든 여성들에게 좀 더 이해시키고 싶다.
앞으로도 꾸준히 태권도 수련을 쌓아 해외로 진출할 생각을 갖어 본다.

C組 (1-3級)
김 옥자
1955년 3월 7일생
경기도 안양 태생
수련연수 : 1년
수련동기 : 평소의 호기심을 실천에 옮겨 봤다.
우승소감 : 기쁘다. 오늘의 우승에 힘입어 더욱 태권도에 수련에 전념 하겠다.
주위 사람들에게 태권도의 참뜻을 깨우쳐 더 많은 태권도인구가 늘어 나고 태권도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깨우치고 싶다.

A組 銀메달 : 송 봉희, 송 춘옥
銅메달 : 최 춘희, 김 춘옥
B組 銀메달 : 조 삼숙
銅메달 : 홍 병자, 안 정순
C組 銀메달 : 최 영숙
銅메달 : 장 정남, 권 영숙



1971년도 전국여자부태권도우수선수선발대회장 풍경 (197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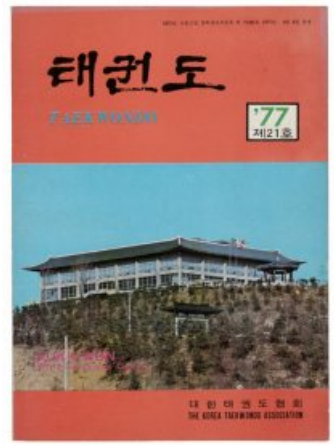


1971년도 전국여자부태권도우수선수선발대회 (1971년)

『태권도』 제21호
『제3회 전국중·고등학교
태권도개인선수권대회』

Taekwondo, Issue 21
“The 3rd National Middle and High School
Taekwondo Individual Championships”

1977 | 25.5×18.7



1976년 10월에 개최된 제3회 전국중·고등학교 태권도개인선수권대회에는 전국 중학교 34개교 249명, 고등학교 48개교 332명의 선수가 참가하여 기량을 겨루었다. 특히 이번 대회는 남녀 통합 경기로 진행되었으며, 중등부 체급에 여성 선수들이 유일하게 출전하여 큰 화제를 모았다. 광명여중의 김경주 선수가 페더급에, 해원여중의 김지연 선수가 미들급에 각각 출전하여 남자 선수들과 대등한 경기를 펼쳤다. 비록 두 선수 모두 접전 끝에 판정패하였으나, 성별의 장벽을 넘어 남성 선수들과 직접 맞붙은 이들의 도전은 당시 태권도계에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

<경 기> <COMPETITION>

제 3 회 전국 중 · 고등학교 태권도 개인선수권대회
The 3rd Middle and High School T.K.D. Championships

제12회대학태권도협회회장기경단결
제 3 회 전국 중 · 고등학교태권도개인
선수권대회가 76년 10월 27일부터 29
일까지 3일동안 전국 중·고등학교태권
도연맹 주최 · 대한태권도 협회후원으
로 경기원에서 개최되었다.

부산송도중학교를 비롯 34개교 249
명이 참가한 중학교부와 고등부에서
는 군산중앙고등학교를 비롯 48개교
332명이 출전 중581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이번 대회에는 광명여중의
김경주선수가 중등부 페더급에, 중등부 미들급
의 해원여중의 김지연선수가 각각 출전 남자선
수들과 겨루게 되어 관중들의 눈길을 모으기도
하였다.

첫날 오전 9시부터 시작된 경기는 2분 3회전
으로 토나먼트식으로 개인이 최다한 메달순위
에 따라 종합우승을 판가름 하게되었는데 중기부
급의 경우 54명의 선수가 출전 결승전에 진출하
기 위해서는 무려 5인의 대전을 치루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오후 11시에는 개최식이 거행되었는데 대회장
인장석규 중 · 고태권도 연맹회장은 개최사를 통
해 『전년대 비해 보다 많은 참가선수는 태권도
경기 인구가 증가일로에 있다는 증거이며 민족
의 스포츠로서, 발전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태권도의 기수로서 책임을 가지고 정성감당하게
신전분투할 것과 육체적으로 강하지 않고 정신
적으로 보다 큰 사명감을 갖도록 당부』했다. 이
어 명예대회장인 김운용회장은 축사를 통해 『여
러분들의 동료들이 제 2 회 아시아태권도 선수권
대회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두고 돌아왔지만 앞
으로 제 3 회 세계대회 및 월드컵임 I 중 국제대
회에는 여기 모인 여러분들이 한국을 대표해야
할것』이라고 말하고 『좀더 진지한 자세에서 기

초지력 함양에 중점을 두어 윤리책으
로 향한 한편으로서 훌륭한 성과를
거둘수 있도록 기술뿐만 아니라 정신
적으로도 더욱 연마된 재능의 하지
당것』을 당부하였다.

이러서 승화된 경기에서는 비교적
경기출전 경향이 많은 선수들이 예선
을 통과하였고, 남자선수들과 열전을
벌이려고 단단히 작오를 하였던 중등
부 미들급의 김지연선수도 예선전에
서 황경준(경신중) 선수에게 판정패
를 당하고 말았다. 그러나 국민학교 2년부터 태
권도를 수련하였다는 김지연양은 국민학교 1학
년때에 소아마비를 앓아 병원에 입원까지 하였
으나 담당의사의 태권도수련 권유로 지금껏 7년
동안 태권도를 수련하여 2단의 실력을 갖고 있
으며 특히보는 앞차기와 앞차기로 잇긴 경기를
보여 주려고 했으나 체력에 밀려 지고 말았다며
앞으로도 개인선수권대회에는 파김치가 출전하
여 경기경험을 쌓은 다음 해외에 나가 국위선양
을 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마지막날인 29일까지는 치열한 공방전으로 심
게 중학요수수 파가루하기에는 어려웠는데 고등

(김석규 대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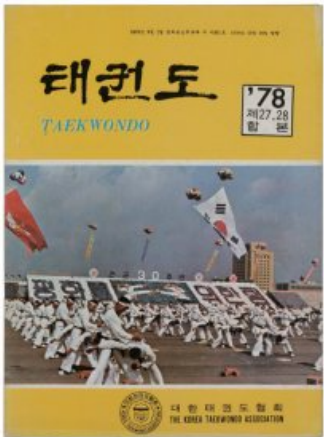
(김지연선수의 멋진 앞차기 동작)

— 3 4 —

『태권도』 제27·28합본호
『제5회 한국 중·고등학교
태권도 개인선수권 대회』

Taekwondo, Combined Issues 27 & 28
“The 5th Korea Middle and High School
Taekwondo Individual Championships”

1978 | 25.7×18.5



1978년 9월에 개최된 '제14회 태권도협회장기쟁탈전 겸 제5회 한국중·고등학교태권도개인선수권 대회'의 소식을 전하고 있다. 이번 대회에는 중등부 25개교 187명, 남고부 38개교 402명과 더불어 여고부 38개교 69명의 선수가 참가하여 총 8개 체급별로 경합을 벌였다.

【여고부 체급별 우승자】

- 핀급: 김경숙 (청산여상전수) • 플라이급: 한순옥 (은광여고) • 뱅텀급: 황요안나 (인천체육고)
- 페더급: 임재숙 (청산여상전수) • 라이트급: 남궁숙 (은광여고) • 웰터급: 이미향 (청산여상전수)
- 미들급: 김복신 (서울체육고) • 헤비급: 안선기 (청산여상전수)

제14회 대한태권도협회장기쟁탈전 및
제5회 한국중·고등학교태권도개인선수권대회
기념메달

Commemorative Medal for the 14th Korea Taekwondo Association
President's Cup and the 5th Korea Middle and High School Taekwondo
Individual Championships

1978 | 지름 5.8



프레월드게임 태권도 대회
자료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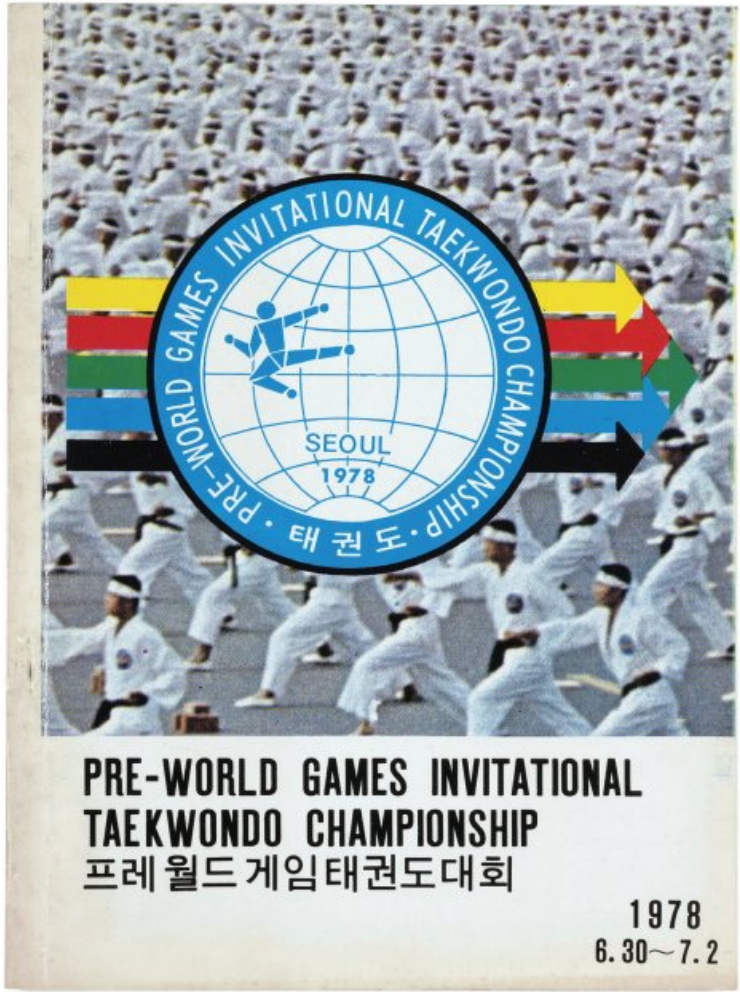
Pre-World Games Taekwondo Tournament
Handbook

1978 | 27×20

1978년 6월 국기원에서 개최된 ‘프레월드게임(Pre-World Games) 태권도대회’에 관한 기록이다. 세계태권도연맹(WTF)이 국제경기연맹연합(GAISF)의 결의에 따라 1981년 제1회 월드게임에 태권도가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자, 본 대회를 앞두고 그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 대회에는 전 세계 19개국에서 24개 팀, 총 276명의 선수가 참가하였다.

특히 이 대회는 향후 여자 태권도 세계선수권대회 개최의 초석이 된 역사적인 경기였다. 한국, 자유중국(대만), 레소토, 미국 등 4개국에서 여성 선수들이 출전하여 기량을 겨루었으며, 당시 김영숙 사범의 회고에 따르면 여성 대표팀은 예산 부족으로 인해 단복을 직접 양장점에서 맞춰 입고 출전해야 했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훌륭한 성적을 거두었다.

경기 결과, 한국은 남성부 8체급 전 종목을 석권하였으며, 여성부에서도 임신자(핀급), 김경주(밴텀급), 양현자(페더급), 남궁숙(웰터급), 안선기(헤비급) 선수가 금메달을 획득하며 한국 태권도의 저력을 세계에 알렸다.



프레월드게임 태권도 대회 페넌트

Pre-World Games Taekwondo Tournament Pennant

1978 | 30×19.5



프레월드게임 초청 태권도 대회

Taekwondo Tournament at the Pre-World Gam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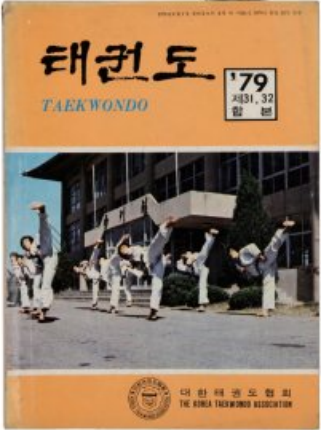
1978 | 59초 | 한국정책방송원



『태권도』 제31·32합본호
『대만 국제 친선 태권도 대회』

Taekwondo, Combined Issues 31 & 32
“Taiwan International Friendship
Taekwondo Championship”

1979 | 25.8×18.6



3 한국여성태권도연맹 창립

Founding of the Korea Women Taekwondo Federation

1979년 3월 30일, 국기원에서 개최된 창립총회를 통해 한국 최초의 여성 단독 조직인 한국여성태권도연맹이 창립되었다. 이학선 초대 회장을 중심으로 학계와 무도계 인사들이 참여한 연맹은 여성 태권도의 권익 신장과 저변 확대를 목표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다. 같은 해 제1회 전국여성태권도 개인선수권대회를 개최하며 여성 경기의 독자적 체계를 구축하였고, 선수 육성·국제 교류·시범 활동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비록 1984년 해산되었으나, 여성 태권도인이 주체적으로 조직을 이끌어 발전 기반을 마련한 중요한 출발점이 되었다.

On March 30, 1979, the KWTF—Korea’s first organization devoted solely to women in taekwondo—was launched at a founding general meeting held at Kukkiwon. Under its first president, Lee Hak-seon, and with the participation of figures from both academia and the martial arts community, the federation began pursuing initiatives to strengthen women’s status and expand women’s participation in taekwondo. That same year, it staged the 1st National Women’s Taekwondo Individual Championship, creating an independent competition framework for women, and actively promoted athletic development, international exchange, and demonstration activities. Although the federation was dissolved in 1984, it marked a pivotal moment in which female taekwondo practitioners took the lead in forming their own organization and laid a foundation for the future growth of women’s taekwondo.

한국여성태권도연맹 경기단체 변천과정

년도	1979~1984	1986	1987~1993	1994	2002
명칭	한국여성 태권도연맹	한국여성 태권도회	태권낭자회	한국여성 태권도회	한국여성 태권도연맹
변경	1차	2차			3차

한국여성태권도연맹 주요 추진위원

- (위원장)
이학선 (새마을봉사회 중앙회장)
- (위 원)
성정순 (이화여대 체육대학장)
박정숙 (한국걸스카우트연맹 사무총장)
전화봉 (새마을봉사회 중앙회 부회장)
최보배 (한국여성단체협의회 감사)
김영숙 (선미체육관 관장)
강용자 (경향신문 문화부 차장) 등

1979년도 주요 사업 계획

- 4월 제1회 대한태권도협회장기 쟁탈 여성태권도선수권대회 겸 제4회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파견 선수 선발대회
- 5월 제1회 전국 여성태권도 유단자 새마을 연수 교육 실시
- 6월 여성태권도 시범단 선발대회 개최
- 7월 제10회 주한 외국인 및 여자부 태권도 개인선수권 대회 참가
- 8월 제1회 여성단체 대항 태권도 대회
- 9월 해외 파견 선수단 강화 훈련 실시
- 10월 제2회 전국 여성태권도 유단자 새마을 연수 교육 실시
- 11월 제4회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선수단 파견
- 12월 일선 장병 위문 시범단 파견



한국여성태권도연맹 결성식에 참석한 추진위원 (1979년)

한국여성태권도연맹 창립총회 기념촬영 (1979년)



한국여성태권도연맹 초대 이학선 회장 (1979년)

한국여성태권도연맹
창립 총회 페넌트

Pennant from the Inaugural General
Assembly of the Korea Women Taekwondo
Federation

1979 | 27.5×21

1979년 3월, 여성 태권도인들의 권익 신장과 저변 확대를 목적으로 '한국여성태권도연맹'이 공식 출범하였다. 연맹은 창설 직후 '회장기 대회', '한·중 친선 대회', '국가대표 선발전' 등 다양한 대회를 주도적으로 개최하며 여성 태권도가 독립적인 경기 종목으로 성장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왕성한 활동에도 불구하고, 당시 여성 무도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경제적 여건의 어려움으로 인해 1984년 공식적으로 해산되었다. 비록 연맹의 존속 기간은 짧았으나, 이는 여성 태권도인들이 스스로 조직을 구성하여 주체적인 목소리를 냈던 최초의 시도이자 여성 태권도 역사의 중요한 전환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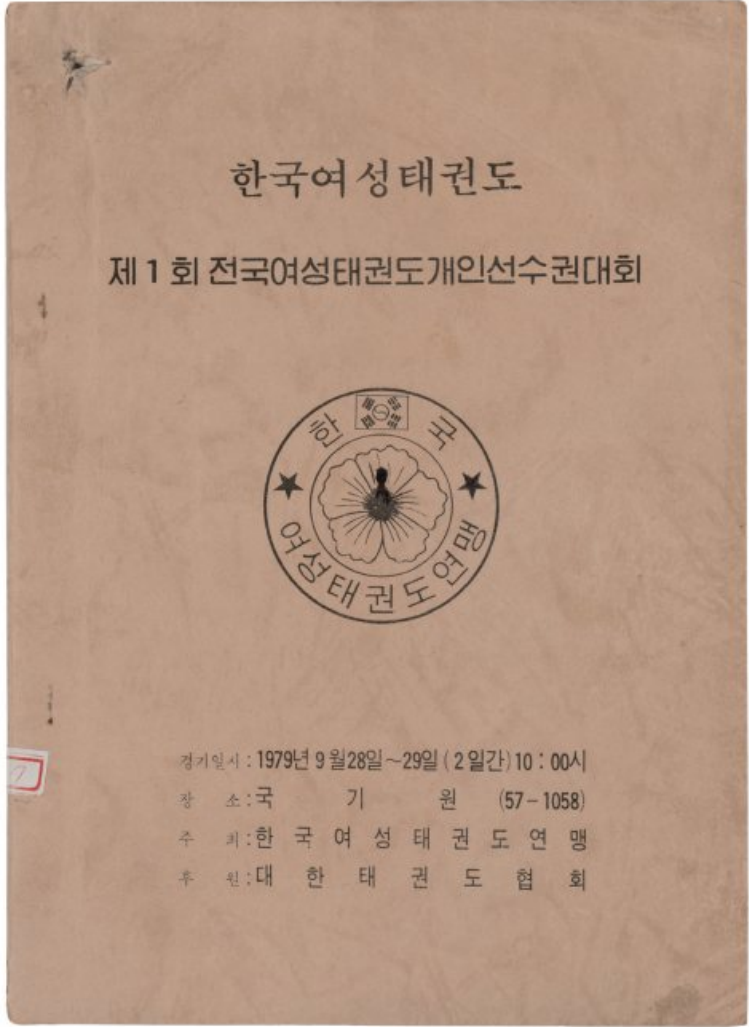


제1회 전국여성태권도
개인선수권대회 자료집

Proceedings of the 1st National Women's
Taekwondo Individual Championship

1979 | 26×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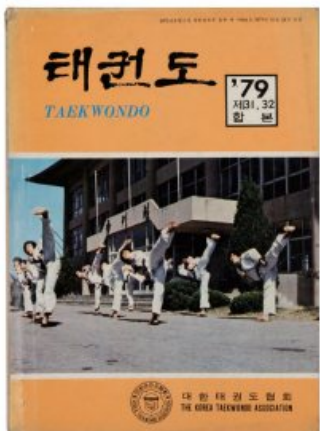
1979년 한국여성태권도연맹이 주관한 '제1회 전국여성태권도 개인선수권대회'의 안내 책자이다. 자료집 내부에는 대회를 이끌었던 한국여성태권도연맹의 임원 명단을 비롯하여, 부문별 유단자와 유급자들의 대진표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이 자료는 1970년대 말 여성 태권도가 조직적인 연맹 체계를 갖추고 본격적인 경기화 단계에 진입했음을 보여주는 실물 사료이다.



『태권도』 제31·32합본호 『제1회 전국여성태권도 개인선수권대회』

Taekwondo, Combined Issues 31 & 32
“The 1st National Women’s Taekwondo
Individual Championship”

1979 | 25.8×18.6



1979년 국기원에서 한국여성태권도연맹의 주최로 개최된 ‘제1회 전국여성태권도 개인선수권대회’에 관한 기록이다.

이 대회는 국기원 1단 이상의 단증을 보유하고 대한태권도협회 선수 등록을 마친 만 13세 이상의 여성 태권도인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총 8개 체급에 146명의 선수가 출전하여 열띤 경합을 벌였다.

[체급별 우승자]

- 핀급: 임신자 (상인천여중) • 플라이급: 최선자 (인천체고) • 밴텀급: 정용녀 (은광여고)
- 페더급: 남궁숙 (은광여고) • 라이트급: 김지연 (인천체고) • 웰터급: 이미향 (청산여상)
- 미들급: 김노마 (이태원도장) • 헤비급: 안선기 (청산여상)

여성태권도의 활성화 방안 세미나 자료집

Proceedings of the Seminar on Measures
to Revitalize Women’s Taekwondo

2002 | 26.8×1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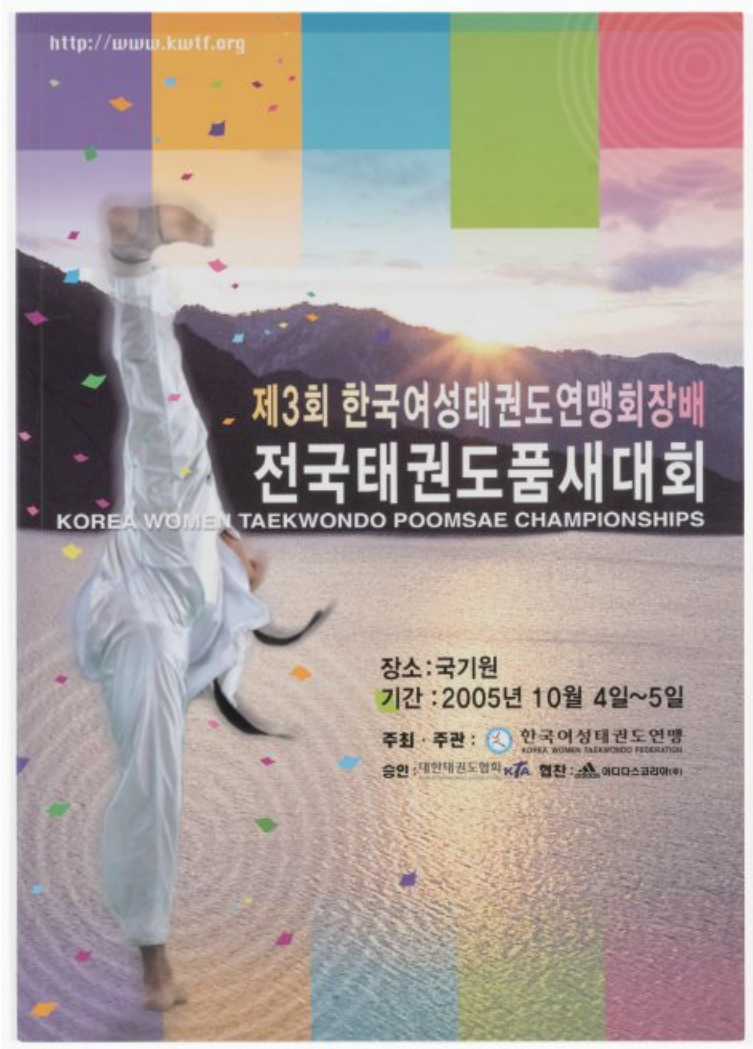
2001년 7월, 역량 있는 여성 태권도인들을 중심으로 ‘한국여성태권도연맹 창립준비위원회’가 결성되어 본격적인 단체 설립 작업에 착수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2002년 1월 한국여성태권도연맹은 대한태권도협회(KTA)의 정식 산하 단체로 승인받으며 제도권 내의 공식 기구로 출범하게 되었다.



제3회 한국여성태권도연맹회장배
전국태권도품새대회

The 3rd Korea Women Taekwondo Federation President's Cup National
Taekwondo Poomsae Competition

2005 | 29×21



2007 전국청소년
태권가족 페스티벌 메달

Gold·Silver·Bronze Medal, 2007 National
Youth Taekwondo Family Festival

2007 | 지름 6.7, 끈 42

2007년 9월 1일 KBS 88 제1체육관에서 열린 2007 전국청소년태권도 가족페스티벌은 태권도
진흥재단이 주최하고 한국여성태권도연맹이 주관하여 진행되었다.



국립태권도박물관 | 기획전시 |

태권낭자

Taekwondo Girls

3부 소녀, 태권낭자로 거듭나다

Part 3: From Girls to Taekwondo Athletes

1980년대는 국가 주도의 엘리트 체육 정책 속에서 여성 태권도가 빠르게 성장한 시기였다. 수련 인구가 증가하며 1980년대 초 약 2만 명 이상의 여성 유단자가 배출되었고, 국가대표 선발과 세계대회 여자부 신설, 대학 태권도학과 개설을 통해 엘리트 선수와 전문 인력 양성 기반이 마련되었다.

이처럼 양적 확대와 질적 전문화가 이루어졌지만, 여전히 ‘남성 중심 무도’라는 인식과 제도적 한계가 공존했다. 1984년 한국여성태권도연맹 해체라는 어려움 속에서도 여성 지도자들은 ‘태권낭자회’를 중심으로 자생적 조직을 구축했다. 이들은 지도자 수련, 심판 교육 등을 통해 여성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여성 태권도인의 권익 신장과 활동 기반 확대를 위해 노력하였다.

The 1980s were a decade of dramatic expansion for women’s taekwondo, driven by a state-led focus on elite sport. As overall participation grew, the number of female black belts surpassed 20,000 by the early years of the decade, and a solid system for training elite athletes and specialists took shape through national team selection, the introduction of women’s divisions at world championships, and the establishment of university taekwondo departments.

Yet, even as women’s taekwondo advanced in both scale and quality, taekwondo continued to be perceived as a male-centered martial art, and institutional barriers remained. After the KWTF was dissolved in 1984, female leaders responded by forming an independent body, Taekwon Nangjahoe (literally, the Women’s Taekwondo Association), through which they trained female instructors and referees, fostered women professionals, and worked to protect the rights and interests of female practitioners while broadening their opportunities to participate.

1 엘리트 여성 태권도 선수 육성

Development of Elite Female Taekwondo Athletes

1980년대는 여성 태권도가 엘리트 스포츠로 육성되며 국제 무대에 진출한 시기이다. '86 아시안게임과 '88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국가 주도의 체육 정책이 강화되었고, 대학 태권도부 창단과 태권도학과 개설을 통해 체계적인 선수 양성 기반이 마련되었다.

또한 1985년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에서 여자부가 신설되고, 1987년 세계여자태권도선수권대회가 개최되면서 여성 태권도는 국제 스포츠로 자리 잡았다. 1988년 서울올림픽 시범종목 채택 역시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비록 남성에 비해 대회 수가 적고, 열악한 대회 환경 속에서도 여성 선수들은 국내외 무대에서 경쟁력을 입증하였다.

It was also in the 1980s that women's taekwondo was fostered as an elite sport and stepped onto the international stage. During this period, in the wake of the 1986 Asian Games and the 1988 Seoul Olympics, state-led sports policies were strengthened, and a systematic framework for athlete development was created through the formation of university taekwondo teams and the establishment of taekwondo departments. With introduction of a women's division at the 1985 World Taekwondo Championships and hosting of the World Women's Taekwondo Championships in 1987, women's taekwondo secured its place as an international sport. Its selection as a demonstration sport at the 1988 Seoul Olympics also proved to be a major turning point.

Even though there were fewer competitive opportunities for women than for men and competition environments were often unfavorable, female athletes proved their abilities through strong performances in both domestic and international arena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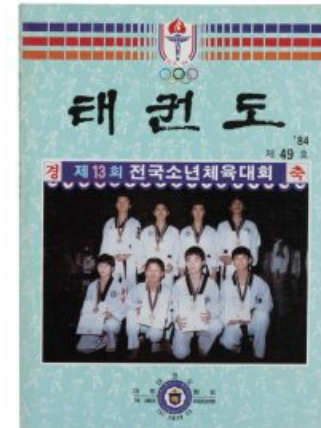


1989년 여자 국가대표 선수 선발 대회 체급별 수상자 (1989년)

「태권도」 제49호 『성신여자대학교 태권도부』

Taekwondo, Issue 49
“Sungshin Women's University Taekwondo Team”

1984 | 25.7×18.7



1984년 성신여자대학교 태권도부가 창설되었다. 성신여자대학교는 1985년까지 당시 6개 체급이었던 선수층을 보강하여 8개 전 체급을 고루 갖추 계획임을 밝혔다. 이를 통해 여자대학교 중 태권도 명문으로 도약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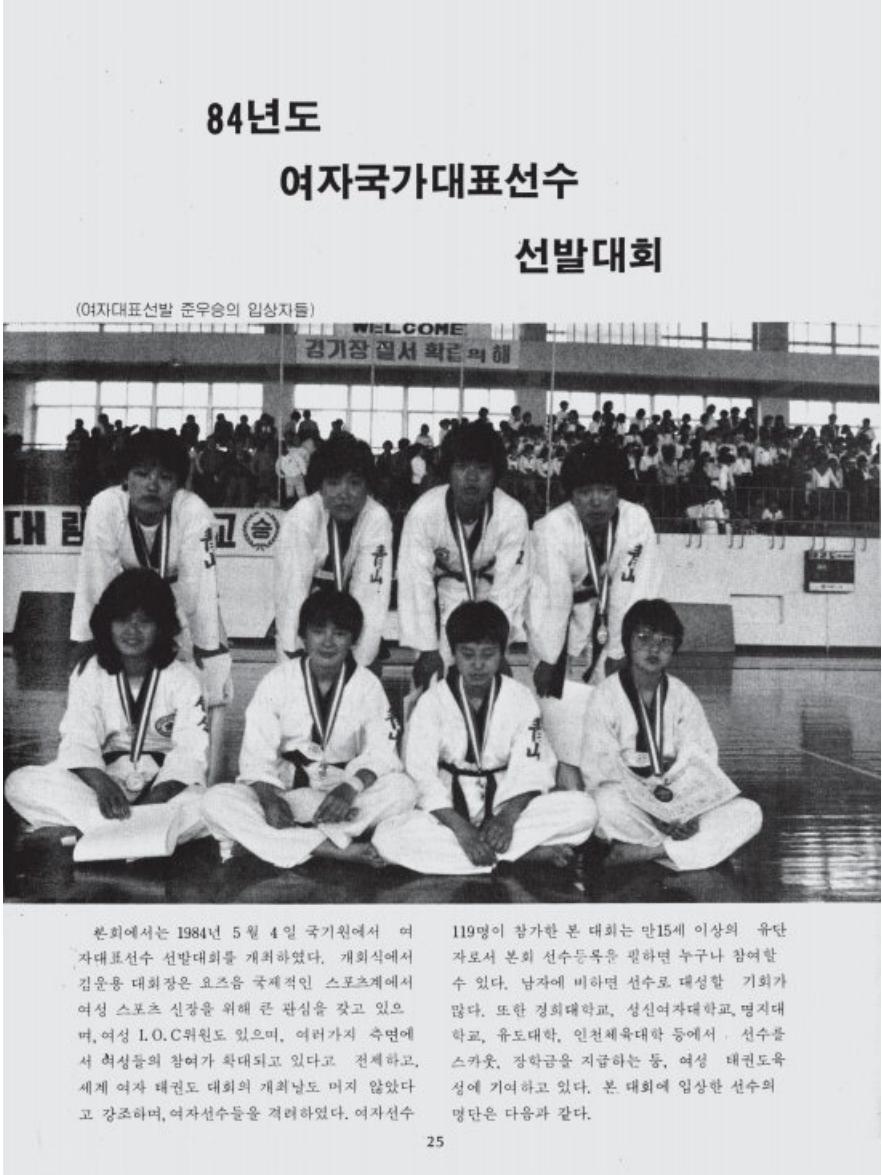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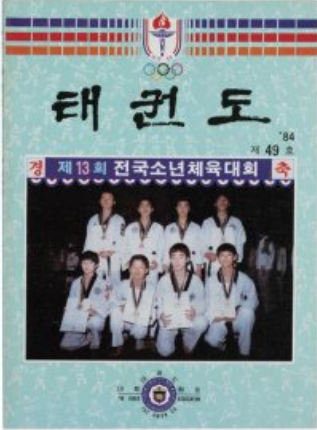


『태권도』 제49호
『84년도 여자 국가대표 선수
선발 대회』

Taekwondo, Issue 49
“1984 Women’s National Team Selection
Tournament”
1984 | 25.7×18.7

1984년 5월, 국기원에서 여자 국가대표 선수 선발 대회가 개최되었다. 개회식에서 김운용 대회장은 세계 스포츠계의 여성 스포츠 진흥 추세를 언급하며, 세계 여자 태권도 대회 개최가 머지않았음을 강조하고 선수들을 격려했다.

- [체급별 수상자]
- 핀급: 배은정 (청산여자고) • 플라이급: 이영 (시온고) • 밴텀급: 오명화 (경희대)
 - 페더급: 임신자 (경희대) • 라이트급: 김소영 (청산여자상업고) • 미들급: 전오순 (경희대)
 - 헤비급: 장윤정 (명지대)



본회에서는 1984년 5월 4일 국기원에서 여자대표선수 선발대회를 개최하였다. 개회식에서 김운용 대회장은 요즈음 국제적인 스포츠계에서 여성 스포츠 신장을 위해 큰 관심을 갖고 있으며, 여성 I.O.C위원도 있으며, 여러가지 측면에서 여성들의 참여가 확대되고 있다고 전제하고, 세계 여자 태권도 대회의 개최년도 머지 않았다라고 강조하며, 여자선수들을 격려했다. 여자선수

119명이 참가한 본 대회는 만15세 이상의 유단자로서 본회 선수등록을 필하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남자에 비하면 선수로 대성할 기회가 많다. 또한 경희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명지대학교, 유도대학, 인천체육대학 등에서 선수를 스카웃,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여성 태권도육성에 기여하고 있다. 본 대회에 입상한 선수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태권도』 제53호
『85년 여자 국가대표
선발 대회』

Taekwondo, Issue 53
“1985 Women’s National Team Selection
Tournament”
1985 | 25.7×18.7



총 116명이 참가한 이번 여자 국가대표 선발 대회에서 체급별 우승을 차지한 8명의 선수에게 제7회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참가 자격이 부여되었다.

- [체급별 수상자]
- 판급: 신숙 (청산여자상업고) • 플라이급: 김정임 (청산여자상업고)
 - 밴텀급: 임신자 (경희대) • 페더급: 김소영 (성신여대) • 라이트급: 김지숙 (경희대)
 - 웰터급: 전오순 (경희대) • 미들급: 김현희 (청주사범대)



『태권도』 제56호
『1986년도 한국 여자 대표
선수 선발 대회』

Taekwondo, Issue 56
“1986 Women’s National Team Selection
Tournament”

1986 | 25.7×18.7



1986년 2월, 태권도 중주국을 대표할 여자 대표 선수 선발대회가 개최되었다. 8체급에 134명의 선수들이 참가했다.

이번 대회에서 각 체급 1위자는 제7회 아시아태권도선수권대회 참가 자격이 부여되었다.

[체급별 수상자]

- 핀급: 신숙 (청산여상) • 플라이급: 오명화 (경희대) • 밴텀급: 박선영 (청상여상)
- 페더급: 이은영 (경희대) • 라이트급: 김지숙 (경희대) • 웰터급: 전오순 (경희대)
- 미들급: 김현희 (경희대) • 헤비급: 장윤정 (명지대)



’86 년도
한국 여자대표선수
선발대회



『태권도』 제56호
『대망의 대표선수가
되기까지』

Taekwondo, Issue 56
“The Long Road to Becoming a National
Team Member”

1986 | 25.7×18.7



연구논문

한국 여자 페더급 참패한 이은영 아버지가 쓴



14년 전 5살의 어린 아이가 태권도를 배우기 시작하여 너무나도 긴 세월을 대표 선수를 꿈꿔야 할 때가 되어야 할지 모르겠다. 태권도 부가 있는 학교였기 때문에 동네의 도장에서 방에 연습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하여 매년 금요일 1시간 의무적인 다른지 함에는 출전시키지 않고 꾸준히 운동하면서 학교 광복회 원년회도록 했던 것이다. 그 결과 여자부단의 시합에서 1등, 2등, 3등 시합에는 각각 금메달 1매씩을 획득하였고 83년도에 전평 여고에 편입하게 되었다. 그리고 1학년 때에는 동네 도장에서 연습으로는 중간 중 정도의 운동으로 시합에 나갈 형편이 되지 못했던 것이 안타까웠다. 그러다가 84년도 2학년이 되면서 南山女校에 입학하여 운동할 수 있게 된다는 신세가 되었으니 안타깝기 그지 없었다. 그러나 참전하고 고장 선생님과 지도자 선생님의 깊은 배려가 없었더라면 어떻게 강도높은 훈련을 하였겠는가 감수할 것이다. 그 덕분에 2학년에 전학해서는 불행할 이나니 몇을 획득할 수 있었던 것이다.



고 3 때에는 청산 여고가 태권도에서 시외로 이전하는 바람에 은영이가 훈련을 받을 장소를 잃게 되어 고민하던 차에 여동 국민학교 출신들이 많이 전학하는 南山女校 태권도부에서 지도자 선생님의 깊은 배려로 다시 훈련을 시작할 수 있었으니 다행 중 다행이었다. 그 해 85년 1월 태권도 선수 선발대회는 어떻게 은영이가 다시 시합에 자신감을 갖게 된 것은 가장 값 있는 일이었다고 본다. 그 후 체육담당 선생님의 배려로 전평여고 고교에 처음으로 오면 수업을 하고 오후에는 운동하면 전평할 수 있는 특혜를 받고하는 중대한 연습을 하기 시작하여 또다시 금메달 2개를 추가할 수 있었다. 은영이가 자라면서 진학 문제를 고민하게 되었을 때 체육 담당의 김중옥 선생님의 지도로 태권도의 명문 경희대 제대 태권도 학과에 진학하게 될 것으로 그동안 훈련 받을 장소가 있어 여기저기 해보고 돌아다니던 시골은 땅이여의 신세가 되어 피게 된 것은 너무나 다행스러웠고 김선생님께 대한 감사함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였다. 그 해부터 동계훈련을 조직적으로 받게 되었

고 86년 2월 24일 대망의 한국 여자 대표 선발 대회에 출전하여 단번에 페더급 챔피언이 됨으로써 14년 만에 대표 선수가 된 것이다. 일고도 먼 대장장이 아니겠는가. 꾸준한 노력의 열매로 기어코 대표 선수가 되었으니 이것은 이제부터 시작의 발걸음이지 모는 것이 성취된 것은 아니라고 본다. 앞으로 좀 더 강도높은 훈련을 받고 어느 국제 대회에 참가하더라도 세계의 여러 선수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여 국위를 선양할 수 있고 영원히 좋은 학생으로 남길 수 있는 사람들 채우기 우리 건국의 책임이다. 태권도부가 없는 학교생활을 하면서 최후로 피로했던 시합일에서의 그 6년 간의 세월은 영원히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정상적인 학교 생활을 하면서 선수생활을 한 것이 고맙았던 것만에는 틀림이 없으나 앞으로 전개될 대학 생활에 큰 도움이 되리라 믿어지지 않는다. 도움지기 工夫하는 전수가 되어주길 바란다. 함으로 그동안 은영이의 선수생활에 많은 도움을 주신 지도자 선생님들께 지면을 통하여 것은 감사 말씀을 드리는 바에 이르므로 제후 지도 선수를 바라지 않는다.

『태권도』 제56호
『박선영 선수가 대표 선수가
되기까지』

Taekwondo, Issue 56
“Park Sun-young’s Journey to Becoming a
National Team Member”

1986 | 25.7×18.7



1984년과 1985년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가장 주목받는 유망주로 평가받은 그는, 근력과 체력 향상에 힘쓰며 “목표는 임신자 선수”라고 밝히며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1986년도 여자 국가대표선수 기념촬영 (1986년) (앞줄 오른쪽) 김지숙, 전오순, 김현희, 장윤정 (뒷줄 오른쪽) 신숙, 오명화, 박선영, 이은영



헤비급 장윤정 선수의 발차기 (198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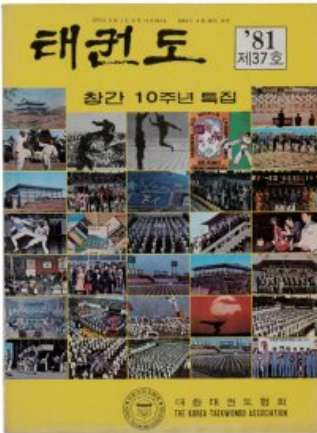


페더급 이은영 선수 주먹 공격 (1986년)

『태권도』 제37호 『81년도 전국 종별 신인 선수권 대회』

Taekwondo, Issue 37
“The 1981 National Rookie Championship
by Category”

1981 | 25.7×18.7



1981년 4월에 개최된 전국 종별 신인 선수권 대회이다.

이 대회에서는 처음으로 여자부가 신설되어 여성 태권도 선수들이 공식적으로 기량을 겨룰 수 있는 무대가 마련되었다.

『여자부 체급별 수상자』

- 핀급: 이은영 (창덕여중) • 플라이급: 장희인 (동명여고) • 밴텀급: 박순경 (은광여고)
- 페더급: 박현용 (인천체고) • 라이트급: 정영신 (각석도장) • 웰터급: 이광옥 (중앙대)
- 미들급: 문우영 (인천체대) • 헤비급: 현완숙 (인천체대)

『태권도』 제51호 『제7회 회장기쟁탈 전국대학대항 태권도대회』

Taekwondo, Issue 51
“The 7th National University Taekwondo
Championship for the President’s Cup”

1984 | 25.7×18.7



1984년에 개최된 제7회 회장기쟁탈 전국대학대항 태권도대회의 여자부 입상자 명단이다. 당시 대학부 여자 태권도 선수들의 활약상을 확인할 수 있다.

『여자부 체급별 수상자』

- 플라이급: 도재선 (성신여대) • 밴텀급: 오명화 (경희여대) • 페더급: 임신자 (경희대)
- 라이트급: 최선자 (경희대) • 웰터급: 전오순 (경희대) • 미들급: 정영숙 (성신여대)
- 헤비급: 손지희 (성신여대)

「태권도」 제57호 『1986년도 여자태권도 선수권대회』

Taekwondo, Issue 57
“The 1986 Women’s Taekwondo
Championship”

1986 | 25.7×18.7

1986년 5월, 여자 태권도 경기의 국제화 추세에 대비하고 국내 여자 태권도 활성화를 위해 새롭게 창설된 ‘전국여자 개인선수권대회’가 개최되었다.

김운용 회장은 개회식에서 88 서울 올림픽에 남녀 태권도가 모두 시범 종목으로 채택되어 남자 16개국, 여자 8개국이 출전하게 되었다는 새로운 의의를 밝혔다.

[체급별 수상자]

- 판급: 신숙 (청산여상) • 플라이급: 배은정 (청산여상) • 밴텀급: 박동선 (인천체고)
- 페더급: 김소영 (성신여대) • 라이트급: 안경숙 (인천체고) • 웰터급: 양인덕 (문성여상)
- 미들급: 이진희 (인천체고) • 헤비급: 정완숙 (성신여대)

제1회 국제 친선 여자태권도 대회 페넌트

Pennant from the 1st International
Women’s Taekwondo Friendship
Tournament

1982 | 24.5×16.3

1982년 7월, 한국 대표 여자 태권도 선수 선발전에서 입상한 1위 및 2위(A·B조) 선수들이 대만(자유중국) 대표 선수 8명과 친선 대회를 가졌다.

[선수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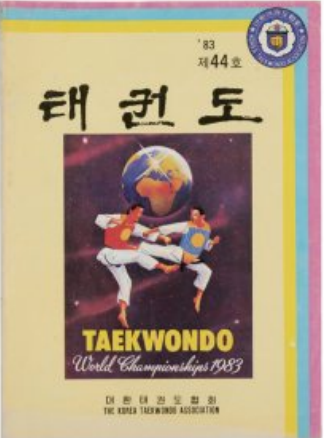
- 판급: 박선영 • 플라이급: 장희인 • 밴텀급: 임신자 • 페더급: 박순경
- 라이트급: 박필순 • 웰터급: 최경 • 미들급: 전오순 • 헤비급: 장윤정



『태권도』 제44호
『한·중 친선 여자 태권도
대회 마치고』

Taekwondo, Issue 44
“Reflections on Conclusion of the Korea-
China Friendship Women’s Taekwondo
Tournament”

1983 | 25.7×18.7



1982년 7월 한국에서 개최된 제1회 국제친선 여자태권도대회에 이어, 1983년 1월에는 대만에서 한·중 친선 여자태권도대회가 개최되었다. 당시 파견된 임원 및 선수 명단은 다음과 같다.

- [임원진]
- 단장: 방윤숙 • 감독: 서정국 • 코치: 김영인 • 트레이너: 김안자
- [선수단]
- 편급: 김선영 (인천여중) • 플라이급: 오명화 (인천여상) • 밴텀급: 임신자 (인천체고)
 - 페더급: 김소영 (청산여상) • 라이트급: 박필순 (유도대학) • 웰터급: 최경 (대전체고)
 - 미들급: 전오순 (청산여상) • 헤비급: 장윤정 (경북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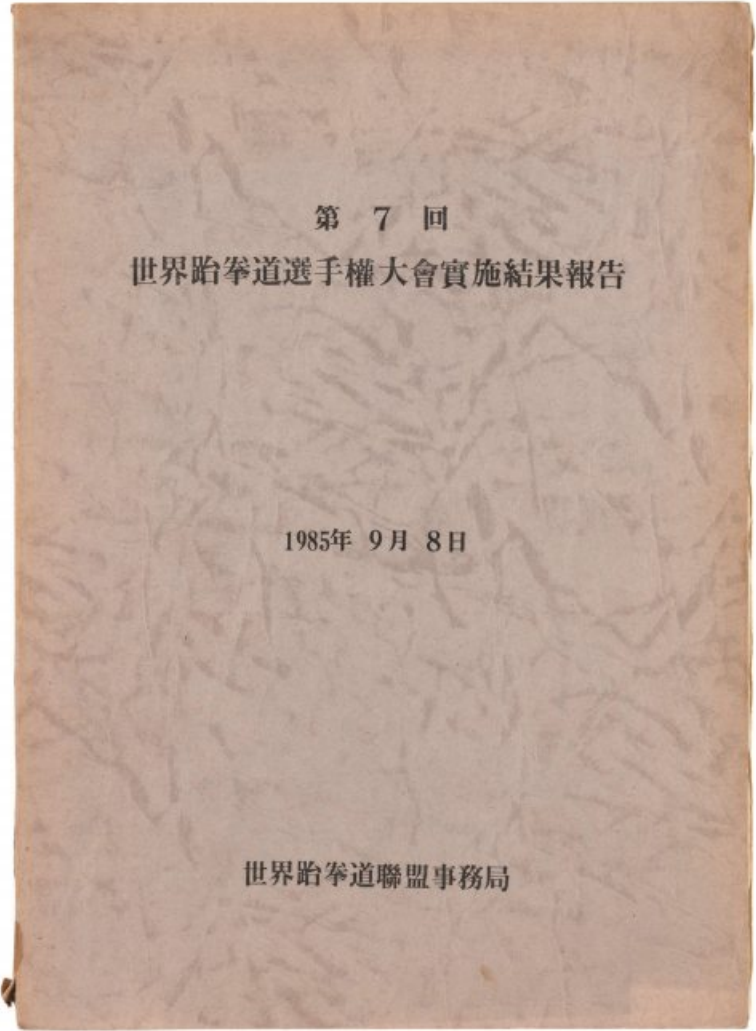
제7회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실시결과보고서

Report on Results of the 7th World
Taekwondo Championships

1985 | 27×20

1985년 개최된 제7회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에서 처음으로 여자부가 신설되었다. 이번 대회 여
자부에는 총 10개국이 참가하여 기량을 겨루었다.

- [체급별 참가자]
- 편급: 신숙 (금메달) • 플라이급: 김정임 (동메달) • 밴텀급: 임신자 (금메달)
 - 페더급: 김소영 (동메달) • 라이트급: 김지숙 (금메달) • 웰터급: 전오순
 - 미들급: 김현희 (금메달) • 헤비급: 장윤정 (동메달)



제7회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보고서

Report on the 7th World Taekwondo Championships

1985 | 31×24



종합 우승한 한국의 남·여 태권도 대표팀 (1985년)



여자 헤비급 태권도 경기 (1985년)



밴텀급 우승자 임신자 선수 (1985년)



헤비급 동메달 장윤정 선수 (1985년)



라이트급 우승자 김지숙 선수 (1985년)

「태권도」 제63호
『제1회 세계여자태권도
선수권대회』

Taekwondo, Issue 63
“The 1st World Women’s Taekwondo
Championships”

1987 | 25.7×18.6



1987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제8회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와 함께 제1회 세계여자태권도선수권대회가 개최되었다.
여자 국가대표 선수단은 이 대회에서 금메달 3개, 은메달 2개, 동메달 1개를 획득하며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

[체급별 참가자]

- 판급: 장이숙 (금메달) • 플라이급: 이영 (은메달) • 밴텀급: 배은정 • 페더급: 김소영 (금메달)
- 라이트급: 이은영 (금메달) • 웰터급: 김지숙 (은메달) • 미들급: 김현희
- 헤비급: 장윤정 (동메달)



사상처음으로 개최된 제 1회 세계 여자 선수권대회에서 종합우승을 차지해 종주국의 위용을 떨친 한국 여자대표 선수단



제8회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및 제1회 세계여자태권도선수권대회 남·여 대표팀 기념촬영 (198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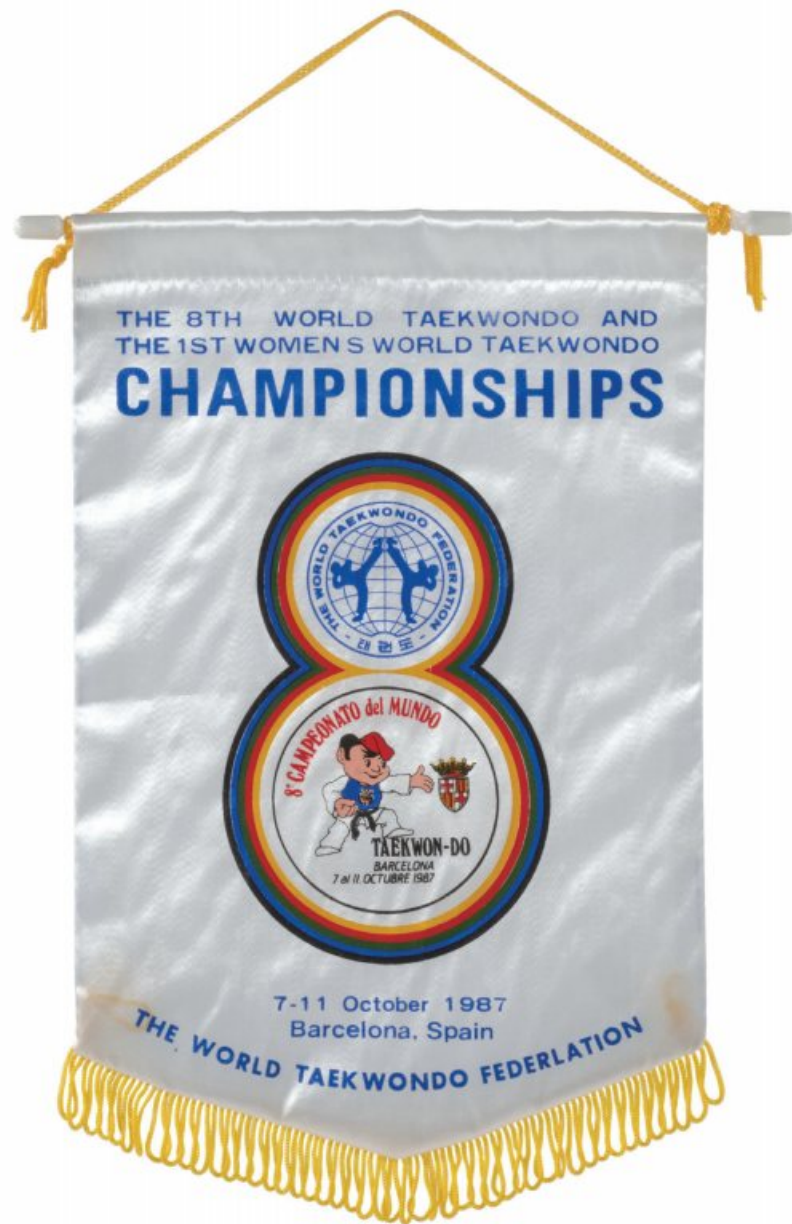


제1회 세계여자태권도선수권대회 페더급 우승자 김소영 선수 (1979년)

제8회 세계태권도대회 및
제1회 세계여자태권도선수권대회 페넌트

Pennant for the 8th World Taekwondo Championships and the 1st World Women's Taekwondo Championships

1987 | 31×24



제8회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및
제1회 세계여자태권도선수권대회 국제심판 임명장

Certificate of Appointment of Seo Myeong-su as International Referee for the 8th World Taekwondo Championships and the 1st World Women's Taekwondo Championships

1987 | 26.4×37.5



제9회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및 제2회 세계여자태권도
선수권대회 선수단 안내서

Team Handbook for the 9th World
Taekwondo Championships and the
2nd World Women's Taekwondo
Championships

1989 | 19.3×13.4

서울에서 개최된 제2회 세계여자태권도선수권대회에는 전 세계 34개국에서 136명의 선수가
참가하였다.
대한민국은 금메달 5개, 동메달 2개를 획득하며 종합 우승을 달성하였다.

[체급별 참가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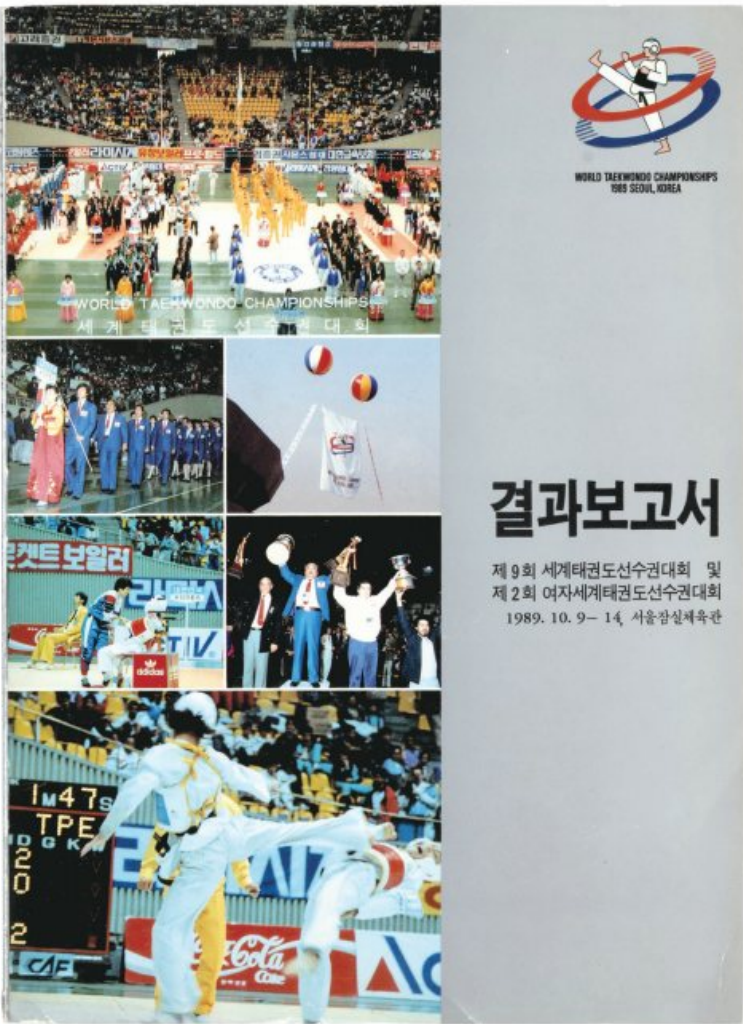
- 핀급: 김지향 (동메달) • 플라이급: 원선진 (금메달) • 밴텀급: 정남숙 (금메달)
- 페더급: 김소영 (금메달) • 라이트급: 이은영 (금메달) • 웰터급: 김지숙 (동메달)
- 미들급: 김현희 • 헤비급: 정완숙 (금메달)



제9회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및
제2회 세계여자태권도선수권대회 결과보고서

Results Report for the 9th World Taekwondo Championships and the 2nd
World Women's Taekwondo Championships

1989 | 25×18.2



제9회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및
제2회 세계여자태권도선수권대회 한국대표선수단
페넌트

Pennant of the Korean National Team for the 9th World Taekwondo Championships and the 2nd World Women's Taekwondo Championships

1989 | 42×29



제2회 세계여자태권도
선수권대회 플라이급 1위
원선진 상장

Certificate for Won Seon-jin, 1st Place in the Flyweight Division at the 2nd World Women's Taekwondo Championships

1989 | 27.8×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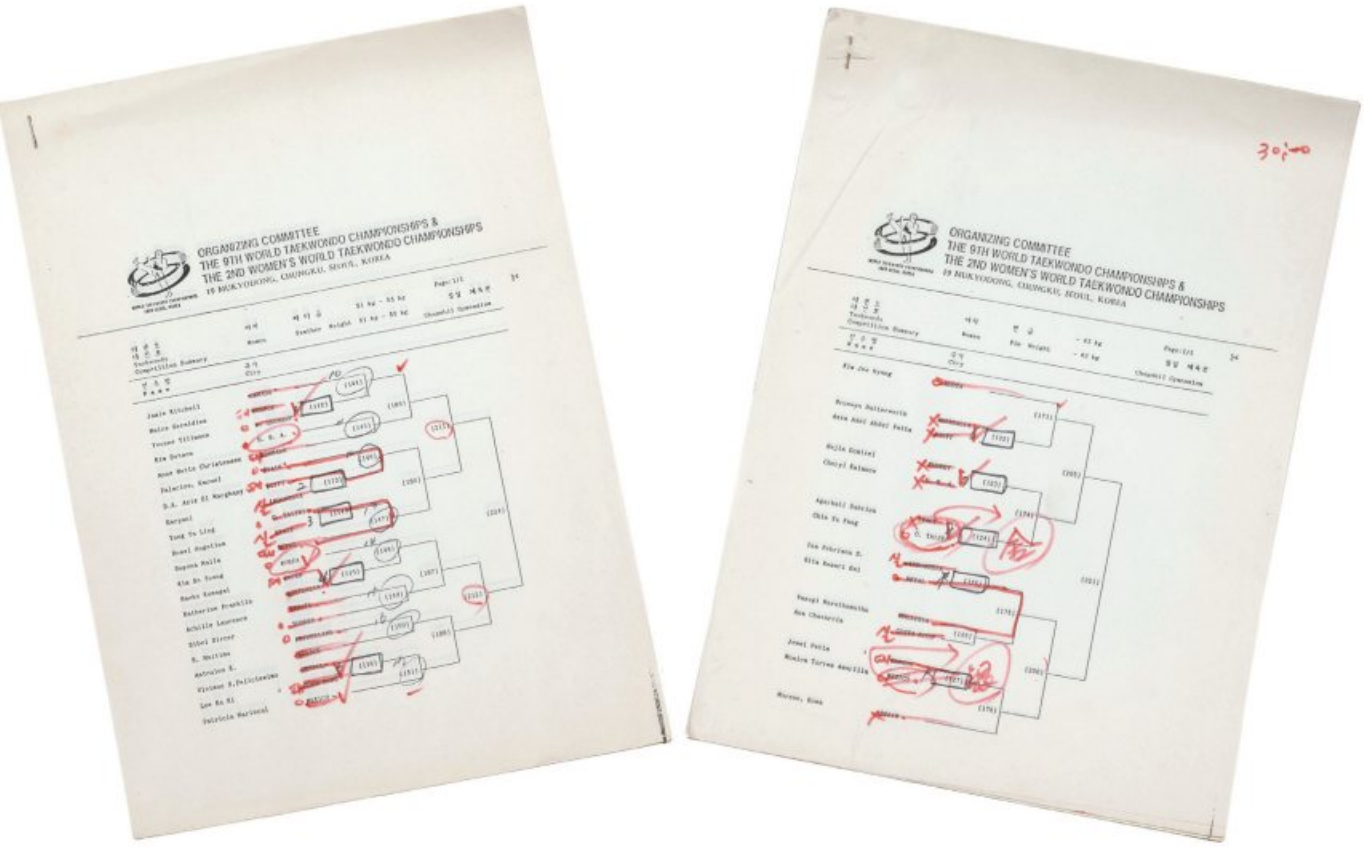
1989년 서울에서 개최된 제2회 세계여자태권도선수권대회에 출전하여 플라이급 1위에 오른 원선진 선수의 상장이다.



제9회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및
제2회 세계여자태권도선수권대회 여자 핀급,
패더급 대진표

Women's Finweight-Featherweight Bracket for the 9th World Taekwondo Championships and the 2nd World Women's Taekwondo Championships

1989 | 29.7×21



제9회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및
제2회 세계여자태권도선수권대회 참가신청 현황

Registration List for the 9th World Taekwondo Championships and the 2nd World Women's Taekwondo Championships

1989 | 29.7×21

한국태권도
국기원

제9회 세계태권도 선수권 대회 및
제2회 여자 세계태권도 선수권 대회
참가신청 현황

1989. . 연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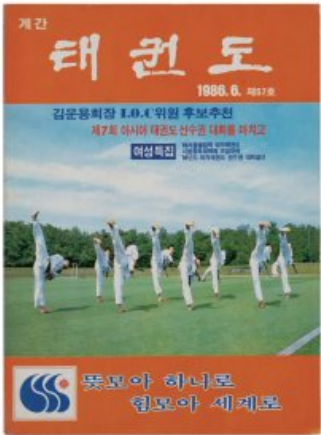
순번	국	명	개	남		여		비고
				임원	선수	임원	선수	
1	프랑스	주	22	4	8	4	6	
2	오스트리아		12	4	5		3	
3	핀란드		15	3	8		4	
4	일본		18	4	7	4	3	
5	안도라		5	2	3			
6	인도		12	3	5		4	
7	볼리비아		13	5	8			
8	마루아 뉴기니아		2	1	1			
9	베트남		12	3	5		4	
10	자마이카		8	3	5			
11	레소토		12	4	8			
12	이탈리아		19	5	8	1	5	
13	멕시코		8	4	4			
14	네팔		13	5	6		2	
15	프랑스		19	5	8	2	4	
16	네덜란드		16	4	6		6	
17	필리핀		14	2	8		4	
18	스위스		5	2	3			
19	한국		23	4	8	3	8	
20	브라질		21	5	8		8	

2.8 131 280 10 139

『태권도』 제57호 『제7회 아시아태권도 선수권대회를 마치고』

Taekwondo, Issue 57
“Reflections on the 7th Asian Taekwondo
Championships”

1986 | 25.7×18.7



1986년 4월 호주에서 개최된 제7회 아시아태권도선수권대회는 여자 대표팀이 처음으로 참가한 역사적인 대회이다.

대한민국 여자 선수단은 이번 대회에서 국제 무대의 실전 경험을 쌓으며 우수한 기량을 증명하였다.

[체급별 참가자]

- 판급: 신숙 (은메달) • 플라이급: 오명화 (금메달) • 밴텀급: 박선영 (동메달) • 페더급: 이은영
- 라이트급: 김지숙 (동메달) • 웰터급: 전오순 (금메달) • 미들급: 김현희 (은메달)
- 헤비급: 장윤정 (금메달)

『태권도』 제65호 『제8회 아시아태권도 선수권대회』

Taekwondo, Issue 65
“The 8th Asian Taekwondo Championships”

1988 | 25.7×18.7



1988년 3월 네팔 카트만두에서 제8회 아시아태권도선수권대회가 개최되었다. 대한민국 여자 대표팀은 대다수 체급에서 정상에 오르며 아시아 무대에서 압도적인 실력을 과시하였다.

[체급별 참가자]

- 판급: 이화진 (금메달) • 플라이급: 추난률 • 밴텀급: 박선영 (금메달) • 페더급: 김소영 (금메달)
- 라이트급: 이은영 (금메달) • 웰터급: 김지숙 (금메달) • 미들급: 김현희 (금메달)
- 헤비급: 장윤정 (금메달)

태권도경기



제7회 아시아태권도 선수권 대회를 마치고

한국여자대표팀 코치 김 영 인

여자 대표팀은 사상 처음으로 원정 경기를 갖게 되었다.
여자 선수로서 얼마나 기다리던 기회였던가. 그것도 제7회 아시아 선수권 대회였으니.
이제는 국내에서도 자랑스러운 단체를 벗어난. 남자 선수들과 같은 여선수에 인정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대표 선수단이라는 자부심에 앞서 끈실스럽고 일리스러움 버릇을 보아야 했다. 말로만 듣던 외국 여자 선수들에 대한 호기심과 중국, 국인 한국 여자 선수들을 그들과 어떤 차이로 맞서야 할까 하는 의문점을 갖고 우리는 진로관람을 출발하였다.

12시간의 전 비행 끝에 대표 주국인 호주의 타윈시에 도착했을 때 우리를 제일 먼저 놀라게 한 것은 살인적인 더위였다.
대표 선수로 참가한 나라의 선수들은 특정한 조건 속에서 4 일간의 경기에 임하였으니, 각각의 국가의 명예를 위하여 열심히 뛰었다. 우리 여자 대표 선수단은 예상했던 것보다는 저조한 실력을 보여 대표로 호치로시 실양장과 수직기를 밟아야만 했다. 시험기간 중 가장 열심한 것은 선수들의 마음있는 마음의 자세였으며 또한 경기에 임하는 끈기적인 자세였다. 여우들은 마음의 자세만 좋으면 어떤 결과를 얻는 것인데 이러한 끈기적인 자세와 신념을 갖게하기 위해서는 평소의 철저 훈련과 체중 조절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국가대표 선발전만 끝나면 연습과 체중 조절에 소홀해지는 습관은 국가의 명예나 개인적 명예 그리고 선수들의 체면을 손상시키는 일과 경쟁력이 때문이다. 여학생



◆반 급 / 신숙 선수 ◆플라이급 / 오명화선수
◆반 톱 급 / 박선영선수 ◆헤 더 급 / 이은영선수



◆라이트급 / 김지숙선수 ◆웰 더 급 / 전오순선수
◆미 톱 급 / 김현희선수 ◆헤 비 급 / 장윤정선수

고한 신념과 승부욕이 가득 차 있어야 하며 평소 꾸준한 연습한 자기의 기량을 마음껏 발휘 할 수 있도록 인명검이 있어야 한다. 여자 선수단이 가져온 결과는 누구의 책임도 아닌 우리 모두의 책임이었으니 따라서 일리에서 인도되는 각 학교의 선생님들과 선수들은 필요에 더욱 더 세심한 지도를 해야 할 것이다. 우리 여자 대표선수들의 최강을 성취한 것이다. 우리 여자 대표선수들의 최강을 성취한 것이다. 우리 여자 대표선수들의 최강을 성취한 것이다.

고의 위기 회피하는 국내에서의 비출입은 경기를 많이 가져와 화났고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는 남자 선수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기술과 여성에 맞는 새로운 기술 개발에 노력해야 한다. 관공의 관공을 집중시킬 수 있는 과정을 통하여 비관 공적과 난이도가 높은 기술개발을 통하여 통일되고, 재미 있는 경기를 개발해 내어야 하였다. 중국에게나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대표 선수단 전체의 사상이 책임의식과 사명감이 결여되어서는 안 되었다. 한 번 주어진 기회를 놓쳐서도 안되며 주어진 기회를 최대한 활용할 줄 아는 선수가 되어 주어진다면 하고 바라는 마음이다. 주어진 기회를 무의하게 버린다는 것은 그 누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일이며, 오직 자기 자신만이 책임을 하리라 생각한다. 또 다시 이러한 통치 못할 결과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며 새로운 작으로 싸움에 시작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가용하다면 대표 선발은 1~2차와 최종 선발전을 거쳐 2회차이었던 하는 바람이다. 강대국에 있는 경쟁심도 유발할 수 있으며 타라시 경기의 향상과 새로운 제인기를 개발에 큰 도움이 안 되기 때문이다. 또한 선수들에 대한 무지와 더욱 많은 시간 할애가 절실하게 필요하여 이것만이 여자 선수들의 기량을 높이기 위한 조건이라 생각한다.

그 동안 많은 격려 주시고 도와주신 원호출판장님, 김경자 감독님, 첩히 일민 이이문씨 이 지면을 통하여 감사드리며 앞으로는 여성 태권도 발전에 많은 지도 전달 있기를 기대해 본다.



식당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이화진선수(가운데)와 김지숙선수(가운데)를 축하하는 모습



네팔에 출전한 박선영선수는 한국에 금메달을 안겨주었다.

고 올라가서 참관객 만경관을 뚫은듯 승리를 거둬라게. 관공을 축하하고 참가를 선수를 누르고 금메달을 차지하였다.
라이트급에서 이은영선수는 말레이시아, 태국, 호주선수를 차례로 누르고 결승전에 진출했다. 결승전에서 신장이 좋은 태국의 Chen Jun Feng 선수를 맞아 신장의 별개로 공적에 패단당하는 가운데 12회전에서 우세운임을 빼앗기는 고전 끝에 3회에 코치추진으로 일차기에 의한 진지기를 시도, 앞지기는 하였으나 뒷지기는 철저한 몸통공적으로 득점을 얻으며 역전승을 거두었다.

밴텀급에서 장윤정선수는 1차전에서 태국의 Manu Tuladhar 선수를 일방적인 공격으로 득점을 올리며 승리를 거두었고 결승에서 태국의 Lee Shue Lan 선수를 물리쳐 승리를 거두었다.
25일의 마지막날 경기는 판급과 미들급 경기가 치루어졌다. 권급의 이화진선수는 국제경기 경험이 전혀없었다. 신장면에서 타국에 패배할까 두려워 코칭스텝에서는 경기를 많이 했다. 그러나 이화진선수는 12차에 걸친 거품승 승리에 이끌려 결승에 진출, 태국의 Chin Yu Fang 선수를 맞아 계속해 타라시기를 정글사기

● 우리나라가 주목할 외국여자선수로는 태국의 페더급 2위를 차지한 Chen Yuan Feng 선수와 플라이급 우승을 차지한 태국의 Pai Yun Yiao 선수, 미들급 경기중 예선에서 김현희 선수에게 원정패 당하기는 했으나 체력이 강하고 기술이 다양한 호주의 Dennis Angela Parmley 선수 등으로 앞으로 이들 선수들에 대한 정보 및 경기를 분석하여 참가 국제대회에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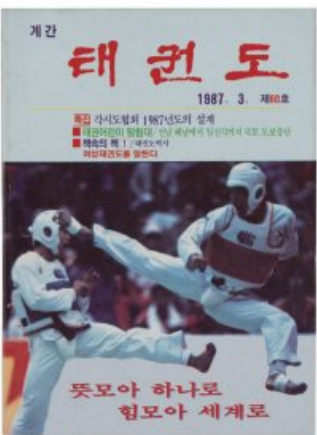
올라가 태국의 강호 Wang Chün Yu 선수를 맞아 다양한 기술과 화이팅 넘친 공격력을 바탕으로 관공을 제트시키는 가운데 금메달을 획득했다.
이렇게 해서 한국여자대표는 플라이급을 제외한 7체급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면서 종합우승의 영광을 차지했다.
한편 이번 대회의 전반적인 흐름은 외국선수들이 신장과 체력을 앞세운 파란만장한 공적을 펼쳐 우리나라 선수들이 상당한 고전을 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가 주목할 외국여자선수로는 태국의 페더급 2위를 차지한 Chen Yuan Feng 선수와 플라이급 우승을 차지한 태국의 Pai Yun Yiao 선수, 미들급 경기중 예선에서 김현희 선수에게 원정패당하기는 했으나 체력이 강하고 기술이 다양한 호주의 Dennis Angela Parmley 선수 등으로 앞으로 이들 선수들에 대한 정보 및 경기력을 분석하여 참가 국제대회에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선수들이 보강해야 할 점으로는 신장의 옆세로 극복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 개발이 급선무이며 이를 위해서는 주전 안권희주의 단타보다는 관공과 승리에 더 집중할 수 있는 코치 장리지 언집되는 공격법을 구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종합전적
1위 한국(177)
2위 태국(155)
3위 호주(151)
4위 태국(151)
5위 말레이시아(151)
6위 싱가포르(151)

입상자 명단		성명	국적
판급	1	이화진	한국
	2	Chen Yu Fang	태국
	3	Bonny Rutherford	호주
	3	Shira Khadga	태국
	1	Pai Yun Yae	태국
플라이급	1	Wang Liang Meng	중국
	2	Chen Yuan Feng	태국
	3	Shira Bai	태국
	1	Chen Yuan Feng	태국
	2	Chen Yuan Feng	태국
페더급	1	Chen Yuan Feng	태국
	2	Chen Yuan Feng	태국
	3	Chen Yuan Feng	태국
	1	Chen Yuan Feng	태국
	2	Chen Yuan Feng	태국
라이트급	1	Chen Yuan Feng	태국
	2	Chen Yuan Feng	태국
	3	Chen Yuan Feng	태국
	1	Chen Yuan Feng	태국
	2	Chen Yuan Feng	태국
웰터급	1	Chen Yuan Feng	태국
	2	Chen Yuan Feng	태국
	3	Chen Yuan Feng	태국
	1	Chen Yuan Feng	태국
	2	Chen Yuan Feng	태국
미들급	1	Chen Yuan Feng	태국
	2	Chen Yuan Feng	태국
	3	Chen Yuan Feng	태국
	1	Chen Yuan Feng	태국
	2	Chen Yuan Feng	태국
헤비급	1	Chen Yuan Feng	태국
	2	Chen Yuan Feng	태국
	3	Chen Yuan Feng	태국
	1	Chen Yuan Feng	태국
	2	Chen Yuan Feng	태국

「태권도」 제60호
『제1회 세계대학선수권대회』

Taekwondo, Issue 60
“The 1st World University Championships”
1987 | 25.7×18.7



1986년 11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개최된 제1회 세계대학선수권대회에 참가한 남녀 선수단은 압도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남자부는 금메달 5개, 은메달 1개, 동메달 2개를 획득하였으며, 여자부 또한 금메달 5개, 은메달 2개, 동메달 1개를 획득하며 중주국의 위상을 높였다.

- [체급별 수상자]
- 핀급: 도재선 (동메달) • 플라이급: 오명화 (금메달) • 밴텀급: 임신자 (금메달)
 - 페더급: 이은영 (은메달) • 라이트급: 김지숙 (금메달) • 웰터급: 전오순 (은메달)
 - 미들급: 김현희 (금메달) • 헤비급: 장윤정 (금메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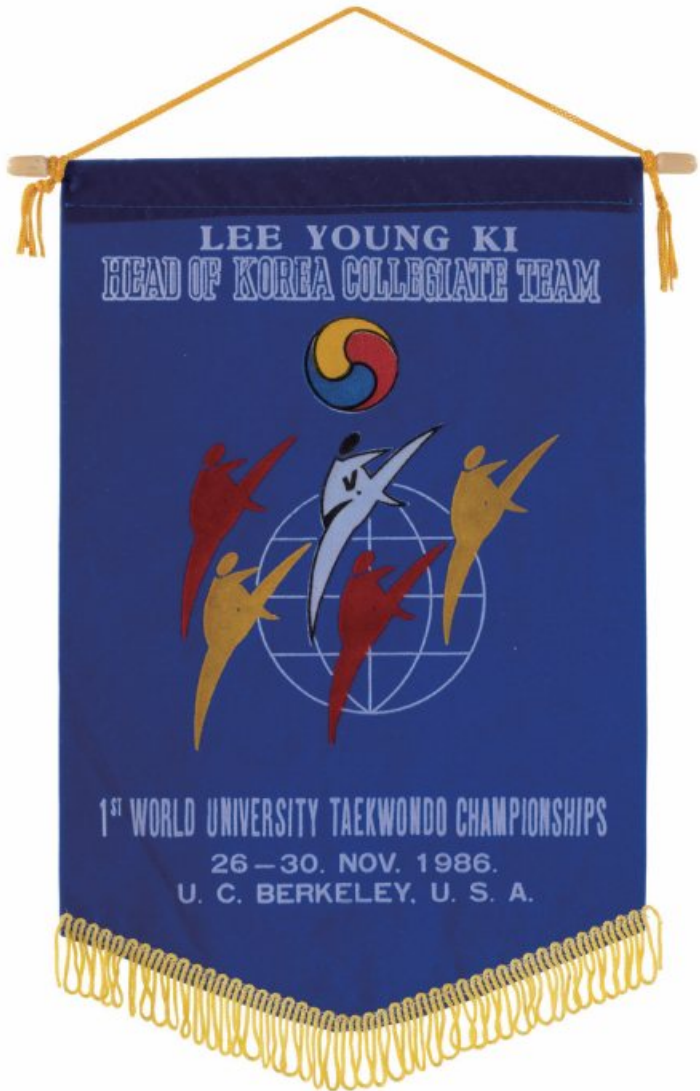
제1회 세계대학태권도선수권대회 배지
Badge of the 1st World University Taekwondo Championships
1986 | 2.3×2.3



제1회 세계대학태권도선수권대회 한국대학팀
페넌트

Pennant of the Korea University Team at the 1st World University
Taekwondo Championships

1986 | 31×25



제3회 세계대학태권도
선수권대회 기념 페넌트

Commemorative Pennant of the 3rd World
University Taekwondo Championships

1992 | 34.5×26

[체급별 참가자]

- 판급: 유수진 (금메달) • 플라이급: 장이숙 (동메달) • 밴텀급: 이승민 (금메달)
- 페더급: 김성숙 (은메달) • 라이트급: 윤명숙 • 웰터급: 조향미 (은메달)
- 미들급: 이성미 (동메달) • 헤비급: 윤현정 (금메달)



제24회 서울올림픽
한국태권도 대표팀 페넌트

Pennant of the South Korean Taekwondo
Team at the 24th Seoul Olympics

1988 | 35×28

1988년 9월 서울에서 개최된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에서 태권도는 시범 종목으로 채택되어 전 세계에 그 위상을 알렸다.
당시 여자부 국가대표팀은 김영인 코치와 박필순 코치가 지도하며 선수단의 성과를 이끌었다. 특히 박필순 코치는 여성 지도자로서 선수들과 소통하며 팀의 결속력을 다지는 데 기여하였다.

[체급별 참가자]

- 판급: 이화진 (은메달) • 플라이급: 추난룰 (금메달) • 밴텀급: 박선영 (동메달)
- 페더급: 김소영 (동메달) • 라이트급: 이은영 • 웰터급: 김지숙 (은메달)
- 미들급: 김현희 (금메달) • 헤비급: 장윤정 (은메달)



제24회 서울올림픽 태권도 남·녀 국가대표 (1988년)



플라이급 우승자 추난룰 선수 (198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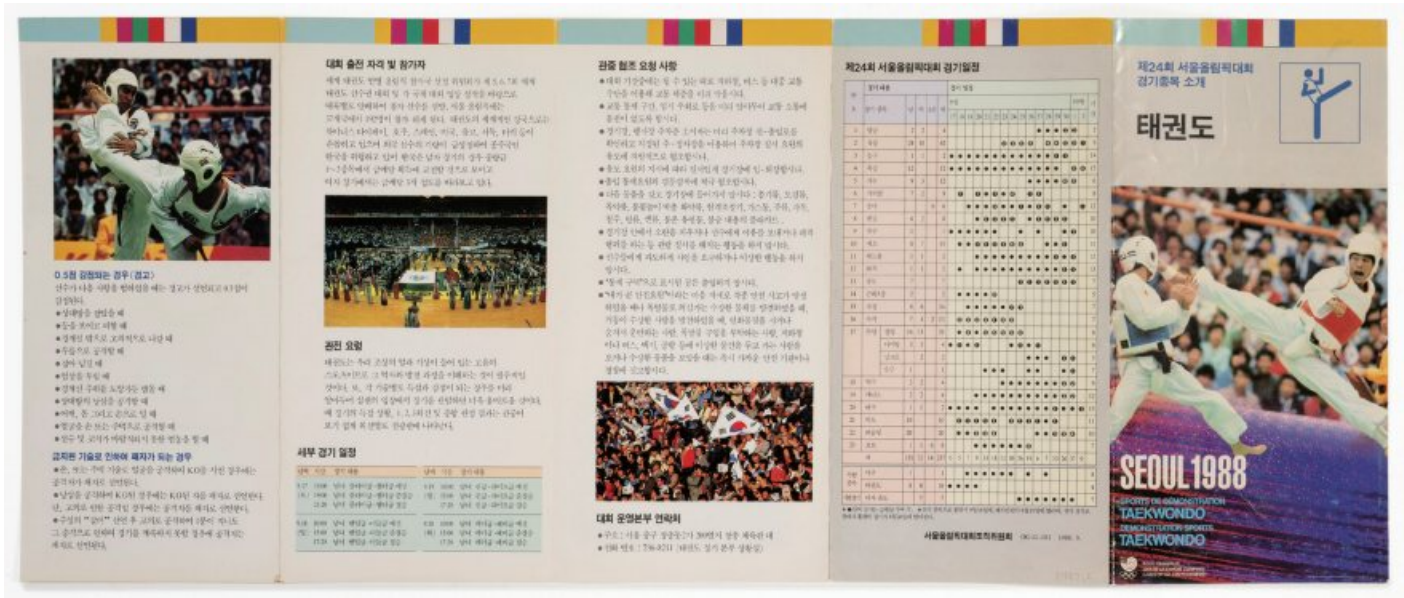


미들급 우승자 김현희 선수 (1988년)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 태권도 경기종목 소개 리플릿

Brochure Introducing Taekwondo Events at the 24th Seoul Olympics

1988 | 21.3×51.4



제24회 서울올림픽 금메달

Gold Medal from the Taekwondo Competition at the 24th Seoul Olympics

1988 | 7×6, 끈 48.5



2 여성 심판과 지도자 등장

The Emergence of Female Referees and Instructors

1980년대는 태권도 경기의 제도화와 함께 심판-지도자 교육이 활성화되며, 여성들이 제도권에 진입하기 시작한 시기이다. 1981년 장정남(장정희)-김안자 사범이 최초로 여성 심판 자격을 취득했고, 1987년 서춘희·양인옥·박정옥이 공식 대회 심판으로 활동하며 여성 심판의 시대를 열었다.

또한 태권도학과 개설과 선수층 확대를 바탕으로 여성 지도자와 코치가 배출되었으나, 대회 심판과 임원은 여전히 남성이 다수를 차지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여성 심판과 지도자의 등장은 여성 태권도인의 역할을 확장시키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The 1980s were also a time when, alongside the institutionalization of taekwondo competition, training programs for referees and instructors gained momentum and women began entering the sport's official ranks. In 1981, Master Jang Jeong-nam (also known as Jang Jeong-hui) and Master Kim An-ja became the first women to obtain referee certification, and in 1987, Seo Chun-hui, Yang In-ok, and Park Jeong-ok served as referees at official competitions, opening the era of female referees.

As taekwondo departments were established and the athlete pool widened, more female instructors and coaches emerged, although there were still few competition officiating and leadership roles that women fulfilled. Even in this environment, the appearance of female referees and instructors marked a key turning point in broadening women's roles within taekwond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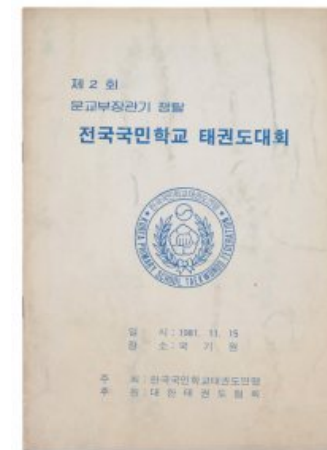


제24회 서울올림픽 태권도 경기에서 한국여성으로는 유일하게 서춘희 국제심판이 참여 (1988년)

제2회 문교부장관기 쟁탈 전국국민학교 태권도대회 자료집

Proceedings of the 2nd National Elementary School Taekwondo Championships for the Education Minister's Cup

1981 | 26.5×19



장정남(4단)과 김안자(4단) 사범은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심판으로서 '제2회 문교부장관기 쟁탈 전국 초등학교 태권도 대회'에 참여하여 심판 활동을 수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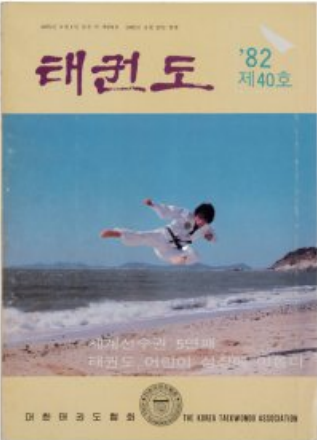
승패의 순간과 장정남 여자심판

『태권도』 제40호

『82년도 전국 종별
신인선수권대회』

Taekwondo, Issue 40
“1982 National Rookie Championships by
Category”

1982 | 25.7×18.7



1982년 3월 국기원에서 전국 종별 신인선수권대회가 개최되었다. 이 대회에는 김안자 심판원이 심판위원으로 참여하여 여성 심판으로서의 전문성을 발휘하였다.



이번 82년도 신인선수권대회는 갖가지 경기
록 속에서 끝났으며 새로 탄생한 184명의 입

상자들은 앞으로 전국 규모의 각종 대회에서 파
탄을 뽐내며 탄을 실력이 뛰어난 집으로 열린
7일간의 우여곡절을 마무리 짓는다. 그러나 경
기장에서 경기를 파괴한 비결한 사람들에 대한
후속처리는 심판위원회의서 임중처리될 것임을
덧붙인다.

끝으로 이번 대회 기간 중에 노고가 많았던
법회의 임직원 여러분과 경기위원 및 심판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며 이번 대회 표창을 받은 오
용진, 강준원, 전동욱, 김안자 심판원들에게 축
하를 드린다.



〈임상자 명단〉

〈중량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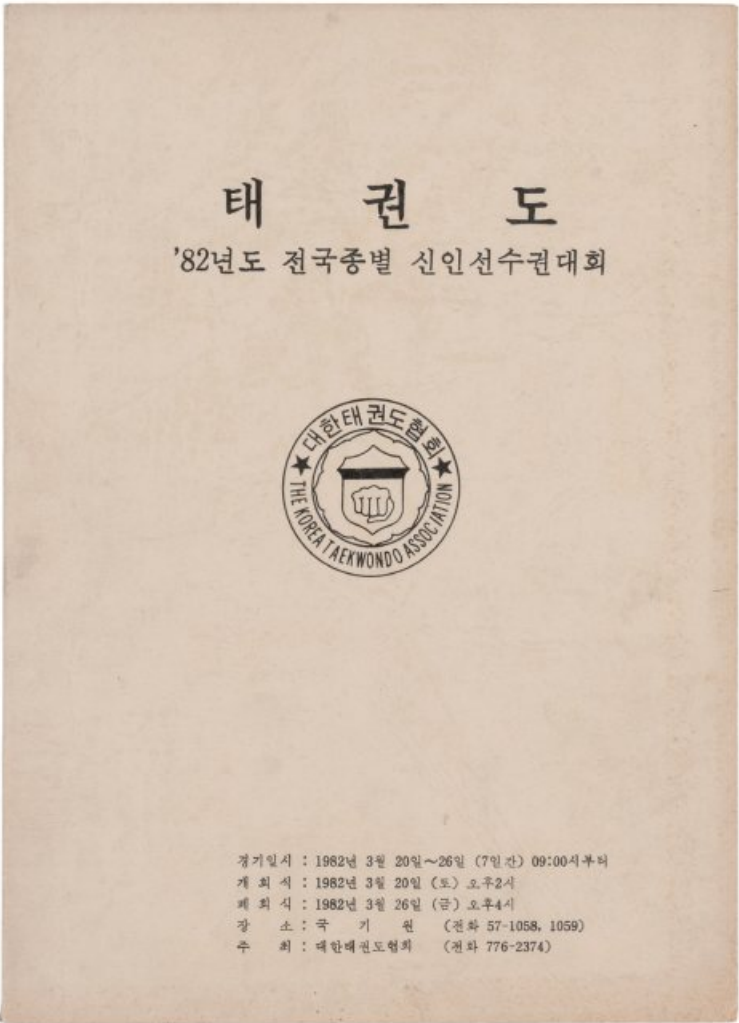
계	급	등	위	성	명	소	속
권	급	1위	김상재	청주남			
		2위	나근호	성덕			
		3위	김 윤	단국			
		3위	최영우	경수			
관	라 이	1위	강준원	보성			
		2위	연규철	광성			
		3위	유영철	성당			
		4위	한진호	경수			
관	남	1위	이찬희	영서			
		2위	전정규	광수			
		3위	정 환	한성			
		4위	한종수	광동			

계	급	등	위	성	명	소	속
계	비	1위	김명석	음성			
		2위	박재진	청담			
		3위	강필진	경수			
		3위	김철진	문산북			
파	이	1위	김명환	진원			
		2위	조희준	신기			
		3위	홍기연	북문			
		3위	김희국	경수			
관	남	1위	전승우	문산			
		2위	박종환	관산			
		3위	김동규	문원			
		3위	한상근	경선			

‘82년도 전국 종별 태권도신인선수권대회 자료집

Compilation of the 1982 National Taekwondo Rookie Championships by
Category

1982 | 27.5×20



「태권도」 제61호
『87년도 전국춘계종별
선수권대회』

Taekwondo, Issue 61
“1987 National Spring Category
Championships”

1987 | 25.7×18.7



처 선생님의 지시대로 따르는 것이 우승의 비결이라며 배우는 자세를 견지했다.

여성심판원 등장

그동안 태권도 경기에서의 심판원은 거의 남자의 독무대였으나 지난해 4월 심판강습을 받고 실기와 필기를 합성한 서춘희(30세), 박정옥(27세), 양인옥(25세)씨 등 3명이 심판보수교육을 마치고 87년도 공식대회로서는 처음으로 심판원으로 활동하게 된 것이다.

태권도 심판은 공인 4단 이상이어야 하는데 여성심판 3명 모두 4단으로 국가대표급 선수로 활약한 바 있다. 서춘희 심판은 자니를 둔 주부이자 태권도장을 운영 하는 관장으로 「젓날 심판을 볼 때는 정확한 판단을 내리고 있는지 스스로 당황하기도 했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마음의 여유를 찾아갔다」며 「공정한 심판원으로서의 직분을 다하겠다」고 했다.

박정옥씨는 「선수 때보다 태권도를 보는 눈이 좋아졌다. 남자 심판들보다 색인 모션이 적고 목소리도 작은 어려움이 있으나 태권도 경기에 부드러운 분위기를 심어주는 잊점을 갖고 있다」고 했다. 한편 양인옥 심판은 77년 은광여고 1학년 재학시에 취미로 태권도를 시작한 것이 인연이 되어 경희대 체육학과를 졸업한 전문 태권도인으로 「운동선수로서 결실을 맺기 위해 심판활동을 결심했다」며 심판으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느낀다고 했다.

체중조절 문제의 심각성 드러내

이번 대회를 통해 볼 때 지적된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선수들의 체중조절문제의 심각성을 들 수 있다.

즉 이번 대회 출전선수 1,450명 중 체중실격자를 보면 181명으로 전체의 12%를 넘고 있다.

이는 선수들이 자신의 체력관리라는 측면에서의 문제점은 물론 지도자의 과학적인 선수 육성 방법의 필요성이 표출된 사례라고 본다. 최근 경기력 향상 추세로 볼 때 기량이 평준화된 상태에서는 적절한 체중관리를 바탕으로 자기 실력을 발휘하는 것이 그날의 승패를 좌우한다고 볼 때 이는 기술연마만큼이나 중요한 문제인 것이다.

한편 체체불량으로 실격처리된 선수의 문제는 대표자 회의시 지도자가 불참함으로써 정보 전달의 미스 등 대회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나타나는 경우도 있



기 때문에 각종 대회시 책임있는 지도자의 대표자회의 참여는 필수적이라고 하겠다. 이번 대회에 출전한 참가선수들을 보면 고등부가 865명으로 가장 많은 반면 대학부가 40명으로 가장 적어 대조적인 현상을 빚었다.

참가선수 현황으로 본 앞으로의 대책

중·고등학생이 대거 경기에 출전하는 현상은 다분히 상급학교 진학과 긴밀한 관련을 맺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중학생은 고등학교 진학을 위해, 고등 학생은 대학 진학을 위해 각종 경기에서 상위입상전적을 보유해야 할 필요성 때문에 각종 경기대회에 계속 출전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대학입학을 한 태권도 선수들이 태권도경기 대회 출전에 저조한 현상을 보이는 것은 첫째, 고등학교 태권도수련생보다는 그 수에 있어 대학 진학자가 훨씬 적다는 것에 그 이유가 있으며 고등학교에서 전적이 있는 학생들이 대부분 대학으로 진학하기 때문에 대학에서 태권도 수련을 계속하는 경우는 그만큼 소수정예가 된다는데 그 첫째 이유가 있었으나 특기자 진학을 하지 않은 태권도학과나 각 대학의 태권도부 등에서 태권도를 수련하는 학생들이 경기출전에 극히 소극적이라는데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이 노출되는 것은 근본적으로 졸업 후의 진로문제와 관련이 있다고 본다.

대회출전으로 명성을 얻고 실업팀입단등 태권도 수련생들의 사회진출이 용이하다면 이에 대한 수련은 계속될 터인데 이에 대한 진로가 거의 부“““하다는 현실은 자연히 사회진출을 앞둔 대학 태권도 수련생들에게 좋은 전적을 보유해야겠다는 유인(誘因)을 그만큼 줄여둘게 만든다고 본다. 이러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실업팀 창단 등 현실적인 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하는게 급선무일 것이다.

‘86년도 심판 강습회 기념패

Commemorative Plaque from the 1986 Referee Training Cour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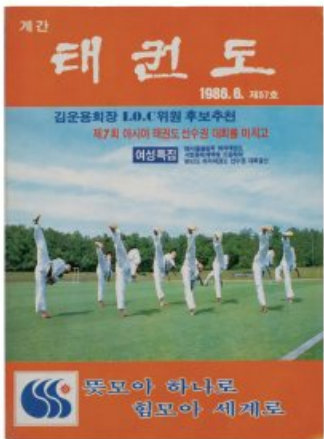
1986 | 16.8×14.2



『태권도』 제57호 『심판 교육을 받고 나서』

Taekwondo, Issue 57
“After Receiving Referee Training”

1986 | 25.7×18.7



“심판교육을 받고 나서”



“청노체육관”/ 서춘희 (4단)

■ 편집자 註

세살난 딸의 어머니로서 현재도 도복을 입고 땀을 흘리는 태권도인이 있다. 국교 6년 강원도 삼척에서 장석주 사범에게서 태권도를 배우면서부터 그 의지의 인생이 시작되었다고 보아야 할까? 그리고 졸업 후 종로구 청운동 소재 자하문 체육관을 3년간 지영하면서 77년 주한 외국인 대회 중량급 금메달을 획득하는 등 선수 생활 3년의 경력 또한 돋보인다. 58년생으로 83년에 김진희 (토목기사) 씨와 결혼, 오늘에 이르기까지 태권도와 그의 인생을 아무지개 섞어온 서춘희씨의 육고를 여기에서 소개한다.

유난히 자부하고 길게 느껴지던 겨울이 지나고 푸르름이 살포시 익어가는 4월. 함으로 심그림고 희망한 계절이다. 임을 흠모하는 마음으로 예타계 심판교육을 기다렸던 탓도 있으리라. 영동 태혜란로변 높은 곳에 우뚝 솟은 국기원. 나에겐 아니 태권도 인들에게선 언제나 자랑스러운 터전이며 애뜻한 곳이기도 하다. 교육 첫날은 유독 화창하고 생동감 넘치는 날이었다. 양쪽에 늘어선 빌딩을 지나 경사진 길을 오르노라면 민음직한 국기원 뿔뿔이 우리를 반긴다.

국기원 주위엔 푸르름이 적당히 연출되고 곳곳에서는 예쁜 꽃들이 자태를 과시하며, 내가 찾는곳엔 태권도에 뜻을 같이한 교육생들이 함께 숨쉬니 어찌 좋은 날이라 하지 않겠는가! 복도를 지날 때 스치는 얼굴들. 전혀 생소하지 않은 그들을 접하고 가벼운 목례로 대신한다. 9시. 경기장에 집결한 교육생이 300명에 육박하는 것을 보고, 태권

도의 저변 확대를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심판교육을 위해 지방에서도 대거 참석 하였고 특히, 주목할만한 것은 여성교육생이 3명이라는 사실이였다. 매년 심판교육 때 많은 관심을 기울여 왔던터라 여성 참석자의 소극성에 관해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었다. 아마, 이렇게 『태권도』誌에 나의소견을 비추어줄 지면 몇쪽을 할애받게 된 것도 여성교육생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쉽게 선택받지 않았나 생각된다. 나는 태권도에 대한 애착이 남다른 듯 싶다. 특히 여성 태권도라면 더욱 더 몸을 붙사르고 싶음을 억제 할 수 없다. 이번 교육 기간 동안 두 후배와 많은 대화를 가질 수 있었다. 민음이 가는 사람스런 후배들이었다. 하나의 밀알이 썩어 열매를 맺을 수 있듯, 고귀하고 귀중한 한국여성 태권도의 주춧돌임을 알고 함으로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교육에 임하였다. 한편, 남자 교육생의 조소(?)를 받는 고충도 겪어야 했다. 그들에

『태권낭자』 제11·12호

Taekwon Nangja, Issue 11·12

1989 | 27.3×19.9



인터뷰 / 국제심판 · 박정옥



세계대회 한국 통일점 코트 지휘자

■ 참 가 기 ■

국제심판 박정옥 (30, 소사체육관자영) 은 이번 대회에 한국여성으로는 유일하게 심판위원을 받았으며 국제대회는 처음임에도 멋지게 경기를 주도하였다는 호평을 받기도 하였다. 개나리빛 노오란 심판복에 남색 넥타이를 땡긴 모습이 근사하게 보이기도 했다.

— 국제심판자격은 언제 취득하였으며 국제경기는 어느정도 치루었습니까

「 88년 4월 서울에서 국제심판 강습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참석하여 자격시험에 패스하였죠. 국제대회는 이번 세계대회가 처음입니다 」

— 여자의 몸으로 어려운점은 없습니까

「 여자이기에 어려움은 없습니다. 국내심판 경력 4년이 많은 도움을 준것 같습니다. 」

— 여성 국제심판의 지위향상을 위하여 한 말씀 주십시오

「 태권도가 국기라고 하면서 외국여성들보다 모든면에서 좀 뒤진 느낌입니다. 국제심판도 불과 3명뿐입니다. 앞으로는 많은 국제심판이 배출되어야 했으며 각종 대회에 여성심판들도 광범위하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활발하게 발전되어 질것으로 봅니다. 」

기영숙
· 본회부회장
· 방송공사지도사범

제 9 회 세계대회와 제 2 회 여자세계대회가 '88 올림픽이 성대하게 치루어진 잠실벌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대회는 여성 태권인들이 대거 자원봉사자로서 활약하여 매우 훌륭히 치루어졌다는 격찬을 받은 좋은 대회였다.

다른 부서에도 여성 태권인들이 자원봉사자로서 활약하였지만 특히 안내부에서는 16명전원의 태권인들이 열과 성의를 다하여 봉사하였다.

어려움속에서도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하나의 호트러점없이 혼연일체가 되어 긍지를 가지고 치루어졌다고 자부한다.

전원 고운 한복을 입고 안내데스크에서 자상하고 친절하게 안내하며, 차를 끓여 대접할 때에도 웃음과 예의를 잊지않고 봉사하던 후배 여자사범들이 대견하기까지 하였다.

대회가 끝난후 후배들은 한결같이 “ 힘들고 어려웠지만 많은것을 배웠으며 선후배간에 좋은 만남의 기회가 되었다 ” 라고 이야기 하였다.

또한 모든 태권도 행사에 언제든지 참여하여 봉사의 정신을 또다시 보여주고 싶다고들 한다. 태권도가 좋아서 운동을 하였으며, 이전 댄스야 댄스 수 없는 태권도 삶이 되었노라고 …….

「태권낭자」 제10호

Taekwon Nangja, Issue 10

1989 | 27.3×20



1989년 대통령기 타기 대회를 통해 사상 최초로 지방 원정 경기에 여성 심판이 배치되었음을 알리는 소식과 함께, 같은 해 심판 교육을 수료한 15명의 여성 태권도인을 소개하고 있다. 당시 심판 교육에 참여하여 여성 태권도계의 전문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 인원들은 다음과 같다. 89년 심판 교육 참석자: 전윤숙, 이미옥, 이정연, 김명희, 홍석영, 이인자, 손혜옥, 양일해, 최수경, 이인순, 유현진, 김혜연, 김명희 외

제16회 국제심판강습회
사진액자

Photo Frame from the 16th International Referee Training Course

1988 | 50.3×63

세계태권도연맹이 주관하는 제16회 국제심판강습회가 4월 2일부터 11일까지 국기원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강습회에는 여성 태권도인인 서춘희, 박정옥을 비롯하여 현직 경찰관으로 근무 중인 지경순, 그리고 외국인 여성 태권도인인 태멀레인 코넬리(Tamberlain Connely)가 참가하였다. (사진 왼쪽부터 지경순, 코넬리, 서춘희, 박정옥)



＊ 최초 지방원정경기 (대통령기 타기 대회) ＊

여성심판 첫 등장

6월 27 ~ 30일까지 강릉에서 대통령기 타기대회에 그토록 여성태권도인들이 열원하던 여성심판 3명이 위촉되어 경기를 치렀다.

그동안 꾸준히 각종대회에 여성심판들이 활약하였으나 지방대회에는 참석하지 못하여 안타까워 하였었다. 그러나 여성태권도인들이 각분야에서 맡겨진 일들을 충실히 수행 함으로써 드디어 심판분야에서 큰 성과를 이루어 냈다고 생각한다.

여성심판이 지방대회에 참석한것은 참으로 큰 의미를 갖는다고 본다.

그동안 유교적 의식구조로 인해 여성 심판 기용 기피가 큰 문제점이 있던것이 사실이며, 여성 태권도인이 전국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지 않은 현실을 타개할수 있는 방안으로 여성심판이 지방경기에 등장함으로써 그들에게 여성태권도인들의 진로와 가능성을 단면적이나마 보여줄수 있었다는 점에서 크게 기여하였다고 본다. 이번 대회를 기점으로 여성심판원이 모은 대회를 망라하여 참석할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간절하다.

처음 시도한 이 여성심판 지방출장을 우리 여성심판원들은 이제 부터라는 시작의 일념으로 더욱더 분발하여야 할것이다. 올바른 관정은 말한나위 없을 것이며 여성심판원들의 자질향상 및 후배양성 등 많은 일들을 선배인 우리들이 수고를 아끼지 받아야 할것이다.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전술한 마음으로 무던한 노력만이 여성태권도 발전에 초석이 되리라 믿는다. 이번 대회를 통하여 여성 심판들이 모든이들에게 어떻게 비추어졌는지는 미지수다.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모든분야에 참석하여 우리들의 재능을 항상 절제한 자세로 대처하고 있다.

「대통령기타기 대회」에 여성 심판들이 참석할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심판위원님들에게 다시금 지면을 통하여 감사드린다. 아울러 모든대회에 또 다시 여성심판들이 등장할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 우리 여성심판들은 거기에 대비하여 많은 노력을 할것이다.

＊ 89년 심판교육 ＊

여성심판 교육생 15명 참석하다!

태권도 교육에 “홍익절”이란 말은 흘러간 옛이야기로 남아있을 뿐이다. 심판 교육뿐만 아니라 모든 교육에 여자사범이 한명, 혹은 두명에 불과하거나 전혀 없었던 때가 많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89년 심판교육에 참석한 여성이 무려 13명이 교육을 필하였던것은 대단한 발전이며 반가운 일이 아닐수 없다. 교육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각 분야에서 오후기 처럼 영원히 빛나길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① 전윤숙(미국출국) ② 양일해(개봉체육관장)
③ 이미옥(부산:사범) ④ 최수경(화랑체육관장)
⑤ 이정연(YMCA사범) ⑥ 이인순(쿠웨이트출국)
⑦ 김명희 ⑧ 유현진(부산:사범)
⑨ 홍석영(유도대3년) ⑩ 김혜연(금호체육관사범)
⑪ 이인자 ⑫ 김명희
⑬ 손혜옥

여성스포츠회 새 출발

지난 6월 23일 오후 1시 강동구 둔촌동 한국사회체육센터 3층 강당에서 열린 이 대회는 사실상 9년여의 공백을 깨고 새로 출발한 셈이다. 이날 모인 각종목 여성스포츠인 70여명은 “각 대학에 여성팀 육성 마련과 여성체육인들의 지속적인 사회활동 여건 마련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하였다.

태권도에는 장경남(여성분과위원장)을 비롯하여 15명이 참석하여 뜻을 같이 하였다. 이날 정기총회 임원진은 다음과 같다.

고문: 윤덕주 김국배 조성순
회장: 한양순(연세대교수)
부회장: 양진수 이탁분 조정자 주희봉

『태권도』 제66호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 태권도 경기 총결산』

Taekwondo, Issue 66
“Final Summary of the Taekwondo
Competition at the 24th Seoul Olympics”

1988 | 25.7×18.8



1988년 서울올림픽 태권도 경기에는 28명의 국제심판이 참가했으며, 올림픽 태권도 역사상 최초로 여성 국제심판이 활동하였다.
‘서춘희’ 심판은 한국 유일의 여성 국제심판으로 참여해 여성 태권도인의 위상을 높였으며, 네덜란드의 ‘아니타 서 도른바하’도 국제심판으로 활약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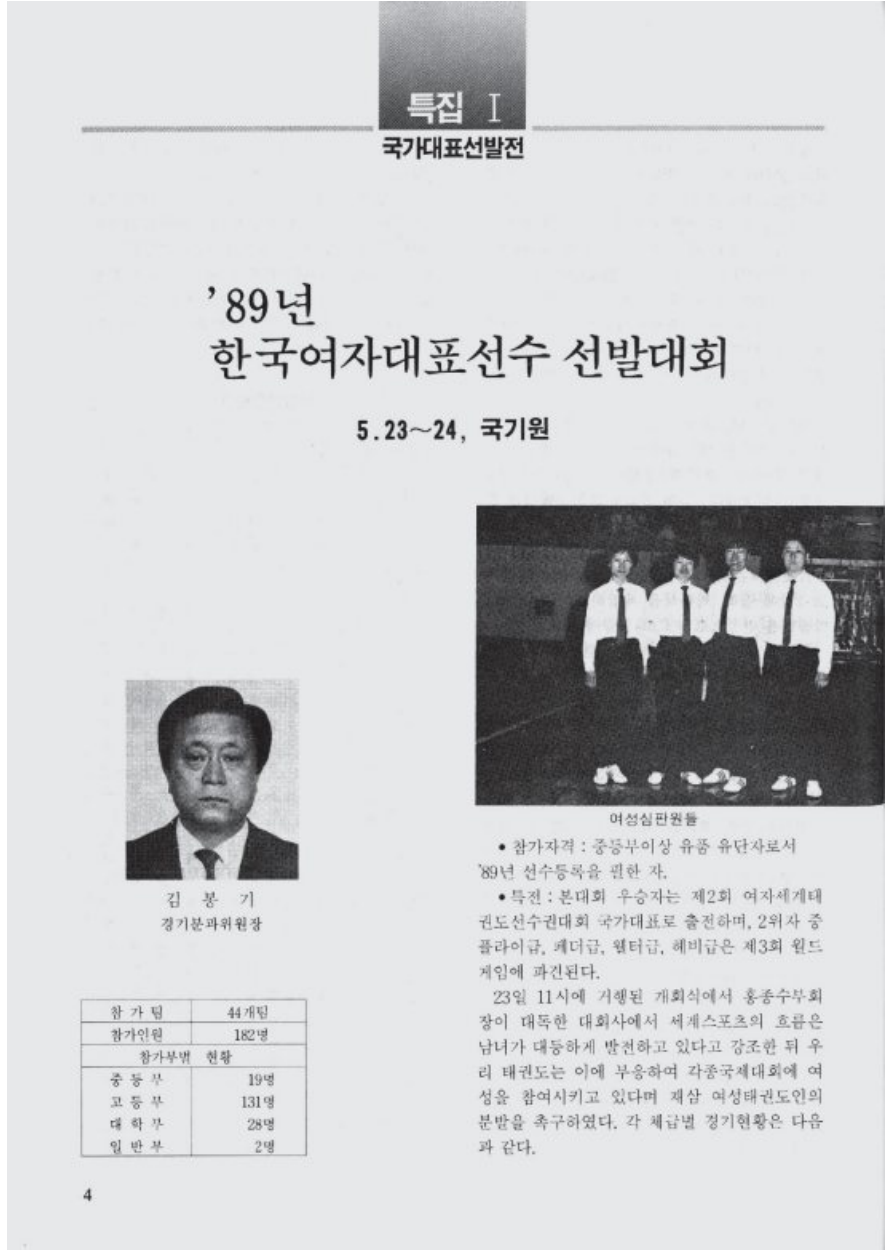
『태권도』 제69호 『89년 한국 여자 대표 선수 선발 대회』

Taekwondo, Issue 69
“1989 Korea Women’s National Team
Selection Tournament”

1989 | 27.3×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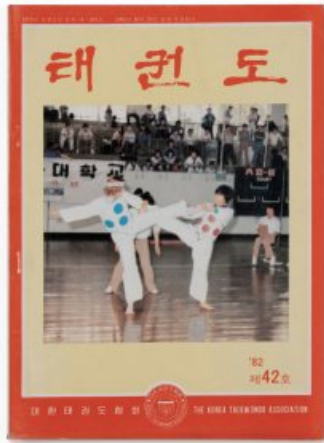
1989년 5월 국기원에서 개최된 한국 여자 대표 선수 선발 대회에는 총 44개 팀, 182명의 선수가 참가하였다.
특히 이번 대회에서는 여성 심판원들의 활약이 돋보였다.



『태권도』 제42호
『대한체육회 코치 아카데미
에서 최우수상 받아』

Taekwondo, Issue 42
“Grand Prize at the Korean Amateur Sports
Association Coach Academy”

1982 | 25.7×1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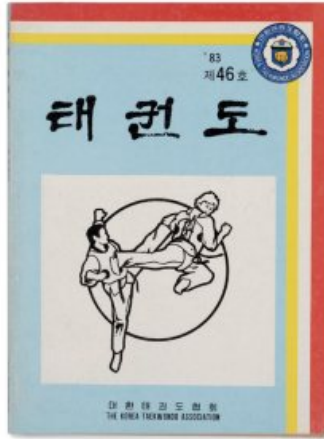


1982년 9월 대한체육회에서 주관한 제14기 코치 아카데미 수료식이 거행되었다. 이번 교육 과정에는 유병호, 이규형, 박수복, 황병재, 김세혁, 장채호 등 당시 태권도계를 이끌던 주요 지도자들과 함께 김명산, 장정남 사범이 여성 태권도 코치로서 참여하였다.

『태권도』 제46호
『특별심사실시』

Taekwondo, Issue 46
“Special Referee Examination Conducted”

1983 | 25.7×18.7



특별심사실시

1983년 8월28일 국기원에서는 태권도의 활성화 차원에서 공인단증을 보유하지 못한 4단 이하 수련자들에게 문호를 개방하여 특별 심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심사에는 신정열, 정효심 등이 참여하여 4단 승단에 도전하였다.

최종적으로 4단 승단에 성공한 정효심 사범은 소감을 통해 “여자가 태권도를 한다면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시선이 있는 경우가 있으나, 직접 수련해 보니 전신 관절 운동으로서 여성 건강 관리에 탁월하며 인내심과 강한 정신력을 기르는 데 매우 좋아 많은 여성에게 권하고 싶다”라고 밝혔다.

실기심사에 있어서는 눈에 띄일만큼 실기력을 갖춘 응시자가 많아, 보는이로 하여금 흥취스러운 느낌이 들었으며, 심사진행을 하는 임원들의 성실한 임무수행은 응시자나 집행자의 소명의식을 발휘하는 좋은 계기였다고 본다.

4단에 응시한 신정열(1956년생)양을 공인 2년으로 여성태권도 저변확대의 일환인 태권부용보급에 심혈을 쏟고 있는 아가씨로 집안사정에 의해 승단기회를 얻었다가 급번 응시하게 되었다. 앞으로 태권도 지도자로서 활발히 활동을 하겠다고... 정효심(1956년생)양은 “여자가 태권도를 한다면 사회에서 부정적으로 보는 경우가 있는데, 본인이 태보나 전신 관절운동으로 여성건강 관리에도 좋고, 인내심과 정신적인 면에서 강인한 의지가 생겨 많은 여성에게 권하고 싶다”고 말한다.

또한, 급번 특심 기회로 4단에 승단하여 사범 자격증 획득하여 몇몇하게 사범으로서의 지도를 하겠다고 사범자격증없이 체육관에서 후배지도를 하던 일을 회고하며 희망에 자 있었다.

급번 실시한 특심에 혜택을 받은 응단자는 3단 27명, 4단 535명이 응시하여 몇몇이 못했던 지도자들에게 빛을 준 좋은 기회였다.

특별심사합격자명단

구	단	15	진	단	명()
1	강 영 민(부산)	17	허 상 준()		
2	구 용 표(대구)	18	김 진 승()		
4	이 성 훈(충북)	19	이 군 욱()		
5	김 창 순(전남)	20	김 위 선()		
6	박 환 제()	21	이 환 균()		
7	최 민 호()	22	정 창 국()		
8	김 종 선()	23	이 선 훈()		
9	고 준 광(전북)	24	노 한 진()		
11	김 환(서울)	25	강 진 용()		
12	임 요 석()	26	김 통 훈()		
13	박 정 용()	27	권 달 수()		
14	차 환 용(서울)				



〈특별심사에 응시한 정효심, 신정열양〉

『태권도』 제60호 『여성 태권도를 말한다』

Taekwondo, Issue 60
“On Women’s Taekwondo”

1987 | 25.7×1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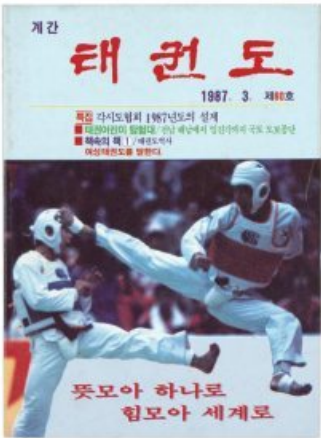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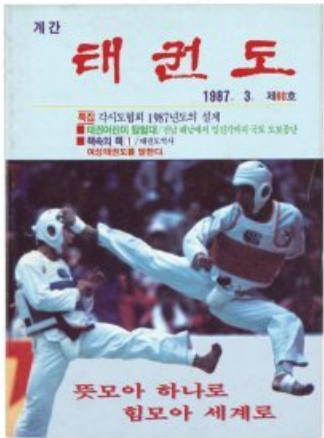
국기원 태권도지도자 연수원에서 진행된 제53기 지도자 교육 과정을 조명하고 있다. 당시 총 419명의 수강생이 참여한 가운데, 바늘구멍과 같은 관문을 뚫고 전문 지도자의 길에 들어선 전 애연, 임신자, 최선자, 문숙현, 전오숙 등 5명의 여성 수강생을 소개한다.

『태권도』 제60호 『인천 여자 태권도의 산실』

Taekwondo, Issue 60
“The Cradle of Women’s Taekwondo in Incheon”

1987 | 25.7×18.7

금나무 체육관이 배출한 대표적인 국가대표 선수로는 임신자, 박연실, 이진희, 최지숙 등이 있으며, 이들은 국내외 대회에서 뛰어난 성적을 거두며 인천 태권도의 위상을 높였다. 특히 1987년 2월에는 경희대학교를 졸업한 임신자 선수가 모교인 문성여상 등에서 후배 양성에 참여하게 되었다.



금나무체육관에서 수련하는 상인천여중과 문성여상 태권도 선수들.

사범은 상인천여중성과 문성여상 선수들을 지도해오고 있으며 한편 문성여상, 상인천남중, 문안여고 등에서 선수를 육성하고 있는데 그는 제 7 회 세계 태권도선수권 대회 여자부 국가대표표창을 했고 81년도에 코치아카데미교육을 받은 후 계속 후배들을 지도해 오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선수들을 학교에서의 적극 지원 아래 육성하지 못

하고 체육관으로 모아 선수들 육성해야 하는 입장이라 중고등부의 태권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전국체전에서 여자태권도가 정식종목으로 채택되어야 하리라는 기대를 걸고 있다.

한편 금나무체육관에는 87년 2월에 경희대를 졸업한 임신자 선수가 후배를 지도하게 되어 선수들의 수련의욕을 더욱 고취하고 있다.

수련생들의 심신을 닦을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마련해 놓은 곳으로 하나로 태권도장을 꼽을 수 있다. 하나로 태권도장이 개관한 것은 지난 86년도 5월이었다. 총146평의 체육관에는 수련도장 40평, 달의실 및 휴게실 40평, 샤워실 10평, 사무실 15평 등으로 2,000여 만원을 들여 초현대식시설을 갖춘 태권도장이다.

체육관 40평의 벽을 완전 거울화하고 휴게실과 달의실 바닥을 카펫으로 깔고 샤워실엔 냉온수 시설이 갖추어져 있다. 너무 잘 짜여진 구조며 시설들을 갖추어 어느 태권도인이 보아도 이런 체육관이 있나 할 정도로 감탄을 자아낸다.

하나로 태권도장에는 현재 120

초현대식 시설 갖춘 체육관

하나로 태권도장

정법하게 태권도장의 문패를 내걸고 태권도 수련생들을 지도하는

태권도장과는 달리 체육관 운영 및 시설면에서 완벽하게 구비해 놓아

여성 태권도의 현실은 어렵고 문제점으로 지적받았지만 어려움이 이 지점까지 태권도를 수련하여 가지는 인식상과 불굴의 의지, 협동심이 다시 태권도 발전을 위하여 불허한다면 여성태권도의 발전 가능성은 대단히 높다고 봅니다.



지도자 교육수업을 마치고 휴식시간을 즐기는 모습

양식과 분배, 생활도구와 생활시설의 분배, 핵가족화 등으로 여성의 가사노동 시간이 감소함에 따라 여가도 여가시간을 많이 갖게 되었을 나다. 요즈음 이러한 여성의 여가 시간에 기인한 욕구를 여가적 사회적으로 승화시킬 방안이 하는 문제를 우리는 집단적 사회문화로 많이 모색해야 하리라 봅니다. 또한 가정, 공법회의 현실 속에서 주부들의 건강상태는 질병발생과 더불어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이러한 스트레스를 비롯한 것은 건강문제의 요인은 결국 운동부족에서 찾을 수

있으리라 봅니다. 여성적 체육활동—특히 태권도를 하는 여성들이 여가적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나름대로의 의견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예연: 태권도가 사회체육으로서 전문화가 위해서는 교육적 목적도 제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태권도 전문인력이 사회에 진출하고 있으며, 가정과 공법회의 여가는 현실 속에서 주부들의 건강상태는 질병발생과 더불어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부들의

스트레스를 비롯한 것은 건강문제의 원인으로 이들을 지도할 여건이 필요하고 이를 지도할 여성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요즈음에 들어서서 일반 여성이나 주부들 사이에 헬스클럽을 중심으로 예체능비교, 체스, 수영, 테니스, 조깅 등이 붐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태권도의 경우 실용적 구획만지 않고 전신운동은 할 수 있고 정신적인 면에서의 교육이 중요하기 때문에 적절한 수련은 여성에게 좋은 효과를 주리라 봅니다. 사회주부들의 건강관리는 가족의

건강과 직결되고 가정의 건강은 지역사회의 건강과 연결이 되어 지역사회의 건강은 지역사회의 발전과 함께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태권도에서 남녀태권도가 차별정기를 지루해 되고 세계대학 태권도 선수권대회 등 국제대회에 여성태권도 경기가 실시되고 있다고 볼 때 전국체전에서 여성경기 종목 채택은 시간문제라고 봅니다. 한발 앞서 준비하고 기한을 다지기 위해서는 지방태권도를 위하여 최정할 자원을 확고 하고 전국투구를 잘 생각됩니다.

▲전오숙: 지도자 교육 후 중간 평가까지의 수련은 뒤 직접 일을 맡아 후배선수를 키우고 있습니다. 학교인이나 실업팀 등에서 수련 생활을 지도할 수 있도록 우선 제 자신의 능력부터 키워도록 하겠읍니다.

▲임신자: 후배들에게는 좀더

많은 조건에서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주어지면 외국에 나가 체육 공부하며 경험을 넓혀 태권도 발전을 위한 초석을 다지는 데 노력을 계획합니다.

▲문숙현: 저는 아직도 체력이 약한 것이 너무나 답답한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으로 지도하기 어려울 거라고 하기 전에 지도능력을 더욱 높이는 노력, 제 나름대로 소파한 이론체계를 정립해 지도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특히 체육 공부를 하면 필연적 신체의적으로 태권도가 어느 부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해 보고 싶습니다.

사회 지도자까지 여성 태권도에 관한 좋은 말을 잘 들었습니다. 여성태권도가 편익을 갖고 커가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여성연명의 부흥에 전인적 역할을 해야하리라 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태권은 스스로 노력, 태권도의 정신과 철학을 통하여 새로운 삶의 내용과 활기를 주고 신성한 종교와 세 영향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성 태권도의 현실은 어렵고 문제점으로 지적받았지만 어려움이 이 지점까지 태권도를 수련하여 가지는 인식상과 불굴의 의지, 협동심이 다시 태권도 발전을 위하여 불허한다면 여성태권도의 발전 가능성은 대단히 높다고 봅니다. 여



태권도장의 전경과 태권도 수련생들의 모습

『태권도』 제61호 『1987년도 전국여자개인 선수권대회』

Taekwondo, Issue 61
“1987 National Women’s Individual
Championships”

1987 | 25.7×18.7

1987년 4월 국기원에서 제2회 전국여자개인선수권대회가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번 대회는 전년 대비 참가 인원이 145명에서 228명으로 약 57% 증가하며 여성 태권도의 가파른 성장세를 증명하였다. 88 서울 올림픽 시범 종목 채택 등 대내외적인 인식 변화와 함께, 여성 태권도는 이제 남성 전유물의 시대를 지나 여성의 대표적인 투기 종목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전 국가대표였던 임신자(문성여상), 전오순(부천동여중) 선수가 코치로 데뷔하고 여성 심판원이 활약하는 등, 여성 태권도인의 전문 영역 확대는 향후 발전에 기폭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채택되어 경기가 치루어지는데 반해 국내의 전국체전에 여자부 경기가 없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본다.

한편 본 협회에서는 '87년도 정기대의원총회시에 『전국체전 여자부 경기 채택으로 국내여성태권도 경기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올림픽, 세계선수권, 아시아선수권에서의 여자부 경기에 대비하자』는 안이 채택되어 관계 기과의 협의를 모색하고 있다.

② 여성태권도 지도자에 의한 여성태권도 발전기대 이번 대회를 통해 볼 때 여성 심판 및 코치의 동장은 여성태권도 발전의 기폭제가 되리라는 것이 태권도인들의 진단이다.

전국가대표선수로 활약했던 임신자와 전오순이 각각 문성여상과 부천동여중 코치로 나와 눈길을 끌었는데 이는 그동안 여성태권도인의 지도와 수련을 남자태권도 인들이 수련시켜 왔는데 비해 여성태권도인에 의한 후배양성은 신뢰적,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다 효율적인 지도를 할 수 있으리라는 것과 아울러 여성태권도인 스스로가 여성태권도 발전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역할을 갖고 있다는 것이 그만큼 여성 태권도 발전에 보이지 않는 영향력을 발휘하리라는 것이 예상된다.

또한 여성 심판원의 등장도 여성 태권도인의 부각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여성 태권도인들의 태권도 3급 지도자교육, 2급 경기지도자교육, 심판교육 등에 참가가 더욱 많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여성 태권도인들이 여성 태권도의 발전을 자체적으로 모색하기 위한 방안으로 여성 태권도인들의 도

입인 『태권남자』를 창설해 단합된 힘을 모으고 구심점을 찾는 일환으로 회보인 『태권남자』를 발간하고 있다.

이처럼 여성 태권도의 국제화추세 및 여성태권도인의 태권도발전방안 모색이라는 측면에서 여성태권도의 활성화는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 입 상 자 명 단

체급	등위	성	명	소	속
핀	1위	원	선 진	수	성 여 중
	2위	이	화 진	청	산 여 상
	3위	송	갑 남	고	양 여 중 고
금	3위	양	은 정	청	산 여 상
	1위	이	영	경	회 대
	2위	안	희	경	유 도 대
플라	3위	추	난	플	청 산 여 상
	3위	조	인	경	고 양 여 중 고
	1위	박	신	영	경 회 대
버	2위	박	현	숙	고 양 여 중 고
	3위	박	연	실	성 신 여 대
	3위	박	경	회	부 천 동 여 중
페	1위	김	소	영	성 신 여 대
	2위	진	혜	윤	문 산 여 중
	3위	정	은	옥	인 천 체 고
더	3위	최	한	미	천 안 동 여 중
	1위	이	은	영	경 회 대
	2위	남	정	동	청 산 여 상
라	3위	박	진	경	인 천 체 고
	3위	이	현	화	청 산 여 상
	1위	오	현	주	이 화 여 대
텔	2위	이	경	린	인 천 체 고
	3위	김	경	미	문 성 여 상
	3위	고	재	경	성 신 여 대
미	1위	김	현	회	경 회 대
	2위	양	인	덕	문 성 여 상
	3위	김	미	화	인 천 체 고
들	3위	이	진	회	이 화 여 대
	1위	정	환	숙	성 신 여 대
	2위	고	현	진	청 산 여 상
해	3위	정	신	영	보 영 여 중
	3위	배	미	라	인 천 체 고

『태권도』 제67호 『US배 태권도 대회 및 친선 경기를 마치고』

Taekwondo, Issue 67
“Reflections on the U.S. Cup Taekwondo
Tournament and Friendly Matches”

1988 | 25.7×18.7



태 권 도 기 행

U.S배 태권도대회 및 친선경기를 마치고

박 현 숙
대한유도대학 조교
88서울올림픽 태권도코치

88서울올림픽 태권도경기가 열리던 중올림픽관이 태권도기물전장에 매어기가 올라와지고 선수관을 흥분케 했으나 경기 시작 후 U.S배 태권도 대회에 대비한 선수단은 10월 25일 오전 11시 국기원에서 집단식을 갖고 오후 7시 30분에 김포공항을 출발하여 리히터 호텔을 거쳐 L.A에 도착, 이튿날인 27일 새벽 6시에 CHICAGO에 도착했다.

오후 9시경 CONNECTICUT 주의 BRADLEY INTERNATIONAL AIRPORT에 도착, HARTFORD에 SHERATON HOTEL에 여정을 풀고 시카고로 향했다.

10월 28일 미국태권도의 도장에서 간단하게 오리엔탈을 마치고 오후 2시에 NEW BRITAIN시의 WILLIAM J. McNAMARA 시강에서 태권도 시범을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김승현은 역시로 태권도 시범을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김승현은 역시로 태권도 시범을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10월 29일 CENTRAL CONNECTICUT STATE UNIV.에서 태권도 시범을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김승현은 역시로 태권도 시범을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10월 30일 U.S배 태권도 대회에 참가한 선수단은 10월 30일 오전 11시 국기원에서 집단식을 갖고 오후 7시 30분에 김포공항을 출발하여 리히터 호텔을 거쳐 L.A에 도착, 이튿날인 27일 새벽 6시에 CHICAGO에 도착했다.

오후 9시경 CONNECTICUT 주의 BRADLEY INTERNATIONAL AIRPORT에 도착, HARTFORD에 SHERATON HOTEL에 여정을 풀고 시카고로 향했다.

10월 28일 미국태권도의 도장에서 간단하게 오리엔탈을 마치고 오후 2시에 NEW BRITAIN시의 WILLIAM J. McNAMARA 시강에서 태권도 시범을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김승현은 역시로 태권도 시범을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10월 29일 CENTRAL CONNECTICUT STATE UNIV.에서 태권도 시범을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김승현은 역시로 태권도 시범을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10월 30일 U.S배 태권도 대회에 참가한 선수단은 10월 30일 오전 11시 국기원에서 집단식을 갖고 오후 7시 30분에 김포공항을 출발하여 리히터 호텔을 거쳐 L.A에 도착, 이튿날인 27일 새벽 6시에 CHICAGO에 도착했다.

입원 및 선수단 명단

▲단장 : 황윤길 (대한태권도협회 전무이사)
▲코치 : 김세혁 (동성고 교사 - 88서울올림픽 태권도코치)
▲선수 : 이화진 (전남) 이현영 (라이프강) 최혜경 (한미고) 정국현 (해미고) 차선영 (해미고) 임현희 (해미고) 정영삼 (해미고) 김종석 (해미고)

미시간 김현희 선수는 여자 보시는 미국인의 컨디션으로 경기에 입원했다. 휴이 무거웠으며, 귀찮은 공격을 펼치지 못해 결국 미국 선수에게 패배로 패하고 말았다.

밴딩군 박선영 선수는 캐나다 선수들 맞이해 1회전 오리엔탈 들어박기를 공격했으나 넘어져서 각점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만 2-3회전에 질자기 다음 들어박기의 각점으로 무난히 승리할 했다. 김승현은 역시로 국선수를 맞아 열한 명과 들어오는 상대로 다음 오리엔탈을 했고 3회전에는 두번 연속자기 1득점을 신화하여 한국에 마지막 승리를 안겨주었다.

우리 선수단은 17개와 동1개로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10월 30일 U.S배 태권도 대회 및 HARTFORD에 일정을 마치고 오후 7시에 NEW YORK으로 출발, 약 2시간 40분 후 NEW YORK STANFORD

태권도 기행

U.S배 태권도대회 및 친선경기를 마치고

박 현 숙

대한유도대학 조교
88서울올림픽 태권도코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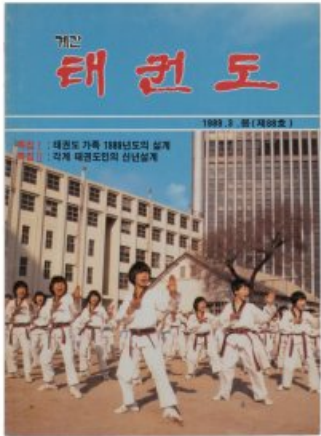
입원 및 선수단 명단

▲단장 : 황윤길 (대한태권도협회 전무이사)
▲코치 : 김세혁 (동성고 교사 - 88서울올림픽 태권도코치)
▲선수 : 이화진 (전남) 이현영 (라이프강) 최혜경 (한미고) 정국현 (해미고) 차선영 (해미고) 임현희 (해미고) 정영삼 (해미고) 김종석 (해미고)

「태권도」 제68호
『상명여자대학교 태권도부』

Taekwondo, Issue 68
 “Sangmyung Women’s University
 Taekwondo Team”

1989 | 25.7×18.7



1988년에 창단된 상명여자대학교 태권도부는 임신자 코치가 지도하고 있다. 임신자 코치는 1988년과 1989년, 2년 연속으로 여자 지도상을 수상하며 큰 화제를 모았다.



'88년도 여자 국가대표 선발대회
여성지도자와 여성심판원이 대거 출현하였다.
(1988년)



제53기 지도자 교육을 받고 있는 여성태권도인
(왼쪽부터 최선자, 전오순, 임신자, 문숙현, 전애연)
(1987년)



‘88년도 전국우수선수 선발대회
4명이 출전해 3명이 입상한 상명여대.
임신자 코치는 지도상을 수상했다.
(1988년)

[illegible]

3 태권남자회

Taekwon Nangjahoe

“나는 작고 약하나, 우리는 크고 강하다.” - 태권남자

1979년 한국여성태권도연맹 해체 이후 여성 태권도인은 증가했으나, 운동환경과 제도적 참여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여성 지도자들은 1986년 ‘여성 태권도회’를 결성하고, 1987년 ‘태권남자회’로 발전시켰다. 이후 대한태권도협회와의 논의를 통해 1988년 기술심의회 내 여성분과위원회가 신설되며 제도권 진입의 계기가 마련되었지만, 초기에는 역할이 제한적이었다. 회원들은 수련과 심판·지도자 교육, 교류와 학술활동을 통해 전문성을 높였고, 1987년 창간된 『태권남자』는 전국 여성 태권도인을 연결하는 핵심 매체로 기능했다.

“From Small and Weak to Strong Together.” “Taekwondo Girls”

Although the number of female taekwondo practitioners continued to grow after dissolution of the KWTF in 1979, there were still clear limitations in training environments and institutional participation for women. In response, female leaders formed the “Females’ Taekwondo Association” in 1986, which evolved into the Taekwon Nangjahoe in 1987. The following year, discussions with the Korea Taekwondo Association led to creation of a Women’s Subcommittee within the Technical Council in 1988, opening a pathway into the official system, although its role remained limited at first. Members strengthened their expertise through training, referee and instructor education, exchanges, and academic activities, while the magazine Taekwon Nangja, first published in 1987, became an important medium linking female taekwondo practitioners across the country.



태권남자회 조직도 (1987년)



「태권낭자」

Taekwon Nangja

1987-1993 | 28.3×20.7

1979년 창립되었던 한국여성태권도연맹이 1984년 해체된 이후, 1986년 21명의 여성 사범들이 모여 「여성태권도회」를 창립하였으며, 이는 곧 「태권낭자회」로 명칭을 변경하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였다.

1987년 3월 14일, 수도권에 한정되었던 활동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대한태권도협회의 소식 및 교육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계간지 「태권낭자」를 창간하였다.

「태권도」 제63호

『대한태권도협회 기술심의회에
여성분과위원회 신설』

Taekwondo, Issue 63
“Women’s Subcommittee Established within
the Technical Committee of the Korea
Taekwondo Association”

1987 | 25.7×18.6



1987년 11월, 대한태권도협회(회장 김운용)는 재미교포팀의 김영숙 감독, 오명화 코치, 태권낭자회 등 국내외 여성 사범들과 자리를 함께하였다. 이 대담을 통해 1988년부터 대한태권도협회 기술심의회 내에 여성분과위원회를 신설하기로 결정하였다.

여성분과위원회의 신설은 제도권 내에서 여성 태권도인의 목소리를 공식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큰 상징성을 지닌다.



「태권도」 제68호

『여성분과의 역할 다할터』

Taekwondo, Issue 68

“Women’s Subcommittee Will Completely Fulfill Its Role”

1989 | 25.7×18.7



대한태권도협회여성분과위원
장·태권남자회회장.

88년 한 해는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와 태권도가 시범종목으로 참가함으로써 한국 스포츠, 특히 태권도가 세계속에, 세계인의 기억속에 강하게 부각된 희망찬 한 해였다.

또한 여성태권도인의 한사람으로서 태권도인의 중심조직체인 대한태권도협회내에 여성분과가 신설되어 기대와 희망을 가지게한 한 해이기도 했다.

태권도인의 양적 질적 발전과 함께 여성태권도인의 숫자도 현저히 증가하여 이제는 각 부분에서 나름대로 활동의 영역을 넓혀 가고 있지만 아직은 고립 분산적으로 활동하고 있

는 현상황에서 신설된 여성분과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활동의 중심축의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

우선 여성분과의 모든 활동 내용이 전체적인 태권도 발전에 기여하는 자기 사업내용을 가져야 하며 둘째는 여성태권도인이 처해있는 현실적인 제반 문제를 찾아 이를 해결하고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88서울을법칙을 통해 얻어진 전 세계인의 태권도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세계여성태권도인의 자변 확대와 모든 활동을 체계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구심체가 되도록 노력해야 하며 또한 여성 유단자의 취업문제, 지도자 교육 등 내실 있는 활동을 떠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각종 경기가 펼쳐지는 전국 체전에 태권도 여자부가 조속히 채택되는 문제 또한 시급히 풀어야 할 과제라고 본다.

이는 서울을 중심으로 대도시
시에 밀집하여 있는 여성태권
도 인구 분포를 전국 방방곡곡
에 확산 발전시킬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라고 본다.

여성분과에서는 아직도 여성
태권유단자 인구조차 파악할
수 없는 암울한 시점에서 올해
안으로 기필코 유단자 배출 도
표를 만들고자 한다.

이렇듯 시작이라는 이 시점에서 물론 해야 할 일, 고쳐야 할 일, 추진하여야 할 일 등등 많은 과제를 안고 있는 현상황을 볼 때 앞으로 여성분과를 여성 연맹으로 발전시켜야 된다고 생각한다.

종전에 운영하였던 여성인텔이 건설적이고 진보적인 지식을 속하여 왔더라면 하는 아쉬움도 없이 지난한 무너질 수 밖에 없었던 요인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던 것이 지금과 같이 태권도의 전문적인 여성인재 그리고 애듯한 태권도를 사랑하는 실전 멤버들이 여성분들로 결성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이 해체되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

이제 여성분과의 신설로 여성태권도인의 모든 활동을 이끌고 뒷받침 할 수 있는 토양이 마련되었다면 이 토양을 가꾸고 결실을 맺기까지는 많은 이의 수고와 자양분이 필요하듯 여성태권도인 만이 아닌 모든 태권도인의 관심과 헌달이 있

「태권낭자」 제10호

Taekwon Nangja, Issue 10

1989 | 27.3×20



음력수레

태권 낭자회

초단이상 동호인 70여명
전국 회원 月 1회씩 모여
계간지 발간·기술 연구도



【養生一기지】

「태권낭자」 제18·19호

Taekwon Nangja, Issue 18·19

1991 | 27.5×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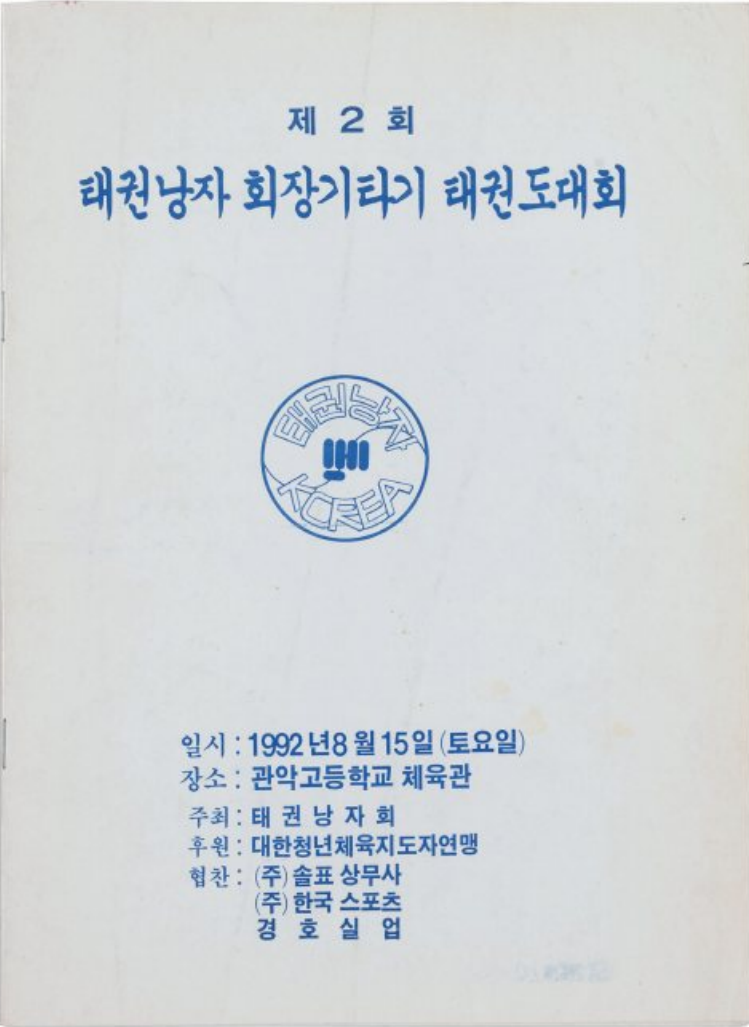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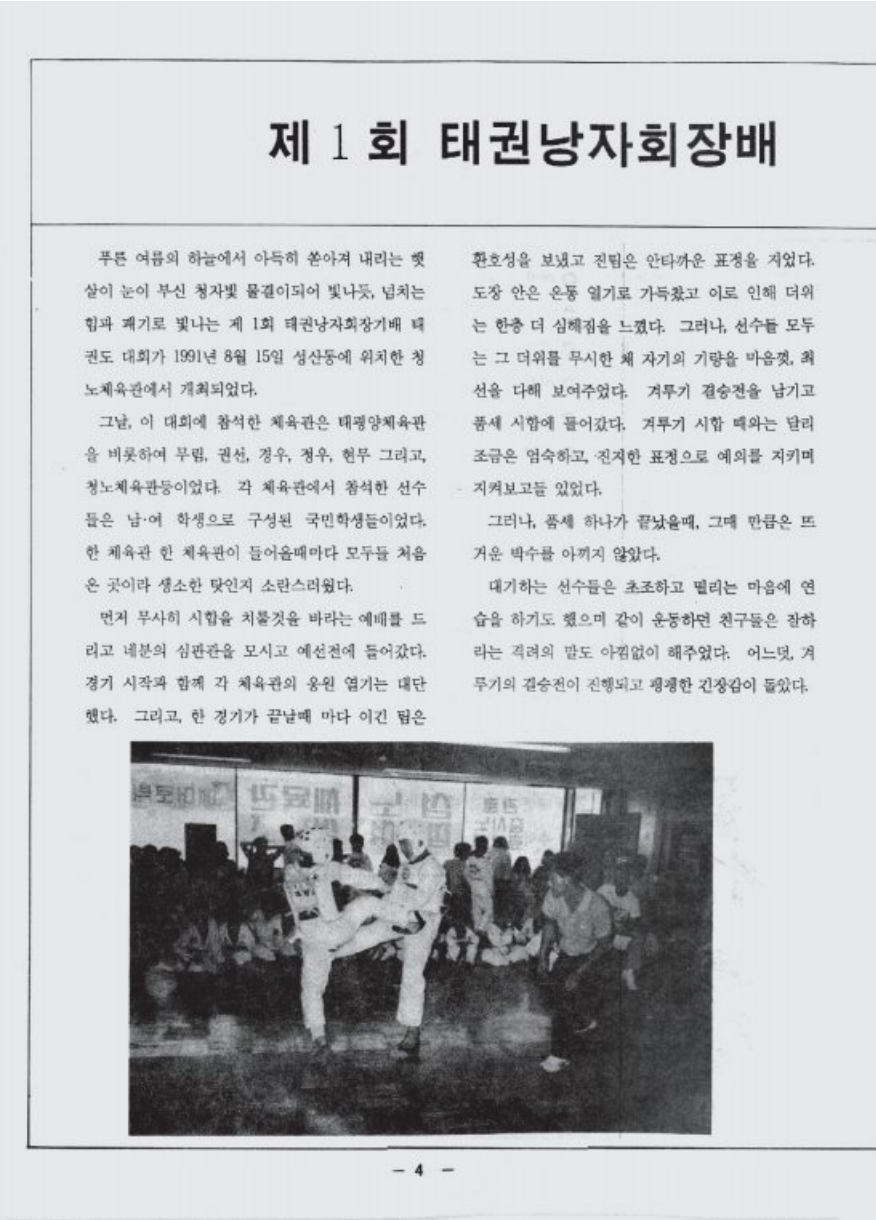
1991년 8월 15일 청노체육관에서 '제1회 태권낭자회장기배 국민학생 태권도 대회'가 개최되었다. 이 대회는 태권낭자회 회원들이 운영하거나 소속된 체육관의 남·여 국민학생 수련생들이 한 자리에 모여 기량을 겨루는 자리였다.

제2회 태권낭자 회장기타기 태권도대회 자료집

Proceedings of the 2nd Korea Women's Taekwondo Association President's Cup Taekwondo Tournament

1992 | 26×19

1992년 8월, 태권낭자회가 주관하는 '제2회 태권낭자 회장기타기 태권도대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대회는 여성 태권도 지도자들이 운영하는 일선 체육관의 수련생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총 12개 체육관에서 200명의 선수가 출전하여 열띤 경합을 벌였다.



「한국여성태권도」 제26호

Korean Women's Taekwondo, Issue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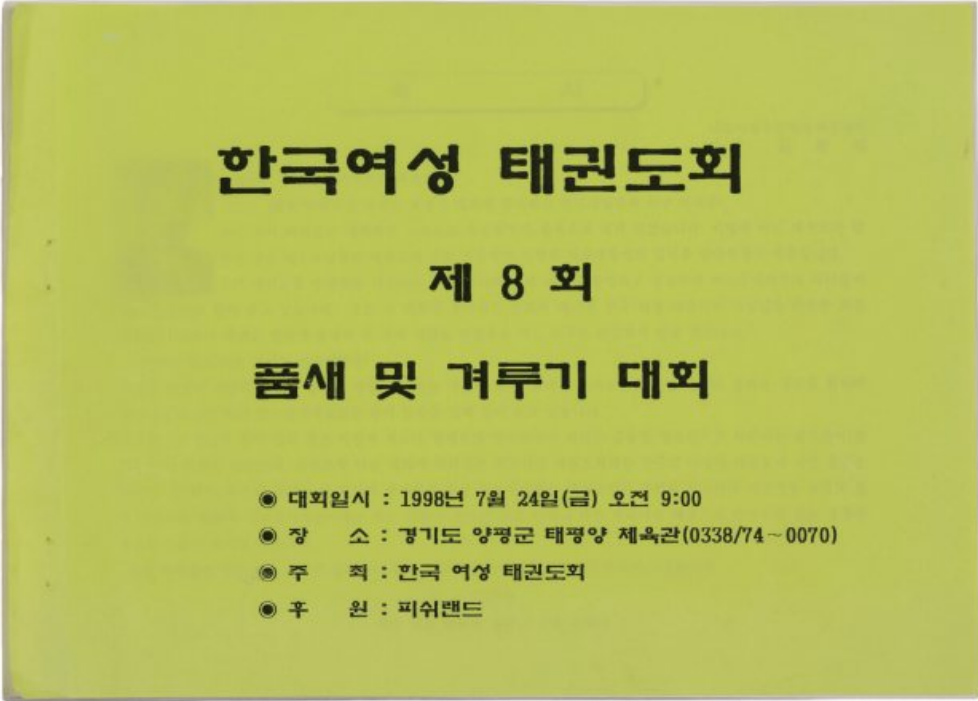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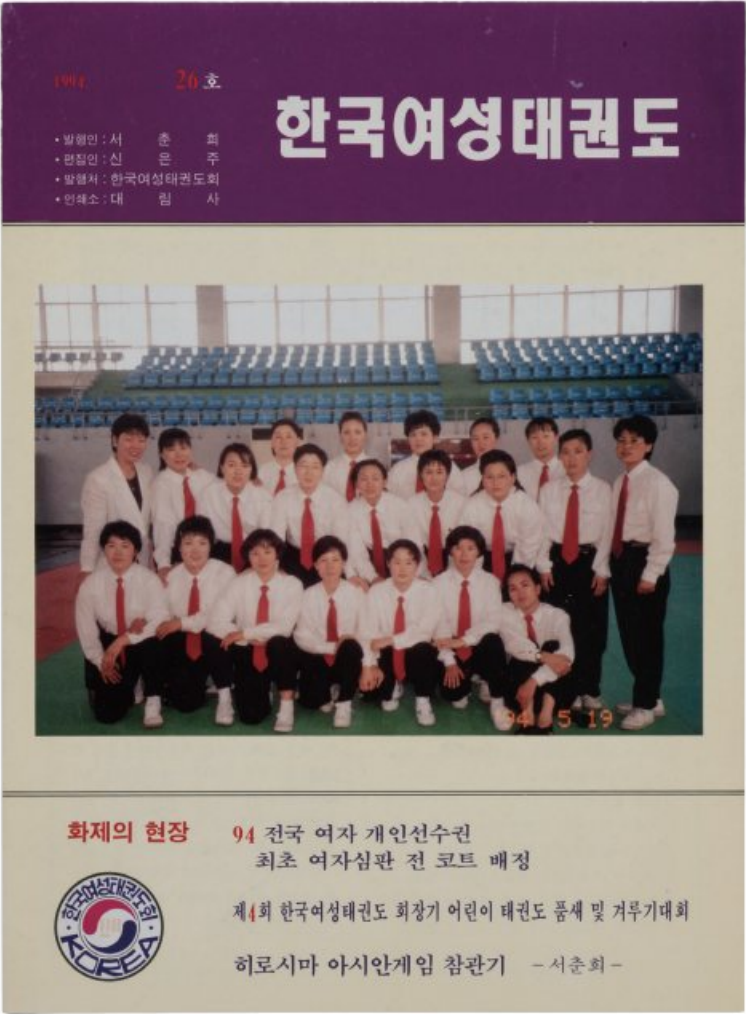
1994 | 26.7×20

1993년 3월 발행된 제25호까지는 「태권낭자」라는 명칭으로 발간되었고, 이후 조직의 명칭이 '태권낭자회'에서 '한국여성태권도회'로 개칭됨에 따라, 1994년 발행된 제26호부터는 잡지명 또한 「한국여성태권도」로 변경되어 출간되었다. 그러나 이 제26호를 마지막으로 해당 계간지는 더 이상 발간되지 않았다.

한국여성태권도회 제8회 품새 및 겨루기 대회
자료집

Proceedings of the 8th Poomsae and Sparring Tournament of the Korea Females' Taekwondo Association.

1998 | 19.3×26.8





태권낭자회 (1988년)



대한태권도협회 김운용 회장과의 간담회 (1989년)



제9회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및 제2회 세계여자태권도선수권대회 안내부를 맡았던 태권낭자회 (1989년)



제2회 태권낭자 회장배 여자선수권 대회 (1991년)



윤보원과 자매결연 태권도 시범 (1989년)

국립태권도박물관 | 기획전시 |

태권낭자

Taekwondo Girls

4부 소녀, 여성 태권도를 이끌다

Part 4: Girls Lead Women’s Taekwondo

국기원 연간 응시자 현황에 따르면 여성 태권도 응시자는 1970년 2,357명에서 1992년 155,584명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여성 태권도는 수련 인구 확대와 함께 전국체육대회 여자부 정식종목 채택, 국제대회 활성화를 통해 경기 스포츠로 자리 잡았으며, 세계선수권대회와 시드니올림픽 등 국제무대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두었다.

한편 여성 상임심판원과 여성 지도자가 등장하고, 대학 태권도학과와 여성 실업팀이 확대되면서 여성 태권도는 전문성과 다양성을 갖춘 분야로 성장하였다. 이처럼 여성 태권도인들은 끊임없는 도전과 연대를 통해 여성 태권도의 지평을 넓혀왔다.

국기원 태권도사범지도자 연수 이수자(1972~1999)
Kukkiwon Taekwondo Instructor Training Program Graduates

년도	급	3급 지도자		2급 지도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1972		504			
:		:	:	:	:
1983		573	2		
1984		297	0		
1985		440	8		
1986		448	7		
1987		515	21		
1988		361	10		
1989		668	5		
1990		406	1		
1991		780	8		
1992		799	27		
1993		676	23		
1994		869	39		
1995		1168	75		
1996		1048	51	70	0
1997		1136	43	100	2
1998		1194	58	65	0
1999		931	27	132	1
여성지도자 수			405		3

According to Kukkiwon’s annual statistics on examinees, the number of female taekwondo test-takers increased sharply between 1970 and 1992, from 2,357 to 155,584. As the training population expanded, women’s taekwondo also secured status as a competitive sport through its inclusion as an official event in the women’s division of the National Sports Festival and the growth of international competitions, achieving outstanding results at events such as the World Taekwondo Championships and the Sydney Olympics. During this period, the emergence of full-time female referees and instructors, together with the expansion of university taekwondo departments and women’s professional teams, helped shape women’s taekwondo into a field marked by greater professionalism and diversity. Through the continuous overcoming of challenges and strong solidarity, women in taekwondo broadened the horizons of women’s taekwondo.

1

여성 태권도 정식종목 채택

Adoption of Women's Taekwondo as an Official Event

1990년대는 여성 태권도가 제도권 스포츠로 자리 잡은 시기였다. 1993년 제74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여자 태권도가 시범종목으로 채택되었고, 1995년에는 정식종목으로 승격되며 여성 태권도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이후 세계선수권대회와 아시안게임 등 국제무대에서 한국 여성 선수들이 뛰어난 성과를 거두며 경쟁력을 입증하였다. 특히 1998년 방콕 아시안게임에서 여자 8체급이 정식 채택되었고, 2000년 시드니올림픽에서는 여성 선수들이 금메달을 획득하며 올림픽 시대를 열었다.

The 1990s were the decade in which women's taekwondo firmly established itself as an institutionalized sport.

In 1993, it was introduced as a demonstration event at the 74th National Sports Festival, and in 1995 it was elevated to an official event, providing a formal institutional foundation for women's taekwondo.

Since then, Korea's female athletes have proven their strength through outstanding results on the international stage, including at the World Taekwondo Championships and the Asian Games. In particular, eight women's weight categories were officially designated at the 1998 Bangkok Asian Games, and in 2000, female athletes captured gold medals at the Sydney Olympics, ushering in the Olympic era for women's taekwondo.



제74회 광주 전국체전 태권도 여자부 시범종목 채택 (1993년)

제74회 전국체육대회 자료집

Proceedings of the 74th National Sports Festiv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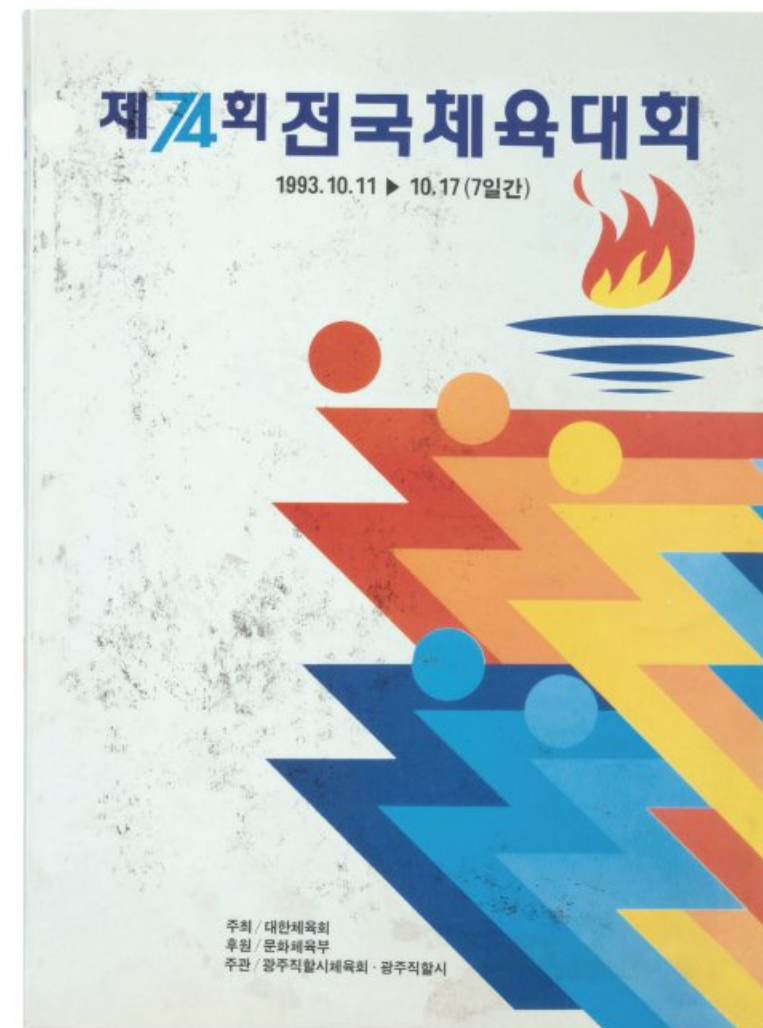
1993 | 25.7×18.8

제74회 광주광역시 전국체육대회에서부터 태권도 여자부 경기가 시범 종목으로 채택되어 진행되었다. 이후 1995년 제76회 전국체육대회부터 정식 종목으로 승격되었다.

이는 1987년 이후 침체 상태에 머물러 있던 한국 여자 태권도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 대한체육회에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결과이며, 4년여 만에 거둔 결실이다.

[체급별 수상자]

- 판급: 김진성 (한체대) • 플라이급: 고승자 (충북체고) • 밴텀급: 진용순 (한체대)
- 페더급: 박경숙 (경희대) • 라이트급: 정은옥 (전남선발) • 웰터급: 이영미 (성신여자대)
- 미들급: 박선미 (상명여자대) • 헤비급: 정명숙 (혜성여고)



『태권도』 제95호
『서울 종합 우승 차지,
올해 처음 실시된
여자부 전남, 광주 강세 보여』

Taekwondo, Issue 95
“Seoul Wins Overall Title; Jeonnam and
Gwangju Dominate the Women’s Division
in the First-Ever Competition”

1995 | 25.7×18.7



제76회 전국체육대회 태권도 종목에서는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여자부 경기가 치러졌다.
이후 1997년 제79회 대회에서는 기존의 여자 일반부 외에 여고부가 정식 종목으로 신설되었다.
이는 여자 태권도의 저변 확대와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 [체급별 수상자]
- 핀급: 양소희 (한체대) • 플라이급: 서미라 (용인대) • 밴텀급: 김은숙 (광주협회)
 - 페더급: 이승민 (경희대) • 라이트급: 진혜윤 (광주협회) • 웰터급: 조항미 (인천시청)
 - 미들급: 박선미 (춘천시청) • 헤비급: 정명숙 (경희대)

경기분석 제76회 전국체육대회 태권도 대회

서울 종합 우승 차지
올해 처음 실시된 여자부 전남, 광주 강세 보여

금년도 전국체전 태권도경기는 10월 2일부터 6일
까지 경북 포항 포항고등학교 체육관에서 개최되었
다.
15개 시도지부와 미국, 캐나다, 호주 등 3개 해외
동포팀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태권도 경기에서는 서
울이 금 8, 은 5, 동 5개의 메달을 따내는 기염을 토
하며 태권도 최강을 자랑했다.
이번 대회에서 개최도인 경북은 금 1, 은 7, 동 9
를 차지하며 종합 2위를 차지하였다.
전년도에 10위에 머물렀던 광주선수단이 선전, 4
위에 올랐고 지난해 11위에 머물렀던 전북 선수단이
5위를 차지해 전남, 광주, 전북이 각각 3, 4, 5위를
마크했다.
시도간의 과열경쟁으로 심판에 대한 항의가 잦아
경기가 중단되는 불상사가 종종 있었으며 응원전도
뜨거웠다.
올해 처음 정식종목으로 채택된 여자부 경기는 인
기를 독차지, 협차고 멋진 기술이 펼쳐질 때마다 관
중들의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여자부 경기에
서는 전남이 금 3, 광주
가 금 2, 은 3을 차지하
며 여자부 강세를 보여
주었다.
전국가대표 합준 선
수가 이번 전국체전을
마지막으로 선수생활을
마감하며 은퇴식을 가졌
다. 마지막 대회인 이번
대회에서 일반부 페더급
금메달을 따낸 합준 선

올해 처음 정식종목으로 경기를 치른 여자부 경기의 체급별 우
승자들

수는 앞으로 태권도 지도자로서 태권도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전국가대표로 88서울올림픽에서 헤비급 은메달을
획득한 이후 현역에서
몰리났던 장운정씨가 경
북 대표로 7년 만에 경
기에 출전해 화제를 모
았다.
장운정 선수는 이번
대회를 대비해 강도높은
훈련을 해왔는데 결승전
에서 부상으로 가권, 은
메달에 머물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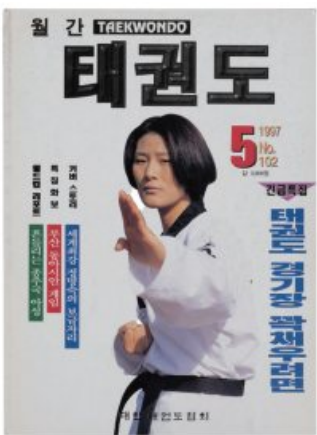
전국가대표 합준 선수가 전국체전을 끝으로 은퇴식을 가졌다.

태권도('95-겨울) • 31

『태권도』 제102호
『'97 종별선수권대회』

Taekwondo, Issue 102
“1997 National Taekwondo Championships”

1997 | 25.6×18.7



1997년 3월, '97 종별선수권대회'에서는 여자부가 신설되어 추진되었다.
대한태권도협회는 여자 태권도 활성화를 위하여 1986년부터 별도로 개최해 오던 '여자개인선
수권대회'를 올해부터 종별선수권대회 내 여자부로 신설하여 통합하였다.
2000년 3월 대회에서는 여중부 대회가 추가 신설되었다.

- [체급별 수상자]
- 판급: 최준정 (경성여실고) • 플라이급: 최유리 (송곡여고) • 밴텀급: 김태정 (송곡여고)
 - 페더급: 김정은 (목포상고) • 라이트급: 류춘희 (고창여고) • 웰터급: 이선영 (강원체고)
 - 미들급: 박선화 (고창여고) • 헤비급: 한현아 (경성여실고)

모두 1,610명 참가, 기량 뽐내
'97 종별선수권대회

중등부 여자부 일반부

▲남중부 예선에서 정명원(구월중)의 원발공격이 강석환(예산중)의 얼굴에 타지고 있다.

'97 종별선수권대회 중등부, 여자부, 일반부 경기
(3월 11~14일 올림픽체조경기장)는 중등부 1,196명,
일반부 103명, 여자부 301명 모두 1,610명이 참가함으로써
참가선수들의 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기량도 눈에 띄게
향상되고 있음을 확인한 대회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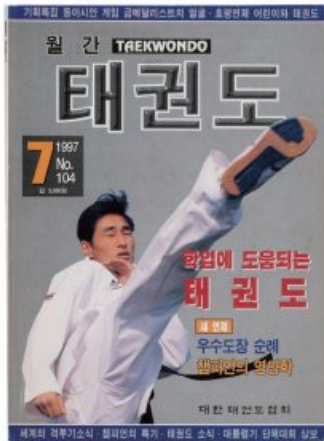
태권도 ... 67

『태권도』 제104호

『소년체전』

Taekwondo, Issue 104
“Youth Sports Festival”

1997 | 25.6×18.7



1997년 5월에 개최된 제26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는 여중부 경기가 시범 종목으로 새롭게 신설되었다. 시범 운영을 통해 저변을 확인한 여중부 경기는 이후 2000년 제29회 전국소년체육대회부터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었다

소년체전

■ 입상자 전적

남 중 부

여 중 부

체급	순위	성명	소속학교	전적
민급	1	김신정	남주중	결승 김신정 4:3 고승우
	2	고승우	강릉중	준결승 고승우 6:2 최동철
	3	최동철	오성중	김신정 5:4 신상우
플라이급	1	이영욱	신암중	결승 이영욱 4:3 함규환
	2	함규환	남주중	준결승 함규환 4:1 고성범
	3	고성범	구월중	이영욱 2:0 오민수
반급	1	김정근	한성중	결승 김정근 1:0 이순재
	2	이순재	연행중	준결승 이순재 4:3 이진우
	3	이진우	경북제중	김정근 2:2 조희래
페더급	1	이수봉	문암중	결승 이수봉 4:3 오성우
	2	오성우	신암중	준결승 오성우 7:3 강석단
	3	박민철	평원중	이수봉 5:1 박민철
라이트급	1	김대진	사당중	결승 김대진 4:2 김준형
	2	김준형	군산동중	준결승 김준형 9:4 최한신
	3	박양배	남주중	김대진 4:3 박양배
L 웰터급	1	임지관	배암중	결승 임지관 2:1 노현우
	2	노현우	신암중	준결승 노현우 3:1 박현호
	3	박현호	동남중	임지관 8:4 신동기
웰터급	1	류준수	태성중	결승 류준수 9:5 박재우
	2	박재우	대동중	준결승 박재우 5:3 유지상
	3	이신형	산곡중	류준수 10:3 이신형
L 미들급	1	김승영	광주제중	결승 김승영 8:7 오영우
	2	오영우	창주중	준결승 오영우 4:3 최우주
	3	최우주	군산동중	김승영 6:4 임대규
미들급	1	김일구	강원중	결승 김일구 5:2 정두상
	2	정두상	오현중	준결승 정두상 5:5 이상민
	3	허도식	동동중	김일구 6:5 허도식
L 헤비급	1	문성일	대전제중	결승 문성일 4:2 권형태
	2	권형태	경수중	준결승 권형태 2:2 신철
	3	신철	덕현중	문성일 10:5 김도훈
헤비급	1	임동일	이수중	결승 임동일 5:2 이원영
	2	이원영	오성중	준결승 이원영 6:6 손정우
	3	박경문	남주중	임동일 11:4 박경문

* = 우세승

체급	순위	성명	소속학교	전적
민급	1	김새롬	구문중	결승 김새롬 7:5 최인숙
	2	최인숙	관동중	준결승 최인숙 7:1 박진민
	3	강옥주	청양중	김새롬 7:0 강옥주
플라이급	1	이혜영	국산중	결승 이혜영 2:0 박효주
	2	박효주	역삼중	준결승 박효주 6:4 이리희
	3	이리희	계산여중	이혜영 7:1 서희정
반급	1	이민혜	윤곡중	결승 이민혜 4:4 김신혜
	2	김신혜	대원여중	준결승 김신혜 1:0 정지영
	3	정지영	부흥중	이민혜 6:0 이심혜
페더급	1	강지나	법성중	결승 강지나 5:1 이지혜
	2	이지혜	부인중	준결승 이지혜 7:0 실지숙
	3	김은정	군산중앙여중	강지나 7:0 김은정
라이트급	1	이지미	덕성중	결승 이지미 5:3 김은선
	2	김은선	동산여중	준결승 김은선 6:4 전윤미
	3	전윤미	군산중앙여중	이지미 3:1 신은선
L 웰터급	1	이민중	고양중	결승 이민중 4:1 양지은
	2	양지은	신관중	준결승 양지은 7:1 김현희
	3	김현희	군산여중	이민중 5:0 김희영
웰터급	1	장은숙	양정여중	결승 장은숙 2:1 양신혜
	2	양신혜	역삼중	준결승 양신혜 2:2 하원진
	3	하원진	금정여중	장은숙 4:0 김아름
L 미들급	1	김혜미	당곡중	결승 김혜미 4:0 장영희
	2	장영희	동여중	준결승 장영희 5:0 박주희
	3	박주희	홍해운	김혜미 1:0 우정선
미들급	1	배은주	국산중	결승 배은주 6:1 정효정
	2	정효정	법성중	준결승 정효정 13:11 김미라
	3	문장미	만수여중	배은주 4:0 문장미
L 헤비급	1	이혜진	동여중	결승 이혜진 8:4 홍지연
	2	홍지연	계산여중	준결승 홍지연 6:5 박조은
	3	박조은	부인중	이혜진 5:0 김문희
헤비급	1	최재희	부곡여중	결승 최재희 4:3 정혜경
	2	정혜경	자양중	준결승 정혜경 4:0 김창자
	3	김창자	나전중	최재희 4:0 김창자

* = 우세승

태권도 · · · 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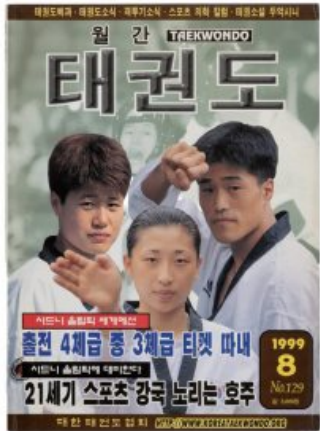
『태권도』 제129호

『제34회 대통령기 전국 단체
대항 태권도대회』

Taekwondo, Issue 129

“The 34th Presidential Cup National Team
Taekwondo Championship”

1999 | 25.5×18.7



제34회 대통령기 전국 단체대항 태권도대회가 지난 6월에 개최되었다. 이번 대회에서는 여자 태권도의 경기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여고부, 여대부, 일반부의 구분 없이 모두 통합한 여자 부를 신설하여 경기를 치렀다.

경기 분석

서울체육대학교(정복)와 중앙고교 박진호가 결승전에서 치열한 접전을 펼치며 원패를 목전에 뒀다. 결승전이 0-1로 승리를 거두었다.

신설된 여자부 대통령기 항쟁에 관심집중

경희대 최강팀 먼모 자랑

제 34회 대통령기 전국 단체대항 태권도대회
(6월 18~19일 · 포항실내체육관)

최고의 전통을 자랑하는 제 34회 대통령기 대회가 지난 6월 18일과 19일 이틀간 경북 포항에서 개최됐다.

이번 대회에는 남고부 43개팀, 남대부 19개팀, 남자일반부 6개팀, 여자부 2개팀 등 모두 88개팀이 출전한 가운데 부별 최강팀 자리를 놓고 박진갑 넘친 5명 단체전 경기가 펼쳐졌다.

특히 이번 대회에는 여자부의 경기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여고, 여대, 일반부 구별없이 이를 통합한 여자부를 신설해 경기를 치렀는데 오정희, 김유진, 박은희, 신경현, 정진영으로 구성된 경희대가 패기의 고등부와 노련미의 실업팀을 누르고 승리를 거두며 최초의 우승기를 가져가는 감격을 맛보았다.

남자고등부는 서울체고가 4연패의 위업을 달성하며 고등부 최강의 자리를 고수했다. 이어 경상공고, 선인고가 각각 종합 2위와 3위를 차지했다.

대학부는 용인대와 경원대가 각각 결승에 올라 치열한 접전 끝에 3:2로 용인대가 역전승을 거두며 대통령기 사상 처음으로 우승기를 차지했고, 일반부는 지난해 우승팀인 삼성물산이 에스원으로 이름을 바꿔 출전, 우승을 차지함으로써 사실상 2연패를 달성하며 최강팀으로서의 면모를 자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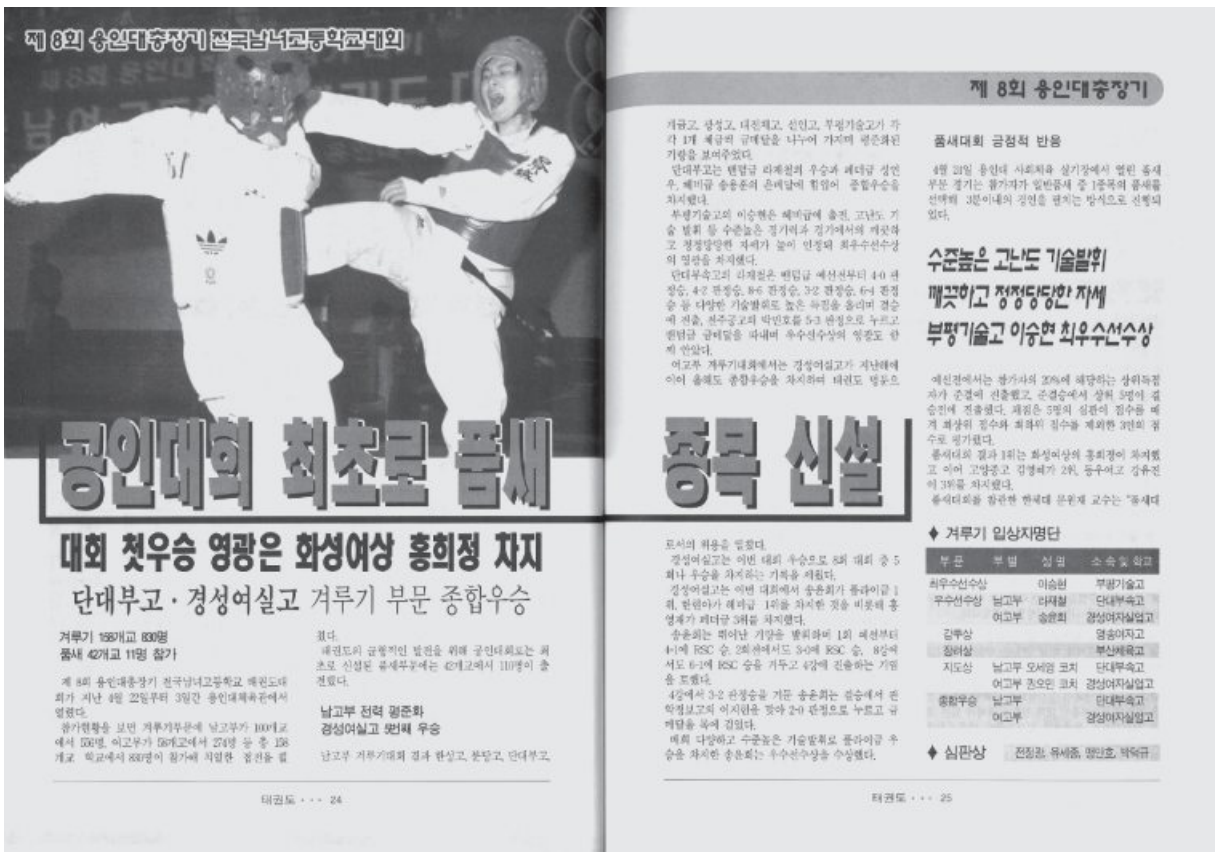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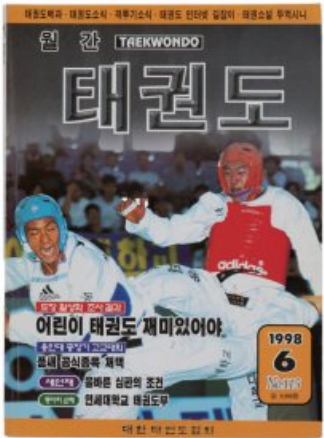
대통령기 대회는 체급에 관계없이 각팀의 대표 선수 5명이 출전해 경기를 치러 3승을 먼저 거둔 팀이 승리를 차지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승리를 예측할 수 없는 가운데 박진갑 넘친 경기를 펼쳤다.

각팀에서는 가벼운 체급의 선수들이 힘에 밀리는 데다 특점 강도가 약하기 때문에 또, 무거운 체급은 스피드면에서 뒤떨어지기 때문에 대부분 중간체급 즉, 페더, 라이트, 웰터급 선수를 전진에 배치하는 경향을 보였다.

「태권도」 제115호
『제8회 용인대학교총장기
타기 전국남·여고등학교
태권도대회』

Taekwondo, Issue 115
“The 8th Yongin University President’s
Cup National High School Taekwondo
Tournament for Boys and Girl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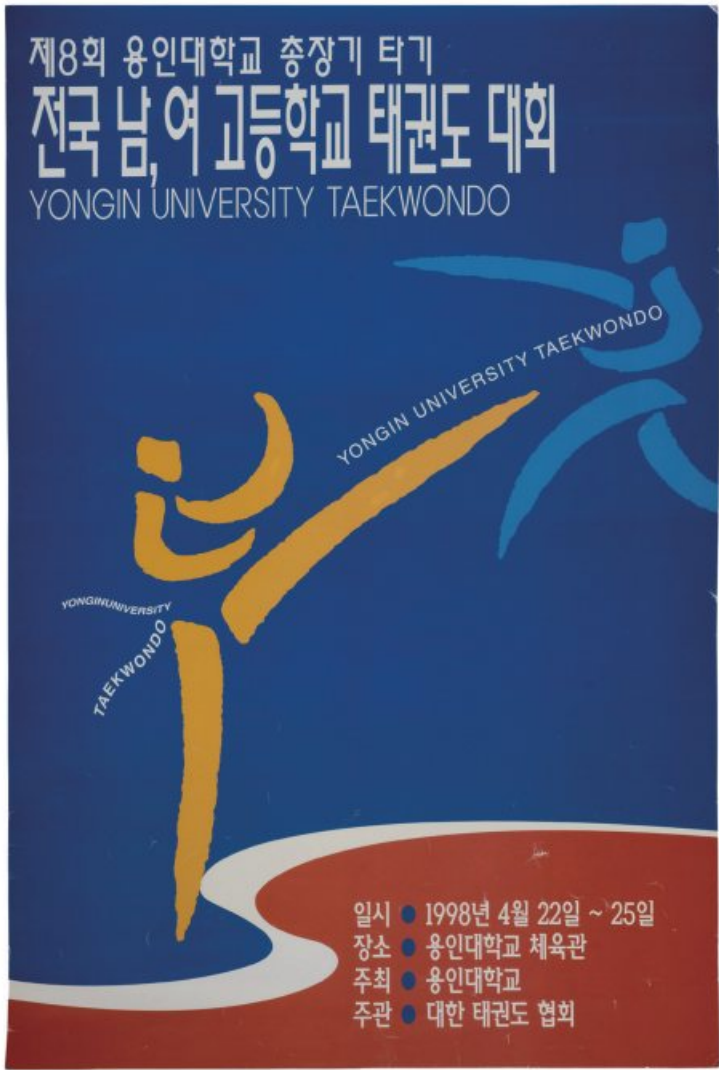
1998 | 25.6×18.7



제8회 용인대학교총장기타기 전국남·여고등학교
태권도대회 포스터

Poster for the 8th Yongin University President’s Cup National High School
Taekwondo Tournament for Boys and Girls

1998 | 63.6×43



제12회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 제5회 여자세계태권도
선수권대회 박경숙의 ID카드

ID Card of Park Gyung-suk for the 12th
World Taekwondo Championships and
the 5th World Women's Taekwondo
Championships

1995 | 15.2×10.4×38

1995년 11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된 제5회 여자세계선수권대회에 참가한 박경숙(라이트급)
선수의 ID카드 기록이다.
이번 대회에서 한국 여자부 선수단은 금메달 5개, 은메달 2개를 획득하며 압도적인 기량으로 종
합 우승을 달성하였다.

[제공별 출전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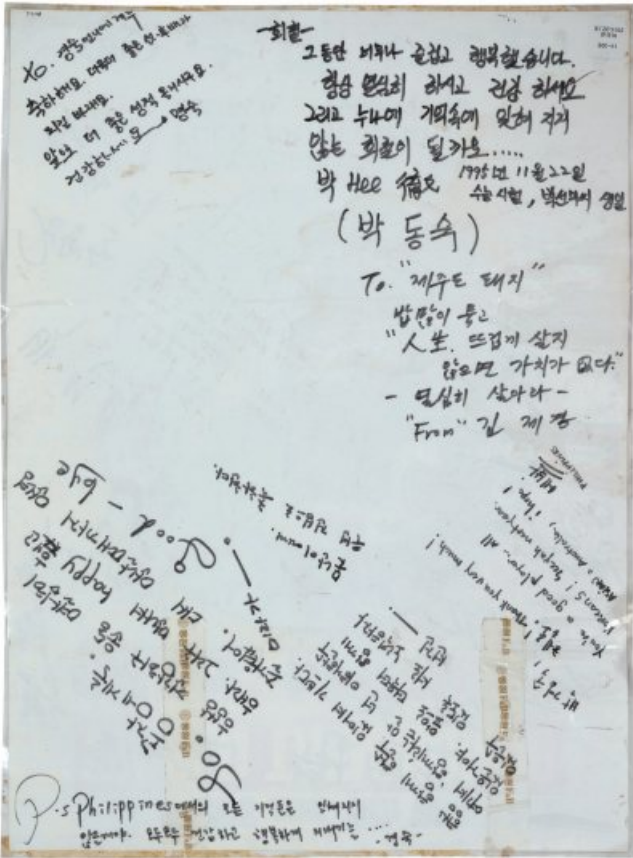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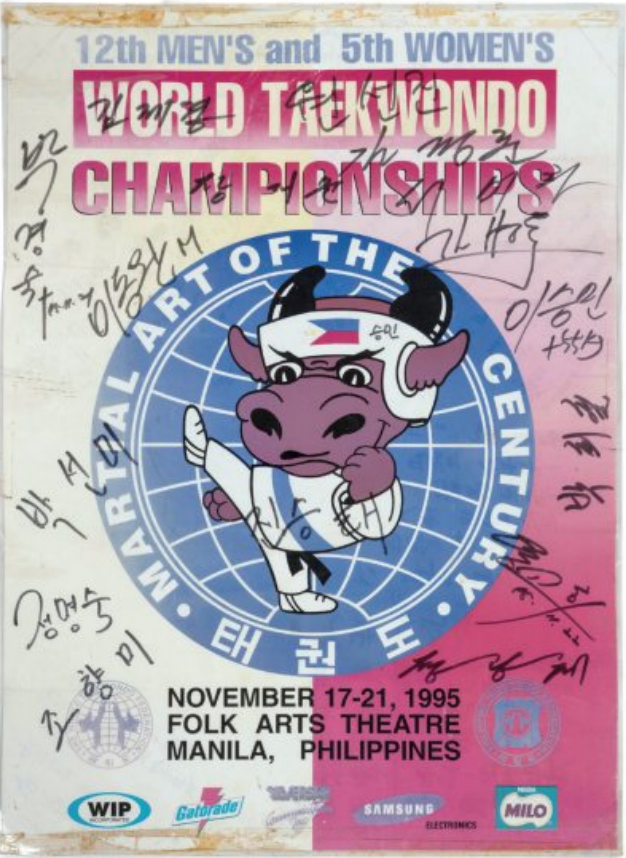
- 판급: 양소희 (은메달) • 플라이급: 서미라 • 밴텀급: 원선진 (금메달) • 페더급: 이승민 (금메달)
- 라이트급: 박경숙 (금메달) • 웰터급: 조향미 (금메달) • 미들급: 박선미 (은메달)
- 헤비급: 정명숙 (금메달)



제12회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
제5회 여자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포스터

Posters for the 12th World Taekwondo Championships and the 5th World
Women's Taekwondo Championships

1995 | 61×45



박경숙 표창장

Park Gyung-suk's Commendation Certificate

1990 | 45.3×57

제3회 월드게임 태권도선수권대회에 참가한 박경숙 선수가 받은 표창장



박경숙 체육훈장 백마장 훈장증

Park Gyung-suk's Order of Sports Merit (Baekma Medal) Certificate

1994 | 45×56.2

제4회 세계여자태권도선수권대회에 참가한 박경숙 선수가 받은 체육훈장 백마장 훈장증



「태권도」 제98호
『제1회 세계주니어태권도
선수권대회』

Taekwondo, Issue 98
“The 1st World Junior Taekwondo
Championships”

1996 | 25.8×18.8



1996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최된 제1회 세계주니어태권도선수권대회는 전 세계 차세대 태권도 유망주들이 실력을 겨루는 첫 번째 공식 무대였다.
한국 대표팀은 남녀 각각 8체급에 출전하였으며, 여자부에서 금메달 4개를 획득하며 남녀 종합 우승을 달성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체급별 출전자]

- 판급: 강지현 • 플라이급: 박경은 (금메달) • 밴텀급: 송민주 • 페더급: 주혜원
- 라이트급: 이승의 (금메달) • 웰터급: 이선희 (금메달) • 미들급: 김미영 (금메달)
- 헤비급: 유승아

제1회 세계주니어 태권도선수권대회 페넌트

Pennant of the 1st World Junior Taekwondo Championships

1996 | 26.5×19



대회소식

제1회 세계 주니어 태권도 선수권 대회



- 장소 : 스페인 바르셀로나
- 참가국 : 55개국
- 참가선수 : 470명
- 기간 : 96년 6월27일~6월30일

96년도 3월 한국 중·고등학교 태권도 연맹 정기 총회가 열렸다. 제1회 세계 주니어 태권도대회가 개최된다는 반가운 소식이었다.

이제 대표선수 선발과 태권도 종주국 선수로서 명예와 위상을 높여 국위를 선양하는 과제가 남은 것이다.

대표선수 선발전을 통하여 남, 여 각 체급 1명씩 16명을 선발하여 임원과 선수들이 혼연일치하여 강화훈련을 예정대로 마치고 필승의 신념으로 장도에 오르게 되었다.

우리 일행은 6월25일 10시 05분 김포국제공항을 떠나 목적지인 스페인 바르셀로나로 향하였다. 간 여행 끝에 목적지인 바르셀로나 공항에 도착하니 어둠이 깔려 있었다. 대기중인 버스를 이용하여 약 30분거

리에 위치한 HOTEL에 도착하였다. 이곳 숙소에는 세계 연맹임원 및 각국 선수단으로 초만원을 이루고 몇나라는 방이 모자라 숙소를 옮기는 등 무척 어수선한 분위기였다. 장거리 여행에 지친 선수들은 피로한 모습으로 방배정을 기다리고 있었다. 약 1시간 정도 후 방배정이 되었다. 로비에서 단장님의 말씀과 필승을 약속하며 취침시간을 가졌다.

26일 오전 시간차이와 현지적응을 위하여 가벼운 운동으로 몸을 풀고 숙소에서 휴식을 취했다. 오후에는 경기가 열리는 Palacio-Deporte(팔라시오-데포르메) 체육관으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운동을 하고 교민회에서 배풀어 주는 저녁 만찬에 초대받아 한식으로 저녁식사 후 숙소에서 휴식을 취했다.

27일 드디어 결전의 날이 왔다. 남, 여부 판급과 페더급 경기가 있었다.

두 체급 4명의 선수는 07시 체제를 무사히 마치고 임원들과 경기장으로 향했다. 도보로 약 30분 정도의 거리에 위치한 체육관은 8,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아담한 경기장이었다. 입장식에 이어 어린이 시범,

「태권도」 제104호
『97년 부산 동아시아게임
금메달리스트들』

Taekwondo, Issue 104
“Gold Medalists at the 1997 Busan East
Asian Games”

1997 | 25.6×18.7



1997년 부산에서 개최된 제2회 동아시아 경기대회(East Asian Games) 태권도 종목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며 한국의 위상을 높인 여자부 주역들을 소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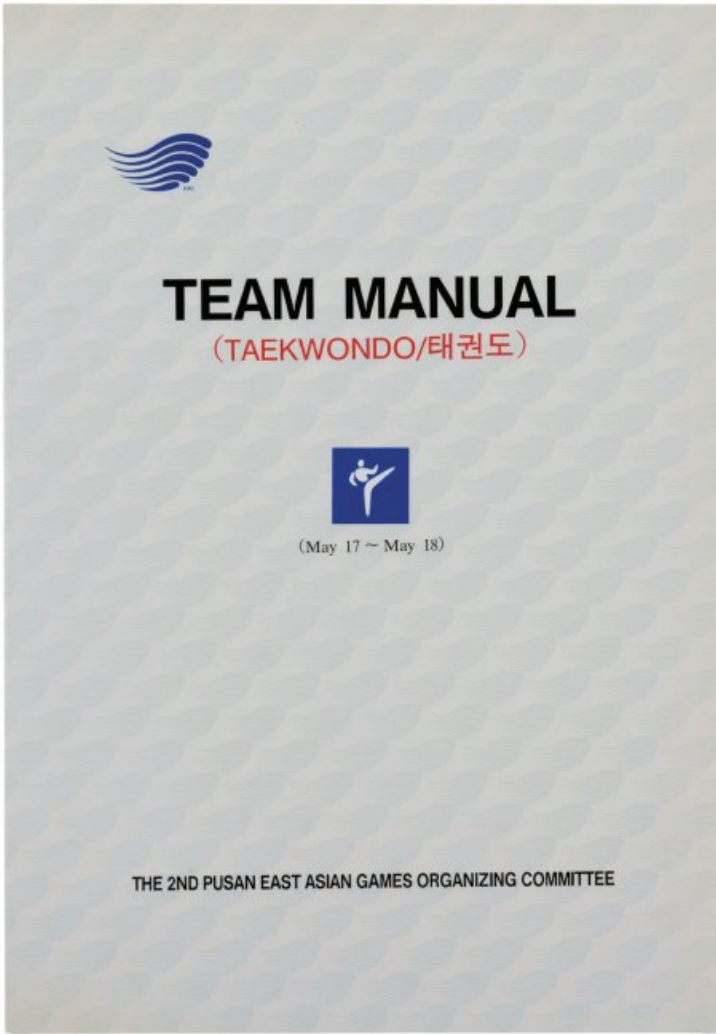
[체급별 금메달 수상자]

- -49kg급: 심혜영 (리라공고) • -57kg급: 이승민 (삼성물산) • +67kg급: 김윤경 (상명대)

제2회 부산 동아시아게임 태권도팀 매뉴얼

2nd Busan East Asian Games Taekwondo Team Manual

1997 | 25.7×17.7



97부산동아시아게임
금메달리스트들

8개 체급 중 7체급 휩쓸어

제2회 부산 동아시아 경기대회 태권도 경기는 올림 픽체급으로 치러져 남녀 각 4개 체급, 모두 8개 체급의 금메달리스트들이 탄생했다.
8개 체급 가운데 7개 체급은 한국선수들이 휩쓸었지만 여자 -67kg급은 대만의 슈친링이 우승의 영광을 안았다.
한국은 이 동아시아 경기대회에 대표 1·2진을 내보내지 않고 평가전을 치러 구성된 대표 3진을 출전시켰으면서도 거의 90%에 육박하는 우승율을 나타냈다.
한국의 금메달리스트 가운데에는 애틀 16살의 고교생선수인 핀급의 심혜영(리라공고)이 있는가 하면 93년, 95년 세계선수권 2연패의 관록을 자랑하는 여자 57kg급의 이승민(삼성물산)의 얼굴도 보인다.
금메달리스트들이 어떤 선수들인지 살펴보기로 한다.

유일한 외국인 금메달리스트
여자 -67kg급 대만의 슈친링

여자 -67kg급에서 금메달을 따낸 대만의 슈친링은 태권도에 출전한 외국인 선수 가운데 단 한사람의 우승자다.『이번 대회에서의 우승으로 태권도 종주국인 한국의 벽도 넘을 수 있음을 확인하게 되어 기쁩니다.』
대만은 태권도의 강국이다. 어쩌면 대만은 한국 못지않게 태권도가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기를 열망하고 있었던 나라일지도 모른다.
국제사회에서의 고립을 탈피하기 위해 올림픽, 아시안 게임 그리고 각 종목의 세계선수권 등에서 좋은 성적을 올리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던 하나 위낙 인구가 많지 않아 뜻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있는 대만은 중점종목 육성에 힘을 기울여왔다. 그리고 태권도가 말로 바로 올림픽 등 국제경기에서 대만의 우승 가능성이 있는 종목으로

▶우승을 차지하고 난 뒤
꼭여 금메달을 들고
시상대에서 대만의 NOC
(국가 올림픽 위원회)기에
거수강제하는 슈친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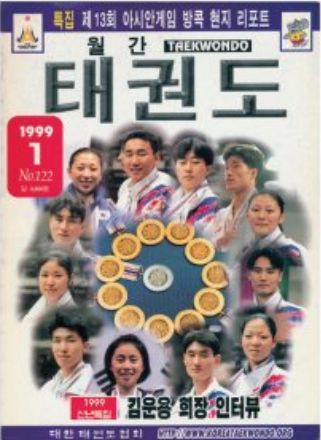
로 여겨 그동안 힘써 키워왔으며 슈친링도 태권도 열리트 육성 추진사업의 열매라고 할 수 있다.
전통적인 그들 고유의 무술, 유수를 바탕으로 태권도 기술개발에도 힘쓰고 있는 대만은 특히 여자부가 강하다.
슈친링은 '94 히로시마 아시안게임 그리고 '95 세계선수권에서 은메달에 머물렀으나 이번 우승을 계기로 2000년 시드니 올림픽에서의 금메달 획득에 도전하겠다는 아마도 슈친링에게 제2회 부산 동아시아경기대회는 가장 잊지 못할 대회가 될 것 같다.

태권도 · · · 18

「태권도」 제122호
『제13회 방콕 아시안게임』

Taekwondo, Issue 122
“The 13th Bangkok Asian Games”

1999 | 25.6×18.7



1996년 12월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제15차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 총회에서 태권도가 1998년 방콕 아시안게임의 정식 종목으로 확정되었다.

특히 여자부 8체급이 정식 종목으로 신규 채택되어 태권도의 위상을 높이고 여성 태권도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였다.

[체급별 출전자]

- 판급: 장정은 (금메달) • 플라이급: 심혜영 • 밴텀급: 이지은 (금메달) • 페더급: 정재은
- 라이트급: 이선희 (은메달) • 웰터급: 조향미 (금메달) • 미들급: 이희영 (금메달)
- 헤비급: 정명숙 (금메달)

제13회 방콕아시안게임 한국대표단 기념배지

Commemorative Badge of the South Korean Delegation to the 13th Bangkok Asian Games

1998 | 2.5×1.7



여자부(WOMEN)

▲판급 = 「태권도 매트」의 여우」인 장정은

2차대전 때 아프리카전선에서 영국군을 괴롭힌 독일기갑군단의 톰뎀원수를 「사막의 여우」라고 부른다면 장정은은 「태권도 매트의 여우」다.

아무리 판급이라 해도 장정은은 키 153cm는 꽤 작은 편이다.

그 작은 장정은이 비교적 장신인 상대선수들을 부지런히 치고는 빠지면서 금메달을 거머쥔다.

첫 경기인 8강전에서 요르단의 탈후니를 1-0으로 힘겹게 이긴 장정은은 준결승에서도 타이페이의 치를 역시 어렵사리 1-0으로 물리쳐 코칭스태프의 간을 태우며 결승진출을 이룩했다.

우승후보로 꼽혔던 타이페이의 치는 실재없이 빠른 발놀림으로 위협했으나 장정은은 이에 말려들지 않고 1라운드에서 정신없이 들타거리면서 이 1점을 끝까지 지키는 데 성공했다.

결승에서도 장정은은 베트남의 구옌으로부터 2라운드에 원발되자기로 1점을 따고는 이 1점을 결승점으로 만드는 데 성공함으로써 금메달을 움켜쥐었다.

▲플라이급 = 4강의 실력이 백중(白仲= 기술이나 지식 따위가 서로 엇비슷해서 우열을 가리기 힘든 것)했던 체급이다.

이 체급은 4강의 실력이 백중(白仲= 기술이나 지식 따위가 서로 엇비슷해서 우열을 가리기 힘든 것)했던 체급이다. 우승자인 타이페이의 탕은 첫 경기인 8강전에서는 일본의 호프 히타케나가 미나코를 7-1로 가볍게 물리쳤으나 준결승전에서는 같은 동족인 중국의 유안과 3-3 타이틀 이룬 뒤 우세승으로 어렵사리 결

승진출을 이룩했다.

한편 다른 준결승에서는 인도네시아의 왕사가 태국의 신라파잔에게 3-3 우세승을 거두었으나 관중들의 열광적인 성원을 등에 업은 태국측의 강력한



▲판급의 장정은(오른쪽)이 베트남의 구옌에게 헛차기를 성공 1-0으로 판정승을 거두었다.

판정불복 소청이 받아들여지는 바람에 결과는 뒤집어져 신라파잔에게 승리가 선언됐다. 결승에서 타이페이의 탕과 태국의 신라파잔은 3-3을 기록했으나 탕에게 우세승이 돌아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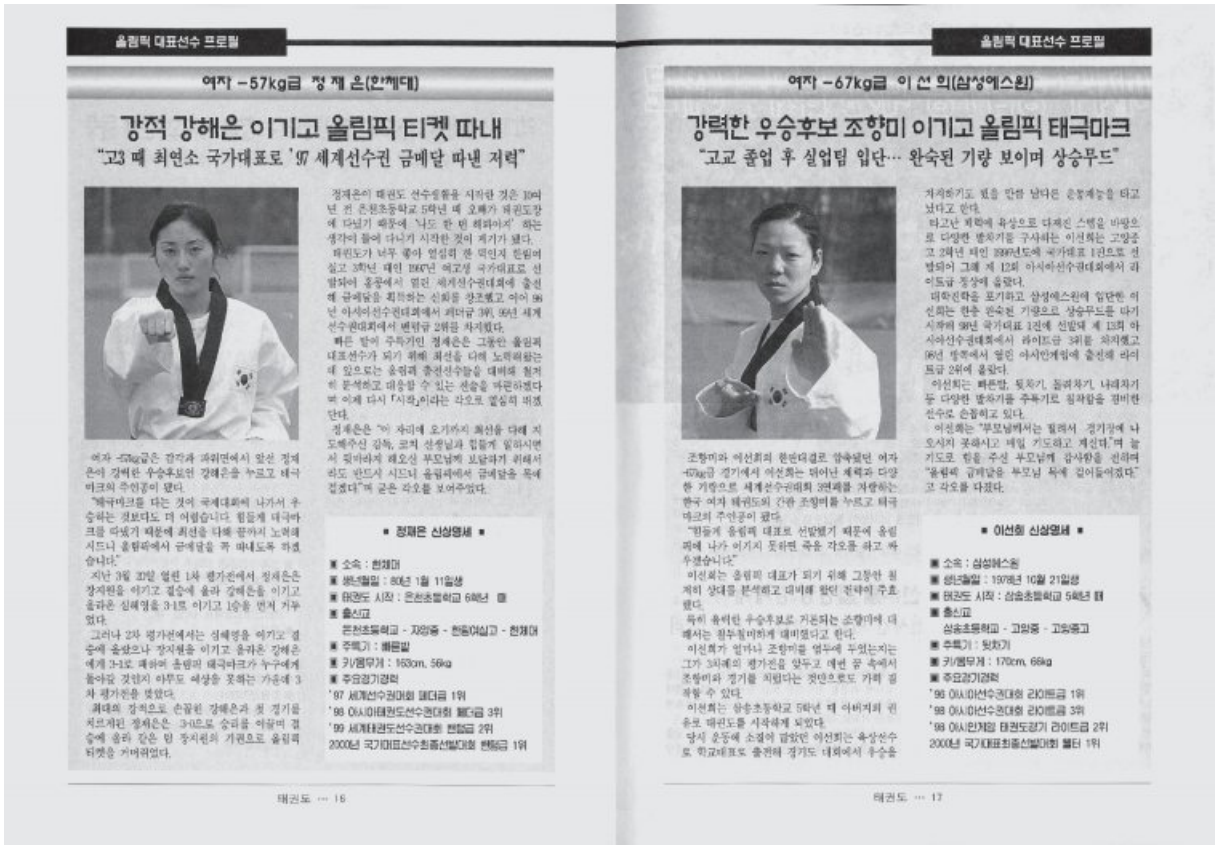
▲밴텀급 = 대진운과 경기운 좋았던 이지은

앞들려차기와 앞글후리기 등 단발공격과 찬스를 잡으면 반격이 날카로운 이지은에게 이번 대회에서는 대진운과 경기운도 따랐다.

『태권도』 제139호 『2000년 시드니 올림픽 대표 선수』

Taekwondo, Issue 139
“2000 National Taekwondo Championships
by Catego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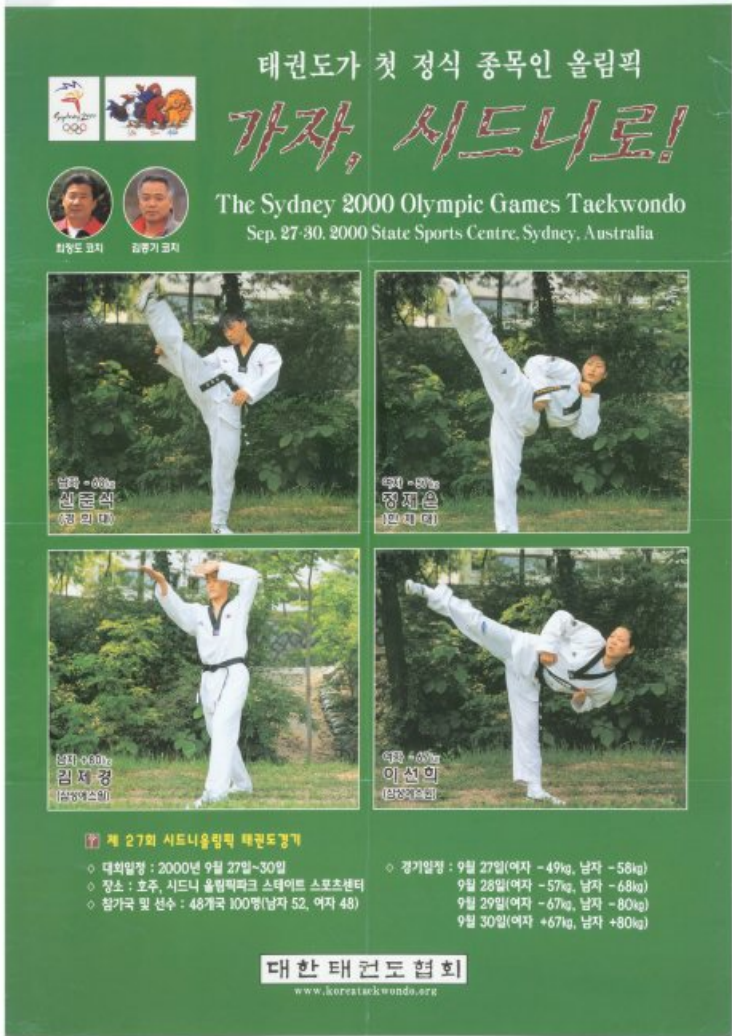
2000 | 255×18.7



제27회 시드니올림픽 태권도 정식종목 기념 태권도 국가대표팀 포스터

Poster Featuring the National Taekwondo Team, Commemorating the 27th
Sydney Olympics, Where Taekwondo Was an Official Event

2000 | 71.9×51



제27회 시드니올림픽 태권도 기념 주화

Commemorative Coin for Taekwondo at the 27th Sydney Olympics
2000 | 6.5×9.7



제27회 시드니올림픽 태권도 배지

Taekwondo Badge for the 27th Sydney Olympics
2000 | 2.7×3.8



2 태권도의 다양성, 여성이 이끈다

Women Drive the Diversification of Taekwondo

1990년대 여성 태권도인은 선수 활동을 넘어 심판·지도자·해외 지도·시범·학문 분야로 활동 영역을 넓혀 갔다. 여성 상임심판원이 처음 선발되었고, 여성 심판들은 국내외 대회에서 활약하며 전문성을 인정받았다. 또한 여성 지도자들은 국가대표 코치와 실업팀 감독, 해외 지도자로 활동하며 여성 태권도의 국제화에 기여하였다.

대학 태권도학과 신설과 선수층 확대는 여성 지도자와 연구 인력의 성장을 이끌었으며, 여성 실업팀 창단과 국제대회 성과는 여성 태권도의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이처럼 1990년대는 여성 태권도인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며 태권도 발전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한 시기였다.

In the 1990s, female taekwondo practitioners expanded beyond competition into refereeing, coaching, overseas instruction, demonstrations, and academic research. The first female standing referees were appointed during this period, and they earned professional recognition by officiating at major domestic and international competitions. Female instructors also contributed to the internationalization of women's taekwondo, serving as national team coaches, professional team managers, and overseas instructors.

At the same time, the establishment of university taekwondo departments and growth of the athlete pool supported the development of female instructors and researchers, while the formation of women's professional teams and success at international events highlighted the growth potential of women's taekwondo.

Thus, the 1990s was a period in which female taekwondo practitioners took on active roles across many fields and firmly established themselves as key pillars in the sport's development.

대한태권도협회 등록된 겨루기 감독 및 코치현황(1996년~1999년)

Status of Registered Sparring Coaches and Instructors at the Korea Taekwondo Association

년도	직위	감독		코치	
		남자	여자	남자	여자
1996		161	4	273	8
1997		329	7	159	5
1998		260	6	317	9
1999		231	5	375	11
계		981	22	1,124	33

『태권도』 제73호 『여자 상임심판원 이정연·김혜연씨』

Taekwondo, Issue 73
“Women's Permanent Referees Lee Jeong-yeon and Kim Hye-yeon”

1990 | 25.7×18.6



『태권도』 제73호 『태권도 시범으로 동구권을 순회하고』

Taekwondo, Issue 73
“Touring the Eastern Bloc with Taekwondo Demonstrations”

1990 | 25.7×18.6

1990년 5월, 세계태권도연맹은 태권도를 통한 민간 외교와 저변 확대를 위해 소련, 불가리아, 헝가리 등 당시 공산권 3개국에 총 19명으로 구성된 태권도 시범단을 파견하였다. 국기원 시범분과위원장 이규형 코치와 함께 시범요원으로 여성 시범단 배은정, 김경숙이 참여하였다.



▲시범단 명단

단장	장 : 이계광(국기원 이사)
감독	독 : 김중영(국기원 심사분과위원장)
섭외	외 : 박재욱(세계태권도연맹 사무차장)
체육부대표	윤승길
코치	치 : 이규형(국기원 시범분과위원장)
시범요원	이종관 배은정(여)
	최봉호 김경숙(여)
	김충석 김진우
	장 권 김홍주
	최광근 이광로
	이춘우 김성진
	남승현 이의정

까지도 사회주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여실히 눈에 보였다.

또한 대국답지 않게 이곳은 생필품을 구입하기가 여간 힘들지 않다고 한다. 일반 시민들은 통제된 생활을 하기 때문에 물품을 구입하려고 배급 물품을 파는 상점 앞에서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특히 이곳은 채소와 과일도 구입하기가 무척 힘들다고 했다.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너무나 대조적이다. 그나마 물품을 사기 위해서 직장의 근무 시간 중에도 자리를 비우고 물품 구입하기에 애를 써야 할 정도에서 직장에서조차 이시간만은 허용이 된다고 했다.

일반 시민의 교통 수단은 대부분 지하철을 이용하는데 지하철역마다 특색있는 대리석으로 꾸며놓아 외관상으로는 세련 단장되고

WTF 회원국이 늘어가는 추세에서 다음 올림픽 때는 태권도가 정식 종목에 들어갈 것이 거의 확실시되는 여건에서 소련에 태권도가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해 보였다.

깨끗하게 보였다.

크레믈린궁(레닌묘)을 관람하려고 사람들이 붉은광장에서 자면서 새벽부터 줄을 서 기다려야 한다고 했다. 붉은광장과 백화점에

전학은 소련 어린이들도 옷깃에 붉은 리본과 꽃을 달고 있었다.

17일 오전에는 세미나가 있었다.

우리나라의 태권도 기술 전수에 대해 의견교환이 있었고 우리 사범의 파견 문제 등을 협의하였으며 그에 대한 좋은 반응이 있었다.

이곳에 ITF는 2년전에 발족되었는데 이번에 우리가 와서 시범을 보이게 되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여러가지 방해 공작을 펴고 있었다.

2개월 전부터 신문과 방송으로 WTF는 운동이 아니라고 흑화하였으며 우리의 태권도를 비판하였다.

18일 오전에 세미나가 있었는데 참석 인원은 60여명이었고 그들은 대부분 ITF 회원이었으며 태권도 초보자가 많았다. 세미나에서는 이번 시범 준비 관계를 협의하고 앞으로 양국간 태권도 교류와 기술 보급에 최대한 노력할 것을 약속하였다.

공산권으로의 교두보 마련

세계에서 WTF 회원국이 늘어가는 추세에서 다음 올림픽 때는 태권도가 정식 종목에 들어갈 것이 거의 확실시되는 여건에서 소련에 태권도가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해 보였다.

19일 오후 3시 우리 단원들은 시범에 들어갔다. 교포 가족들과 그곳 체육부 간부들도 참석하였다. 관중은 약 700여명에 이르렀다.

시범은 첫째 전 단원의 태권도 기본동작부터 시작하여 이중관의



『태권도』 제76호 『91년도 전국종별선수권대회』

Taekwondo, Issue 76
“1991 National Taekwondo Championships”

1991 | 25.8×18.7

1991년도 전국종별태권도선수권대회에서 남자 고등부의 치열한 격전지 속에 등장한 유일한 여성 지도자인 최승옥 사범(32세, 을지화랑체육관)을 소개하고 있다.

없이 진행시켰고, 심판부에서는 공정한 관정으로 물의없이 대회를 종료시켰다. 4심제를 도입해 첫 대회를 치른 심판부는 두세건의 작은 실수를 제외하고는 서울과 지방팀에서 모두 만족할 만큼 경기장 질서 확립의 밝은 조짐을 보여주었다.

또 이번대회 개회식에는 최세창 신임 회장을 비롯해 대다수의 이사가들이 참석하고 국가대표 성인 시범단과 밴드를 동원해 대회의 격을 높여 주었는데,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하는 선수들을 격려하기 위해서라도 앞으로 계속 좋은 관행으로 이어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중등부, 춘추전국시대 개막

전체 99개교 577명이 참가한 중등부는 이제 전국적으로 춘추전국시대에 돌입한 느낌. 선수들이 기량 평준화는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되어 왔지만 이번 중등부 결승전에서 여실히 증명되었다.

총11체급 결승에 오른 22명의 선수는 모두 7개 시도의 19개교 소속. 아직은 수도권지역(서울, 인천, 경기)이 압도적으로 많이 진출(16명)했지만, 우승자 11명이 모두 다른 소속팀이어서 학교간의 기량차가 상당히 평준화되었다는 것을 보여줬다.

231:1의 경쟁, 고등부 판급

138개교 977명이 참가한 고등부에서의 압권은 판급. 231명이 출전함으로써 도대체 어느 선수가 ‘난 놈(?)’이 될 것인가 일간지 기자들까지 관심이 집중되었던 체급. 결국 결승전에서 상대선수를 4:1판정승으로 압도하고 231:1의 최고경쟁을 치뤘던 주인공은 경남체고 3학년 진승태선수.

경남체고는 플라이급에서도 술을 캐내 서울체고와 함께 술2개씩을 쟁기간 고등부의 강호. 고등부도 아직은 서울체고·동성·한성·성동 등 서울팀이 막강세를 이루고 있지만 경남체고, 대전체고를 비롯한 지방 강호들의 추적이 만만치 않아 중등부에 버금가는 평준화가 곧 도래할듯.

남자고등부의 유일한 여자코치

남자고등부의 격렬한 전장(戰場)에 홍일점 여자코치가 나타나 고군분투하는 모습이 눈에 띄어 이제, 주인공은 강릉에서 무균과 함께 체육관을



이제적으로 많은 이사가들이 참석, 선수들을 격려하였다. (체육교의 김 현우이사)

운영하는 최승옥 사범(32세·여·을지화랑체육관). 과거 70년대 후반기 서울에서 선수생활한 경력이 있는 최사범은 도장에서 선수부를 육성하며 중등부1명, 고등부2명, 일반부1명 등 4명의 남자 선수를 거느리고 단기필마(單騎匹馬)로 뛰어들었는데, 최사범은 비록 이번대회에서는 모두 16강전 이하에서 실패했지만, 급년 후반기에는 강릉농고 6명의 본진(本陣)을 이끌고 서울에 진출하겠다고 기입.

화려한 데뷔, 단국대

50개팀 189명이 참가한 대학 및 일반부경기에서 향후 대학부 경기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변수가 나타났다.

비록 신인들이 출전하는 대회이긴 하지만 금메달 3개를 따낸 단국대.

소대호(페더), 김혁원(라이트), 김태광(웰터), 황용환(페더) 등 그다지 낯설지않은 이름의 선수 7명을 거느리고 출전한 단국대의 코칭스태프는 정찬모(태권도학회회장) - 하석광(3회세계대회참피언)라인.

아직은 한국체대와 동아대, 경희대와 체육과학대로 삼분(三分)하는 대학부 경기에 영향을 미칠 수 없더라도 2~3년 후면 태풍의 눈으로 발전할 소지도 배재할 수는 없을듯.

세종대(금2)와 군산대(금1, 은1)도 종별대회에서는 눈여겨 볼만한 팀이다. 기존 일반부팀에서는 서울에 있는 체육선교신학교와 부산체육선교신학교, 자매교가 출전해 이목을 끌었다.

판급의 희망체육관소속 이화진선수(금)와 페더급 창용체육관 오경환선수(은)도 대학부팀사이에서 선전을 해 경력을 급급하게 만들게 했다. **태권도**

「태권도」 제82호
『92 바르셀로나올림픽
태권도 경기』

Taekwondo, Issue 82
“Taekwondo Competition at the 1992
Barcelona Olympics”

1992 | 25.8×18.8

1988년 서울 올림픽에 이어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도 태권도가 시범 종목으로 채택되
었다.
대한민국은 남녀 각 4체급씩 총 8명의 선수를 파견하였으며, 특히 여자부 사령탑으로 임신자 코
치가 선임되어 팀을 이끌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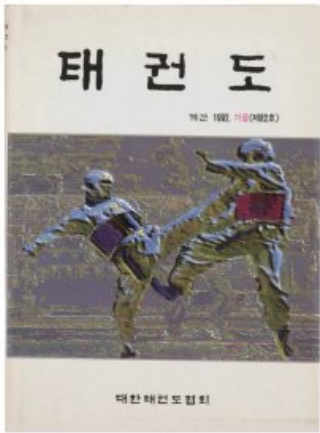
[여자 국가대표 출전자]

- 판금: 모선영 • 밴텀급: 황은숙 (금메달) • 라이트급: 정은옥 (동메달)
- 미들급: 이선희 (금메달)

제25회 바르셀로나 올림픽 태권도복 상의

Top of the Taekwondo Uniform from the 25th Barcelona Olympics

1992 | 93.8×50.7



『태권도』 제85호 『나의인생, 나의 태권도』

Taekwondo, Issue 85
“My Life, My Taekwondo”

1993 | 25.8×18.8

대한태권도협회 여성분과 부위원장직을 맡고 있던 정효심 사범의 삶과 태권도 철학을 심도 있게 소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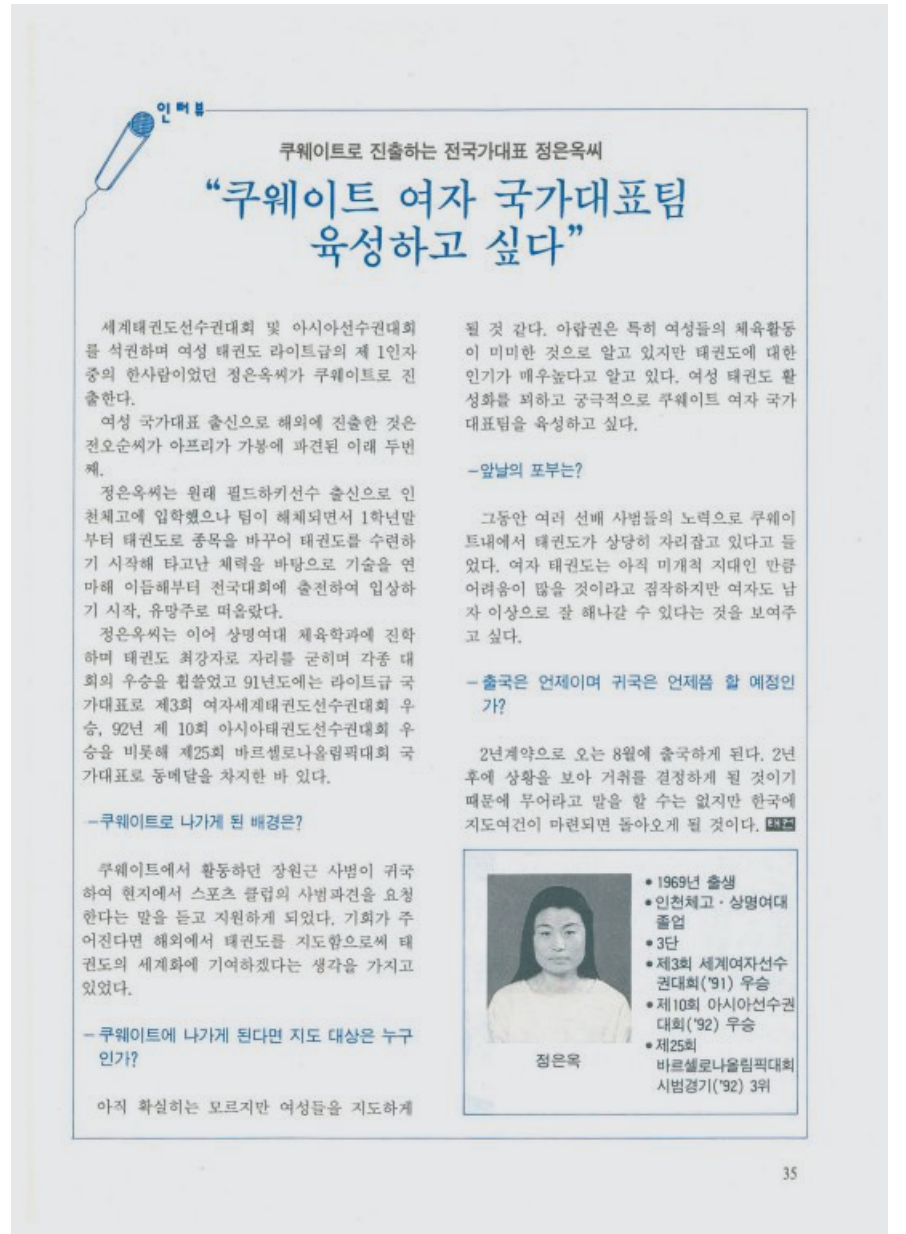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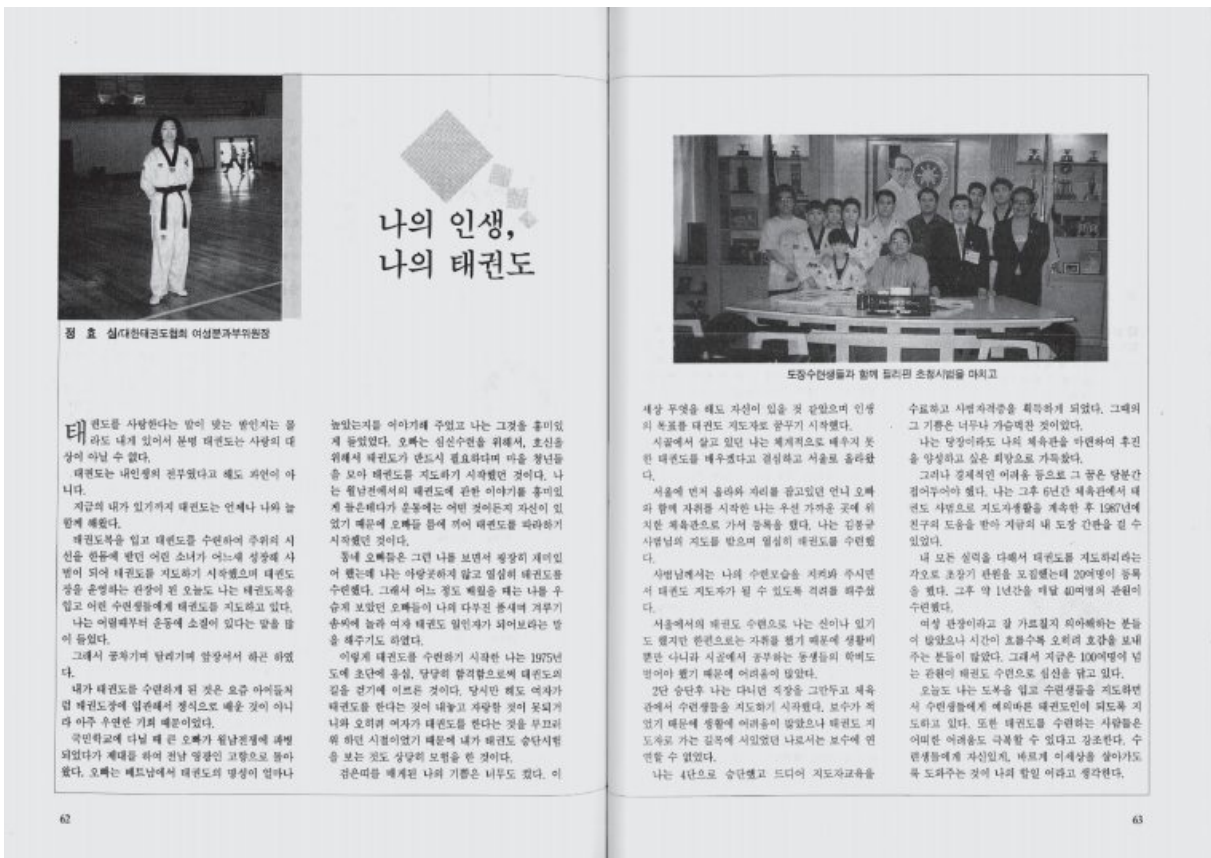


『태권도』 제85호 『쿠웨이트 여자 국가대표팀 육성하고 싶다』

Taekwondo, Issue 85
“I Want to Cultivate Kuwait's Women's National Team”

1993 | 25.8×18.8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와 아시아선수권대회를 휩쓸며 여성 태권도 라이트급의 절대강자로 군림했던 정은옥 선수가 쿠웨이트로 진출하여 지도자로서 새로운 길을 걷게 된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



『한국여성태권도』 제26호

Korean Women's Taekwondo, Issue 26

1994 | 26.7×20

1994년 5월 국기원에서 개최된 '전국여자 개인선수권대회'는 한국 태권도 역사상 매우 이례적이고 혁신적인 시도가 이루어진 대회이다. 대한태권도협회의 전폭적인 배려와 지원 아래, 대회 운영의 핵심인 주심과 부심 판정 요원 전원을 여성 심판으로만 기용하여 성공적으로 대회를 치러냈다.

『한국여성태권도』 제26호

Korean Women's Taekwondo, Issue 26

1994 | 25.8×18.8

1994년 4월 30일부터 5월 11일까지 이란 테헤란에서 개최된 '제1회 국기원 태권도 해외지도자 연수 세미나'는 여성 태권도 지도자의 교육 역량을 국제적으로 알린 중요한 계기이다. 이번 세미나에는 박영숙 사범이 여자 지도사범으로 위촉되어 참가하였으며, 해외에서 활동하는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한 전문 연수와 국제심판 활동 교육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



제 1 회 국기원 태권도 해외지도자 연수 세미나를 다녀와서

(1994. 4. 30~5. 11. 이란 테헤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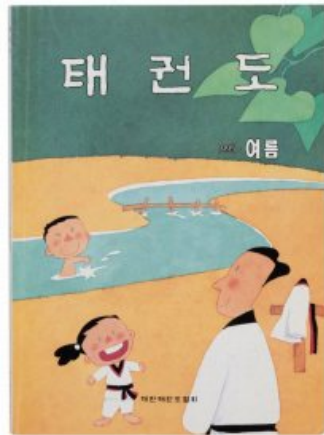
박 영 숙 (본회 회원)



『태권도』 제93호 『인천시청, 여자실업팀 최초로 창단』

Taekwondo, Issue 93
“Incheon City Hall Establishes First-Ever
Women’s Professional Team”

1995 | 25.8×18.8



인천시청, 여자실업팀 최초로 창단 코치에 임신자씨, 전·한국가대표로 팀 구성

태권도 사상 처음으로 여자 실업팀이 창단되어 여자 실업 태권도의 활성화를 예고하고 있다.

여자 태권도 실업팀을 창단한 곳은 인천시청으로 지난 5월 1일부터 정식으로 팀을 발족하고 국내외 대회를 석권하겠다는 목표로 훈련에 임하고 있다.

인천시청팀 코치로는 인천 출신으로 국가대표 선수 및 국가대표 코치를 역임한 바 있는 임신자씨가 발탁되었다.

임신자코치는 상인천여중과 인천체고, 경희대, 상명여대 대학원을 졸업했으며 '85년 제7회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와 1987년 제1회 세계대학태권도선수권대회 뽀텀급에서 우승을 차지했으며 지도 경력으로는 '89년 제2회 세계여자선수권대회 한국대표팀 코치, '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한국대표팀 코치를 역임한 바 있다.

창단 멤버로는 '96국가대표 웰터급 1위자인 조항미(경희대 4년), '96국가대표 페더급 3위자인 윤명숙(상명여대 4년)을 비롯해 전 국가대표 출신인 황은



임신자 코치

숙(상명여대졸, '92바르셀로나 올림픽 뽀텀급 1위), 김성숙(상명여대졸, '92 제10회 아시아태권도선수권대회 페더급 1위, 제3회 세계대학선수권대회 페더급 2위), 이선희('92 제10회 아시아선수권대회 미들급 1위, 바르셀로나올림픽 미들급 1위) 등 전, 현 국가대표로 구성되었다.

임신자코치는 “여자 최초의 실업팀이라는 의미에서 무엇보다도 막중한 사명감을 느낍니다. 그동안 여자 실업팀이 없어 대학을 졸업한 여자 선수들이 활발히 선수로 활동하지 못하고

운동을 그만두거나 일선 지도자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기량이 뛰어난 선수들을 계속적으로 지도, 관리할 수 있는 실업팀의 창단이 이루어져 여자 태권도 발전의 새로운 활력소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면서 인천시청팀의 창단으로 다른 지역이나 기업의 여자 태권도 실업팀이 많이 창단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했다.

오는 10월 2일부터 8일까지 포항에서 개최될 전국체전 여자부 정상을 노리고 있는 인천시청팀은 여자 태권도계를 대표하는 기량과 정신을 보여주는 팀이 되겠다는 각오로 훈련에 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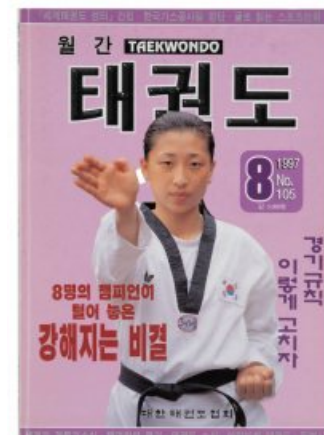
임신자 코치는 “선수들이 국가대표 경력을 가지고 있는 만큼 기량면에서는 일정한 수준에 도달해 있다고 봅니다. 기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체력훈련과 함께 무엇보다도 철저한 프로의식을 심어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업팀 선수가 프로정신이 없다면 더 이상 발전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라고 강조했다. **▶사진**

53

『태권도』 제105호 『챔피언들이 털어놓는 강해지는 비결』

Taekwondo, Issue 105
“Champions Share Their Secrets to Building
Strength”

1997 | 26.7×20



챔피언들이 털어놓는 강해지는 비결



임신자
(33세·현 인천시청 감독
국가대표 코치)

챔피언 타이틀:
세계여자오픈 선수권대회
(세계 선수권대회 여자부의 전신)

● 지금 선수들이 고민해야 할 점
다양한 기술들을 보다 정교하게 다듬었으면 한다. 단숨에 붙드는 난이도 있는 자기기술의 습득이 필요하다.
● 철저한 훈련을 위한 철저한 훈련
체력적 힘(로컬)(미국인), 세계대회 최종전에서 처음이자 마지막 세계대회의 상대였기 때문에
● 나는 어떻게 훈련했다
확실시합에는 운동에 미쳤다고 표현할 정도로 밤낮을 안고 있고 운동에는 진념했다.
● 특별히 중점을 두었던 훈련
체력적 기술을 완벽하게 소화해 내려고 노력했다.
● 정신적 집중훈련
시합 때부터 6-7개의 강압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강압의 고통을 미리 경험으로서 강한 정신력을 가질 수 있었다.
● 특별 명상시
그 당시에는 특별히 없었다. (무유나 계란들이 화상사망)

● 나의 훈련 스케줄
-오전 훈련(시간과 그 내용)
새벽 6시 30분 - 가린훈련(간혹으로 기술체력 운동을 하루로 훈련하고 나뉘어하나 일 중을 이용한 발자국을 주며 연습했다.
-오후 훈련(시간과 그 내용)
2시 45분 : 학교에서 복귀한 운동 스케줄 때문 훈련시간을 가졌다.
-가린훈련(시간과 그 내용)
저녁 7시 - 9시 30분 : 출근길을 통해서 900m의 대강당을 한 상시하고 거울을 이용하여 발자국의 자세나 형태를 수정 보완 시켜 나갔다.

챔피언들이 털어놓는 강해지는 비결

전오순
(34세·현 미국 뉴욕 태권도사범)



챔피언 타이틀:
제1회 세계여자대학
선수권대회 뽀텀급 우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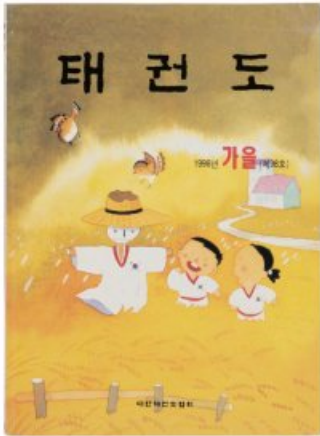
● 철저한 훈련을 두었던 훈련
체력적 훈련이 때문에 강한 체력을 만들기 위해 밤낮으로 연습했다.
● 정신적 집중훈련
힘을 낸다. 최선을 다하자. 그리고 승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
● 특별 명상시
무조건 기리지 않고 잘 하였다.

● 나의 훈련 스케줄
-오전 훈련(시간과 그 내용)
새벽 6시 30분 - 가린훈련
-오후 훈련(시간과 그 내용)
3시부터 6시까지 1. 기본 발차기, 2. 미트 차기, 3. 겨루기
-가린훈련(시간과 그 내용)
오후 8시 - 샌드백 차기 30분정도 끝났다

『태권도』 제98호
『연구개발특별위원회 발족』

Taekwondo, Issue 98
“Launch of the Special Committee on
Research and Development”

1997 | 25.8×18.8



1996년 10월 31일 올림픽회관 중회의실에서 태권도의 미래를 설계할 연구개발특별위원회가 공식 발족하였다. 위원회는 태권도계의 원로와 행정 전문가, 학계 및 언론계 인사들이 두루 참여하였다.

특히 정효심 여성분과위원장이 여성 태권도계를 대표하는 위원으로 포함되었다.

태권도 뉴스초점

연구개발특별위원회 발족

96년 10월 31일 올림픽회관 중회의실에서 위원장과 8명의 위원, 16명의 연구원으로 구성된 연구개발특별위원회가 발족되었다.

태권도의 올림픽 영구 종목화, 생활체육화, 태권도 종주국으로서의 위상정립을 위한 구체적인 소프트웨어 개발을 목표로 한 연구개발특별위원회는 홍종수 위원장을 필두로 황춘성 협회 기술심의회 의장, 전재규 국가원 기술심의회 의장, 이규석 세계태권도연맹 기술위원장, 서성갑 문체부 지원육성과장, 배영상 계명대 학생처장, 고두현 전 서울신문 국장급 기자, 유병석 전 국민일보 체육부장, 정효심 협회 여성분과위원장 등 8인의 위원과 산하 4개팀 연구원 16명 등 24명의 인원으로 구성되었다.

경기규칙연구팀은 팀장 이규석(용인대) 교수와 진중의, 강성철, 윤상화, 류병관 연구원으로 구성되었다. 이 팀의 과제는 그동안 양적 팽창의 선봉역할을 했던 경기화 과정에서의 제반 문제들을 철저히 조망하여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올림픽 종목에 걸맞게 경기의 구조적인 모순점들을 개선해 나가는 작업을 하는 것이다.

품새개발팀은 최영렬(경희대) 교수를 팀장으로 유병철, 이재용, 정근표 연구원이 활동하게 된다. 국민의 생활속에 녹아드는 태권도가 되기 위해 가장 시급히 개선되고 발전되어야 할 부분이 품새의 개발과 보급이라고 볼때 품새개발팀의 역할과 연구결과에 많은 기대가 모아지게 된다.

수련프로그램개발팀은 조근중(한양대) 교수를 팀장으로 강신철, 임인수, 서진교 연구원이 활동하게 되는데 전국 5,200여 도장과 각급 학교, 단체의 교육프로그램이 체계적으로 짜여져 있지 못한 현실에서 이들의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연구와 그 결과가 기대된다. 유치부와 초등부의 성장발달 및 체력의 특성에 따라 세부연령을 구분하여 기본동작, 품새, 겨루기, 체력훈련 등이 포함된 다양하고도 체계적인 태권도 교육수련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역사정신연구팀은 이승국(한체대) 교수가 팀장으로 문원재, 안용규, 정국현 연구원이 활동하게 된다. 이 팀의 연구과제명은 「태권도의 사적 변천과정과 태권도 정신」으로서 태권도 역사, 철학을 연구분야로 하여 4명의 공동연구원과 3명의 연구보조원이 공동연구의 형태로 작업을 진행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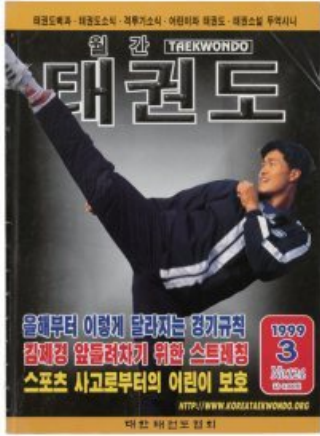
문헌을 통한 고대 태권도 발상의 근원탐색, 조선시대, 일제시대, 해방이후의 태권도 변천과정과 수련, 시대변천에 따른 태권도 정신의 도출, 현대의 태권도 정신과 태권도의 가치성 확립을 주제로 연구를 진행하게 된다.

연구방향 및 착안사항에 대한 1, 2차 검토를 거쳐 12월 13일 보고회를 가진 연구개발특별위는 월 1회 정기 보고회를 갖고 연구 진척사항에 관해 보고하며 97년 1월중 워크샵을 가결 예정이다. 그리고 97년 1/4분기중 연구결과 중간 발표회를 개최하고 같은 해 상반기중 1차 연구결과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태권도**

『태권도』 제124호
『2000년 시드니 올림픽
대표선수 경기력 향상
특별위원회』

Taekwondo, Issue 124
“Special Committee on Enhancing National
Team Performance for the 2000 Sydney
Olympics”

1999 | 25.5×18.7



대한태권도협회는 2000년 시드니 올림픽에서 정식 종목으로 첫선을 보이게 될 태권도 경기의 세계 제패를 위해 ‘대표선수 경기력 향상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위원회 위원으로 임신자(인천시청 감독) 감독이 선정되었다.

대표선수 경기력 향상 특별위원회 구성

“2000년 시드니 올림픽을 제패하라!”

대한태권도협회는 2000년 시드니 올림픽에서 정식종목으로 첫선을 보이게될 태권도 경기에서 세계를 제패할 수 있도록 만반의 태세를 마련하기 위해 대표선수 경기력 향상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1월 26일 올림픽회관 1층 대회의실에서 임명장을 수여했다.

특별위원회는 대표선수들의 과학적인 훈련에서부터 세계 각국의 정보를 분석하여 대응책을 마련하는 등 태권도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게 된다.

전, 현 국가대표팀 감독이나 코치를 역임한 바 있는 각팀의 지도자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는 최영렬 경희대 교수가 위원장으로 선임되었고 1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다.

대표선수 경기력 향상 특별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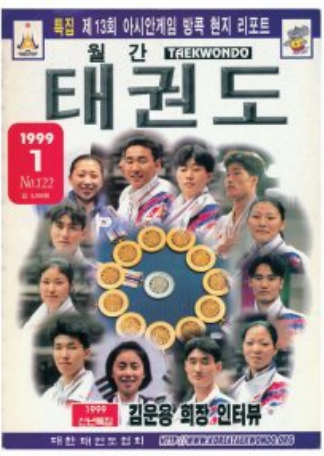
 김무현 강서합체 운영부장	 김우규 위원(동아대 감독)	 강선광 위원(동성고 감독)	 황경갑 위원(국군체육부대 감독)	 최명도 위원(대프림 감독)	 주선규 위원(한국가스공사 감독)
 김세혁 위원(에스원 감독)	 유수철 위원(리더랜드 감독)	 문상희 위원(용인대 교수)	 전오민 위원(강성애고 감독)	 막계혁 위원(운천시청 감독)	 정건 위원(서울체고 감독)
 박영수 위원(강원대 코치)	 이재봉 위원(송곡고 감독)	 문원재 위원(한체대 교수)	 강문섭 위원(강릉대 코치)	 임신자 위원(인천시청 감독)	 정국현 위원(한체대 강사)

비로잡습니다 지난 호(99년 2월 호) 화보 **태권** 김성진 코치의 소속은 동성고기 아니라 송곡고이기에 비로잡습니다.

『태권도』 제122호
『제13회 방콕 아시안게임』

Taekwondo, Issue 122
“The 13th Bangkok Asian Games”

1999 | 25.8×18.8



『태권도』 제124호
『상임심판원 56명 선발, 교육 실시』

Taekwondo, Issue 124
“Fifty-Six Permanent Referees Selected and Trained”

1999 | 25.8×18.8



『태권도』 제107호

『학문적 기초세워 세계화』

Taekwondo, Issue 107

“Laying an Academic Foundation for Globalization”

1997 | 25.5×18.7



▲경기 태권도장이 설립된 3층의 대학 중 하나인 한양대학교의 전경

학문적 기초세워 세계화

경인대 등 3곳 대학 태권도학과 신설

97년 3월 31일

태권도학과를 신설한 경인대학교, 경원대학교, 한양대학교 등 세 곳은 태권도학과를 신설한 학교 가운데 첫 번째로 태권도학과를 신설한 학교로 꼽힌다. 태권도학과를 신설한 학교는 태권도학과를 신설한 학교 가운데 첫 번째로 태권도학과를 신설한 학교로 꼽힌다. 태권도학과를 신설한 학교는 태권도학과를 신설한 학교 가운데 첫 번째로 태권도학과를 신설한 학교로 꼽힌다.

태권도학과를 신설한 학교는 태권도학과를 신설한 학교 가운데 첫 번째로 태권도학과를 신설한 학교로 꼽힌다. 태권도학과를 신설한 학교는 태권도학과를 신설한 학교 가운데 첫 번째로 태권도학과를 신설한 학교로 꼽힌다. 태권도학과를 신설한 학교는 태권도학과를 신설한 학교 가운데 첫 번째로 태권도학과를 신설한 학교로 꼽힌다.

1997년 4년제 대학 태권도학과 3곳이 신설되었다. 1982년 용인대학교, 1983년 경희대학교에 이어 1997년에 계명대학교, 경원대학교, 한국체육대학교에 태권도학과가 새로 마련되었다. 이로써 태권도의 학문적 기초를 정립하고 세계화를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더욱 확충되었다.

이론과 실천 함께 경인대 이규석 교수

태권도학자가 신실한 학문적 기초를 세우고, 그 바탕에서 세계를 여울 수 있는 여러 학살들을 꼭 지켜보고, 경쟁적으로 경쟁하는 것이야말로 책임적인 자세이기 때문이다.

태권도학과를 신설한 학교는 태권도학과를 신설한 학교 가운데 첫 번째로 태권도학과를 신설한 학교로 꼽힌다. 태권도학과를 신설한 학교는 태권도학과를 신설한 학교 가운데 첫 번째로 태권도학과를 신설한 학교로 꼽힌다. 태권도학과를 신설한 학교는 태권도학과를 신설한 학교 가운데 첫 번째로 태권도학과를 신설한 학교로 꼽힌다.

대 학	신설 연월일	신설인원	비 고
경기대학교	1982년 3월 1일	10명	전승익 교수와 2인
경원대학교	1983년 3월 1일	4명	최영철 교수와 2인

대 학	신설 연월일	신설인원	비 고
가톨릭대학교	1984년 3월 1일	20명	지명태권도 명문대학
강원대학교	1985년 3월 1일	20명	지도교수 출신, 생활과학대학 소속
한국체육대학	1986년 3월 1일	30명	고급선수가 많은 거점대학 최고수준

은 영, 태 등 전통사상에 기반한 태권도 철학과, 한국의 선현들의 가르침을 전수하는 자기수양의 방법론 등을 강조하는 한국적인 것과 같이 태권도인의 활동에 필수적인 외국어와 저구 체육학의 최신 동향이나 일본 및 체육행정학 등을 고루 지도하여 국제적인 안목으로 진출하는 것인데, 실기 면에서는 일전상 을 강조하여 전승주의 불교학 포인드 역주의 기술이 아닌 일전상 실 의 과학화라는 기술위주로 지도할 것이라 하고, 이론면 교육과정은 한국적인 특성을 잘 이해하는, 즉 자기를 아는, 또한 자신 국제감각에도 바탕이 되지 않는 융화되고 국제적인 태권도인을 길러낼 것이 라고

한대 강요대학 태권도학과는 굳이 언어 전임교수로 충 원된 한 대강요대학의 지주장인 이규석교수를 포함, 이규석 교수까지 총 2명의 태권도 전임교수와 기타 교양과목의 많은 강사진을 보유하고 20명의 태권도학과 학생들을 한두명 받들고 실기지도 지도 할 것이라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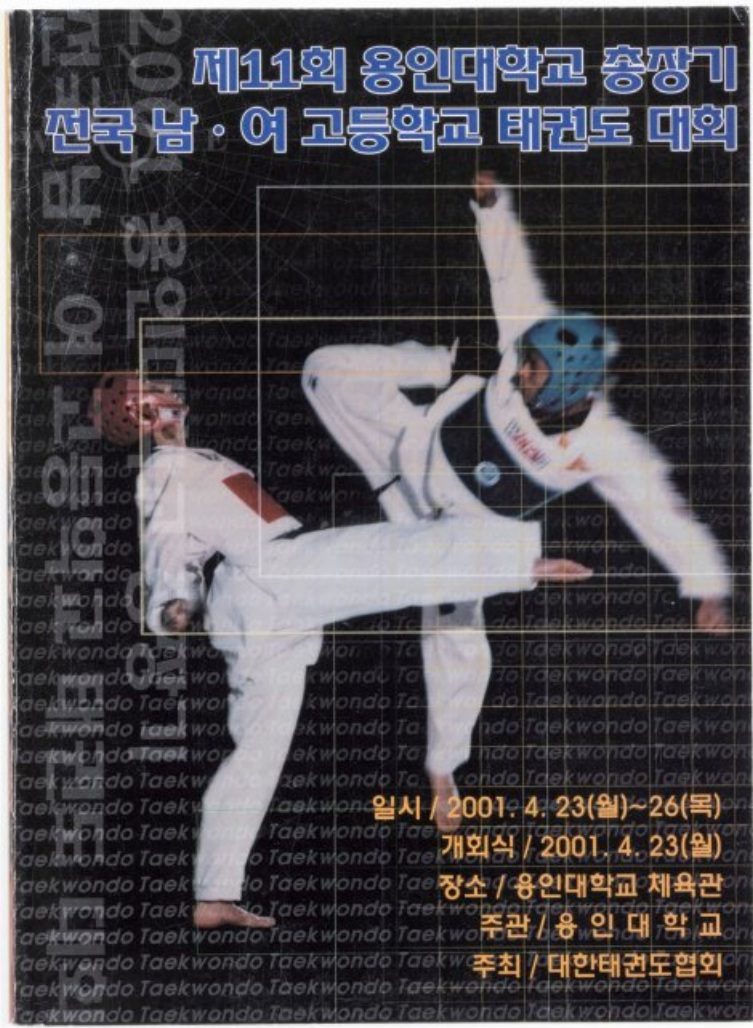
대 학	신설 연월일	신설인원	비 고
경기대학교	1982년 3월 1일	10명	전승익 교수와 2인
경원대학교	1983년 3월 1일	4명	최영철 교수와 2인

대 학	신설 연월일	신설인원	비 고
가톨릭대학교	1984년 3월 1일	20명	지명태권도 명문대학
강원대학교	1985년 3월 1일	20명	지도교수 출신, 생활과학대학 소속
한국체육대학	1986년 3월 1일	30명	고급선수가 많은 거점대학 최고수준

제11회 용인대 총장기 전국 남·여 고등학교 태권도대회 자료집

Proceedings of the 11th Yongin University President's Cup National High School Taekwondo Tournament (Boys and Girls)

2001 | 25.8×19



제14회 경희대학교 총장기 전국 남·여 고등학교 태권도대회
태권도대회 포스터

Poster for the 14th Kyung Hee University President's Cup National High School Taekwondo Tournament (Boys and Girls)

2002 | 43.2×60.8



계명대학교 태권도학과 1기 졸업생 일동 감사패

Plaque of Appreciation from First Graduating Class of the Department of Taekwondo, Keimyung University

2000 | 5.8×24.9×23.3



제1회 한국체육대학교총장배 태권도경연대회 금메달

Gold Medal from the 1st Korea National Sport University President's Cup
Taekwondo Championships

2002 | 6.6×39



『태권도』 제110호

『이대 태권도인』

Taekwondo, Issue 110

“Taekwondo Practitioners at Ewha
Womans University”

1998 | 27.5×20



태권도 동아리 탐방 ①

이화여대 태권도부

태권도 한마당 6연패의 꿈!
이화여대 태권도 부는 해마다 겨울이
시작되는 11월 말이면 대한태권도협회
가 주최하는 태권도 한마당 대회를 위
하여 밤늦도록 태권도를 수련하고 따
뜻한 차 한잔을 나누며 동아리 간의
운기를 나눈다.
이대는 태권도 한마당 대회가 창설된
1982년도 대회 때부터 빠짐없이 매년

참가해 이대 태권도 부의 명성을 높였
다. 올해 참가한 종목은 태권체조. 그
중 <자자>가 부른 버스 안에서' 곡에
태권도 품새를 흥겨운 율동으로 표현
했다.
이번 대회를 위해 10일 정도 밖에 연
습을 못했다. 그렇지만 이대 태권도 부
는 내심 자신만만하다.

자신감있고
당당하고
예의바른

이대 태권도인

지난 5월 이대 축제 기간에 태권도 부는 이대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태권도 종재와 취학적인 격으로 원
구들로부터 현상을 자아냈다. 그리고 올해 처음으로
학생들에게 태권도 취학으로 면모를 보여주지 위해
태권체조를 발표해 많은 학생들을 열었다. 이번 한
마당 대회에 출전한 이들은 5월 축제 때 선보인 태권
체조를 일부 보충해서 나온 것이다.
“종류고 신나게 연습을 하였지만 막상 대회 출전을
앞두고 보니 긴장이 되고 한 동안 한 동작 정하고
연습도 있게 하려고 했습니다”라며 대회 출전
에 앞서 하루의 연습에 여념이 없는 태권도 동아리.

그들은 채 강리도 체육이가면서 대회에 출전하는 것
일이다.
“그 동안 저희가 익힌 태권도를 객관적으로 검증 받
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중에 참가하는 것이 일찍인
부담이 있으나 저희가 해왔다는 자부심, 앞으로 무한
하는 태권도 있다는 자신감이 솟아나는 것을 느꼈습
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태권도인으로써 감동받은 것
보게 됩니다.”
이번 태권도 한마당 대회에서 이대는 태권체조 부문
에서 단합의 우수상을 차지하여 선배들의 귀를 이어
6연패를 달성했다.

이화여대 태권도부는 해마다 대한태권도협회가 주최하는 태권도 한마당 대회 참가를 위해 수
련하고 있다. 1992년 대회부터 매년 빠짐없이 참가하여 태권체조 부문에서 6년 연속 우수상을
차지하였다.

태권도 한마당 대회, 6년연속 우수상

각 대학마다 태권도 동아리들이 활동하고 있지만 이
는 대학마다 학사과 편성을 차등하여 불발이 활동
하고 있는 대학이 따로 이화여대다. 이대 태권도 동
아리는 해마다 봄, 가을에 6개대학 전신태권도대회에
도 빠짐없이 출전하고 있다. 이대를 비롯해 서울대,
서울고대, 집현당 태권도 동아리가 한자리에 모여 품
새, 격파, 겨루기 대회를 통해 실력을 겨루며 원전을
도도하고 있다.

여시의 전통지향, 웅장한 활동도

또한 매년 가을이면 전국대학 태권도동아리대회에
도 출전한다. 이화여대는 긴히 시험적이 때문에 이대
도 그런, 저도 그런이지만 그들은 늘 대회를 앞두고
는 저녁마다 열심 태권도를 수련한다. 지난 11월 중
순에 열린 이번 대회에서는 사회생활과 2학년인 김
희영(11년)이 금메달을 따냈다고 자랑한다.

“이화여대이기 때문에 여자들만이 부엌을 한다는 것
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릅니다. 체육부를 때문에
제외가 더욱 열심히 태권도를 수련할 수 있었다고 분
니다. 남대궁밖에서는 오히려 태권도 부처럼 운동 중
독에 거의 의학
생들이 없습니
다. 도복을 갈아
입는대거나, 여
자가 무슨 태권
도를 배우느냐는
공식 많은 시선
들을 받아야 하
기 때문에 극한
생들이 생기 제
우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대에서 태권
도가 활동하는
이름을 여자들만
의 자부심이라하
고 간단히는 이
대 태권도 동아
리 책임자 부장
(경제학과 3학년
11년)이다.
태권도 부는 일

주일에 4만 정기적으로 모여 막은 해크레이벳을 6층
에서 태권도를 수련한다. 오후 6시에 강의를 모두 마
친 학생들은 태권도 동아리 방으로 몰려와 태권도복
으로 갈아입고 6시30분부터 8시까지 태권도 취학한
기합소리를 가르며 밤늦게 태권도를 수련한다. 태권
도 수련에는 보통 2 30명의 회원들이 참가한다.
태권도 지도는 태권도 부장인 박지영씨를 비롯해 태
권도 유단자가 많고 있다. 매우 효율적인 야생 부근
에 있는 작아원체육관이 자체전 관장이 학교에 와서
태권도를 지도해준다.

“50학년 선배님들이 우리들끼리 태권도 수련을 하
는 것입니다. 태권도를 열심히 해내고 체육부장과 해서
주해 도장을 붙여달라고 합니다. 그해 박지영씨에
서는 무보수원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지도해 주셨
다고 선뜻 응대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지 12년간 매우 이대 태권도 동아리를 지도하며 많은
유단자를 배출해온 박지영이 있었기에 이대 태권도
부가 더욱 활성화되었다고 한다.

“태권장단에서는 저희들을 지도하는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계십니다. 예전으로서 최고 자칭인 이대
태권도 부의 활성화는 여성의 태권도 수련에 공헌



▲ 태권도 한마당 대회 출전한 이대 태권도부원들.

「태권낭자」 제25호

Taekwon Nangja, Issue 25

1993 | 25.8×18.8



1992년 12월에 개최된 제1회 태권도 한마당 대회에서 기존 품새 부문 1위를 차지한 서영애(청복선 체육관) 수상자의 인터뷰를 싣고 있다.



제1회 세계 태권도 품새 선수권대회 상장

Certificate from the 1st World Taekwondo Poomsae Championship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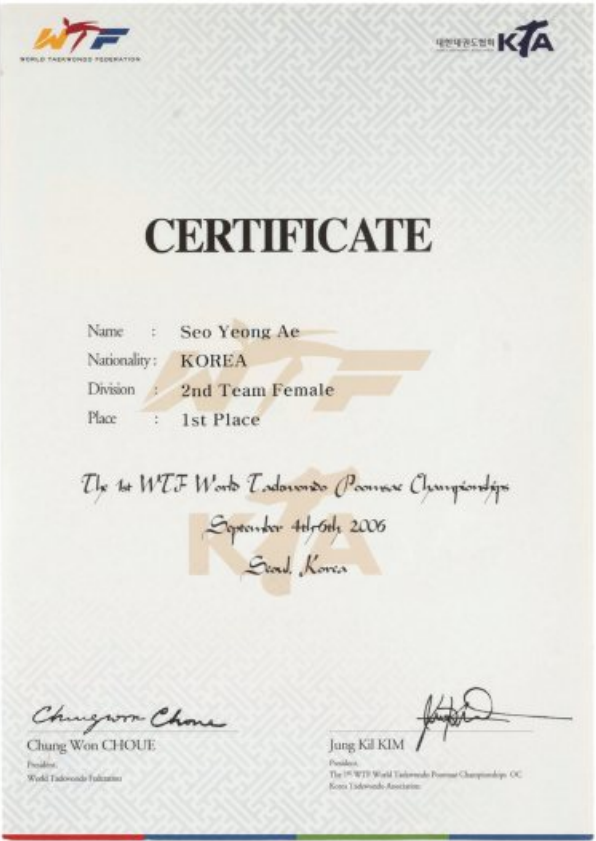
2006 | 29.7×21

제2회 세계 태권도 품새 선수권대회 상장

Certificate from the 2st World Taekwondo Poomsae Championships

2007 | 29.5×21

서영애는 WTF 세계 태권도 품새 선수권대회의 8회 연속 우승이라는 경이로운 기록을 세웠다.



제5회 WTF 세계 태권도 품새 선수권대회 페넌트

Pennant from the 5th WTF World Taekwondo Poomsae Championships

2010 | 20.5×46.5

제5회 WTF 세계 태권도 품새 선수권대회에 참가하는 태권도 품새 국가대표선수단 얼굴과 이름이 적혀있다. 여자선수로 청소년 조성예, 성인1부 강수지, 성인2부 이숙경, 장년1부 서영애, 장년2부 장정희를 소개한다.



제6회 WTF 세계 태권도 품새 선수권대회 페넌트

Pennant from the 6th WTF World Taekwondo Poomsae Championships

2011 | 36.5×51.5

제6회 WTF 세계 태권도 품새 선수권대회에 참가하는 태권도 품새 국가대표선수단 얼굴과 이름이 적혀있다. 여자선수로 청소년 조성예, 성인1부 강수지, 성인2부 이숙경, 장년1부 서영애, 장년2부 안도연을 소개한다.



서영애 체육훈장 맹호장

Order of Sports Merit (Mangho Medal)
awarded to Seo Young-ae

2012 | 39.5×52, 8×6×34.5

세계 태권도 품새 선수권대회 8회 연속 우승 등 품새의 기술적 완성도를 이끈 공로로 받은 서영애의 체육훈장 맹호장이다.

송남정 체육훈장 거상장
훈장증

Certificate for Geosang Medal of the Order
of Sports Merit Awarded to Song Nam-
jeong

2009 | 37.8×25.7

세계 태권도 품새 선수권대회 3연패(2006~2008) 성과 등 체육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로 받은 송남정의 체육훈장 거상장이다.



서영애 태권도복

Taekwondo Uniform Worn by Seo Young-ae at the World Taekwondo Poomsae Championships
2009 | 상의 76×130.5 띠 157×4.5

세계 태권도 품새 선수권대회에 착용한 서영애의 태권도복이다.



송남정 태권도복

Taekwondo Uniform Worn by Song Nam-jeong at the 1st World Taekwondo Poomsae Championships
2009 | 상의 80×62 하의 94×60, 띠 202.5×5

제1회 세계 태권도 품새 선수권대회에 착용한 송남정의 태권도복이다.



국립태권도박물관 | 기획전시 |

태권낭자

Taekwondo Girls

5부 소녀, 길을 되돌아보다

Part 5: Girls Look Back on Their Journey

초기 여성 태권도인들은 무도가 남성의 영역으로 여겨지던 시대 속에서 편견과 한계를 넘어 스스로 길을 개척해 나갔다. 이들은 선수와 지도자, 심판과 교육자, 여성단체 활동 등을 통해 여성 태권도의 가능성을 증명하였다.

그들의 도전은 여성들이 국내외 경기와 조직 속에서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고, 오늘날 여성 태권도인이 세계대회와 올림픽 무대에서 활약하는 토대가 되었다. 이들의 발자취는 태권도의 지평을 넓히며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다.

In an era when martial arts were regarded as male activities, the early female taekwondo practitioners carved out their own path, overcoming prejudice and structural limits. Through their work as athletes, instructors, referees, educators, and leaders in women's organizations, they showed what women's taekwondo could achieve.

Their efforts laid the groundwork for women to take part in competitions and organizations at home and abroad, and created the foundation for today's female practitioners to excel on the world stage and at the Olympic Games. Their legacy continues to widen the horizons of taekwondo and to shape a new chapter in its history.



김영숙

- '71 최초 여성전용 태권도장 개관
- '74 최초 이화여대 태권도부 창설
- '78 한국 여자대표팀 감독 및 코치
- '79 한국여성태권도연맹 이사
- '80 미국태권도연맹 여성분과위원장
- '87 제1회 세계여자태권도선수권대회 국제심판
- '00 제1회 국제여자오픈태권도대회 개최
- '02 세계태권도연맹 여성분과위원회 활동
- 현재 월드태권도스튜디오 태권도장 운영

본 인터뷰는 국립태권도박물관이 2024년 6월부터 10월까지 추진한 「태권도 지식자원 아카이빙」 3차 사업 『여성 태권도인 구술채록』에 참여한 여성 태권도인 6인의 구술 인터뷰를 간략히 재구성한 것입니다.

태권도를 처음 시작하게 된 계기는 무엇이었습니까?

오빠를 찾으러 태권도장에 갔다가 태권도를 하는 모습을 보고 저도 한번 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태권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태권도장은 어떤 환경이었습니까?

그때는 승단 심사비가 50원, 월 회비가 30원이던 시절이었습니다. 수련장 바닥도 지금처럼 매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제재소에서 버린 나무 판자를 깔아 사용했는데, 바닥이 고르지 않아 운동하다 발이 빠질 정도로 열악했습니다. 그런 환경에서도 모두 열심히 수련했습니다.

당시에는 여성 수련생이 많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거의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여성이 태권도를 하면 억세다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운동이 끝나면 다시 치마를 입고 여성스러운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 부모님들이 "우리 딸도 태권도를 시켜도 되겠다."는 생각을 갖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사춘기 시절 태권도를 통해 감정을 다스리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여성 태권도인으로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활동하셨습니까?

제가 잘해야 여성들도 태권도를 쉽게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태권도는 호신술이기도 하고 자신을 단련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제가 여성 태권도인의 좋은 본보기가 되어 더 많은 여성들이 태권도를 시작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랐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전용 태권도장을 개관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당시 도장에는 남성들이 대부분이어서 여성들이 다니고 싶어도 쉽게 들어오기 어려웠습니다. 부모님들도 남성 수련생이 많은 도장에 딸을 보내는 것을 부담스러워하셨습니다. 하지만 여자 사범이 운영하는 도장이라면 여성들도 안심하고 다닐 수 있다고 생각해 여성전용 태권도장을 열게 되었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 태권도부는 어떤 계기로 창설하게 되었습니까?

처음에는 "이화여자대학교에서 무슨 태권도를 하느냐."라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당시 학장님께서 유럽을 방문했을 때 태권도에 대한 높은 관심과 위상을 직접 확인하시고 생각이 바뀌셨다고 들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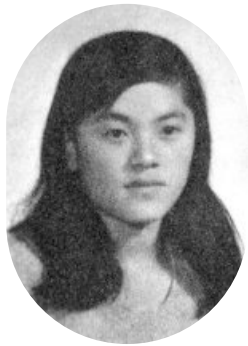
지나온 삶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어떻게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태권도에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그 정도의 열정이 아니었다면 이 길을 끝까지 걸어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후배 여성 태권도인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십니까?

아무리 운동을 잘해도 여성으로서의 품격과 본분은 잃지 않았으면 합니다. 저도 운동을 마친 뒤에는 항상 단정하고 여성스러운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야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딸을 태권도장에 보낼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태권도는 단순히 기술을 배우는 운동이 아닙니다. 자신을 지키고, 어려운 사람을 도우며, 봉사하는 마음을 실천하는 무도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더 많은 사람들이 태권도의 가치를 인정하고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남궁명석

- '65 대한태권도협회 1기 시범단 유일 여성 활동
- '70 제1회 전국여자부개인선수권대회 최초 우승
- '71 '71년도 여자부 우수선수 선정
- '97 여성 최초 9단 취득
- 현재 미국 'US Taekwondo Center' 도장 운영

태권도를 처음 시작하게 된 계기는 무엇이었습니까?

저는 4남 2녀 중 한 명으로 자랐습니다. 아버지께서도 운동을 하셨고, 당시로서는 매우 진취적인 생각을 가지신 분이셨습니다. “이 시대에는 여자도 운동을 할 줄 알아야 한다.”며 저에게 태권도를 권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몸이 약해 건강을 위해 태권도를 시작했지만, 수련을 계속하면서 ‘나도 훌륭한 태권도 사범이 되어야겠다.’는 꿈을 품게 되었습니다.

당시 태권도 수련 환경은 어떠했습니까?

당시 도장의 월 회비는 50원에서 100원 정도였습니다. 여성 수련생은 매우 드물었고, 제가 수련할 당시에는 권옥희 사범님이 유일한 여성 선배였습니다. 권옥희 사범님은 우리나라 여성 태권도인 가운데 최초로 해외에 진출하신 분이었지만, 결혼 후 4단에서 수련을 마치고서 이후에는 제가 그 뒤를 이어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많은 어려움도 겪었습니다. “여자가 운동해서 무엇 하느냐”, “집에서 살림이나 해야 한다.”는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당시에는 여성 탈의실도 없어 도장에서 작은 방 하나를 내어 주셔서 그곳을 탈의실로 사용했습니다.

경기 환경도 지금과는 크게 달랐습니다. 초창기에는 남녀 구분 없이 함께 경기를 치렀고, 겨루기에서 남자 선수와 맞붙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남자 선수를 KO로 이긴 적이 있었는데, 상대 선수는 창피함 때문에 경기를 포기하기도 했습니다. 보호장비 역시 지금처럼 발달하지 않아 대나무로 만든 호구를 착용했고, 머리 보호장비도 없었습니다.

도복도 귀한 물건이었습니다. 광목으로 만든 거친 도복을 입었고, 대회가 끝난 뒤에는 도복이 없어지는 일도 흔했습니다. 저는 1966년부터 대한태권도협회 시범단 초창기 단원으로 활동하면서 협회에서 도복을 지원받았습니다.

최초의 여자 우수선수권대회에서 우승했을 당시를 기억하신다면요?

당시 상대 선수들은 대부분 저보다 체격이 훨씬 컸습니다. 결승에서 만난 선수도 배구선수나 농구선수였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저보다 머리 하나는 더 컸습니다. 저는 뛰어올라 얼굴을 가격하는 발차기로 공격했고, 상대 선수가 넘어졌습니다. 그러자 상대 선수가 화가 나 저를 세계 밀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당시 한국 사회에서 여성이 태권도를 한다는 것에 대한 인식은 어떠했습니까?

여성 태권도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은 매우 심했습니다. “여자가 무슨 운동을 하느냐.”는 말을 자주 들었고, 일부 남성 선배들은 일부러 거칠게 겨루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지기 싫은 마음에 끝까지 버텼지만, 운동을 마치고 탈의실에 들어가 울었던 적도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사범님께서 선배들을 꾸짖어 주시기도 했고, 저 역시 누구보다 열심히 운동하는 모습을 보여 드리면서 많은 사랑과 인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시범, 품새, 겨루기 어느 하나도 남들에게 뒤처지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하루 6시간에서 8시간씩 훈련하며 실력을 키웠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국가대표로 활동하셨는데 당시를 소개해 주십시오.

지금처럼 국가대표 선발 제도가 체계적으로 마련되어 있던 시기는 아니었습니다. 해외에서 태권도 시범이나 교류 요청이 있으면 제가 대한민국 여성 대표로 참가했습니다. 베트남 여성 선수들이 처음 한국을 방문해 경기를 치렀을 때도 제가 대표 선수로 출전했습니다. 당시에는 국가대표라는 명칭보다 대한민국을 대표해 활동한다는 사명감이 더 컸습니다.

선수 생활 이후에는 어떤 길을 걸으셨습니까?

선수 생활은 1972년까지 이어졌습니다. 이후 지도자 3급 과정을 이수했고, 대학을 졸업한 뒤 곧바로 미국으로 건너가 지도자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1988년 서울올림픽 당시 미국대표팀 코치로 활동하셨는데, 당시 해외에서 태권도의 위상은 어떠했습니까?

저는 태권도가 우리나라에 주어진 큰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였지만, 태권도는 세계 각국에 대한민국을 알리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외교관이 하지 못하는 일을 태권도가 해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1970년대 미국에서 태권도 사범으로 활동할 때만 해도 지역 시장이 직접 나와 환영해 주고, 언론과 인터뷰를 할 정도로 태권도의 위상은 매우 높았습니다.

태권도를 통해 대한민국을 알리고 세계인들과 교류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보다 큰 자부심이었습니다.

후배 여성 태권도인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십니까?

앞으로 태권도는 더욱 발전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여성들의 역할도 더욱 커져야 합니다. 세계태권도연맹, 대한태권도협회, 국기원 등 태권도 주요 기관에 더 많은 여성들이 진출해 의사결정에 참여해야 합니다. 단순히 여성의 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여성들이 책임 있는 위치에서 태권도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후배 여성 태권도인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도전해 주기를 바랍니다.





장정희

- '75 주한외국인여자선수권대회 1위
- '81 여성 심판자격 취득
- '88 대한태권도협회 여성분과위원회 초대 위원장
- '06 대한태권도협회 대의원
- '07 세계태권도품새선수권대회 여자부 코치
- '10 세계태권도품새선수권대회 1위 우승
- '21 대한태권도협회 부회장
태권도 9단

태권도를 처음 시작하게 된 계기는 무엇이었습니까?

학교에서 체육시간에 유난히 운동을 잘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를 따라가 보니 태권도장을 다니고 있었고, '태권도를 배우면 나도 운동을 잘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돼지저금통을 깨 입관비를 마련했고, 다음 날 바로 태권도장을 찾아가 도복을 받고 수련을 시작했습니다. 당시에는 집에서 태권도를 배우는 것을 혼날까 봐 도복을 집에서 빨지 못했습니다. 대신 친구들에게 태권도를 보여주고, 도복을 빨아주는 것으로 도움을 받기도 했습니다.

당시 태권도장의 분위기는 어떠했습니까?

그 시절에는 도장에 여자 수련생이 거의 없었습니다. 남성 수련생들 사이에서 혼자 운동했던 기억이 납니다. 시합에 출전하려고 했지만 당시에는 국기원이 설립되기 전이라 공인 단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회 관장님께서 관단증을 만들어 주셨고, 한성여고 체육관에서 열린 대회에 출전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경기는 지금처럼 체급 구분이 없어서 키나 몸무게와 관계없이 상대와 겨루었습니다.

수련생 시절 가장 기억에 남는 점은 무엇입니까?

저는 오래 친구들과는 조금 달랐던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나는 태권도 몇단이다.”라고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도복을 어깨에 메고 버스를 타면 버스요금을 받지 않을 정도로 태권도의 위상이 높았습니다.

선수 생활을 그만두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당시에는 여성들이 출전할 수 있는 태권도 대회가 매우 적었습니다. 여성 선수들이 활동할 수 있는 무대가 부족했기 때문에 선수 생활을 계속 이어가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당시 한국 사회에서 여성이 태권도를 한다는 것에 대한 인식은 어떠했습니까?

여성 태권도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매우 심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부정적인 시선을 보냈는지 지금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같으면 그런 편견은 쉽게 용납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사용했던 도복과 보호장비는 어떠했습니까?

그때는 광목으로 만든 누르스름한 도복을 입었습니다. 움직일 때마다 도복이 스치는 소리가 크게 났고, 보호장비도 지금처럼 전문적으로 제작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릎 보호대는 대나무를 대고 천으로 여러 번 감아 사용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운동한 탓에 지금도 다리가 좋지 않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여성 태권도인이 있다면 누구입니까?

미국에서 활동하시는 남궁명석 사범님이 가장 기억에 납니다. 체격은 크지 않았지만 시합에 출전하는 모습은 누구보다 당당했습니다. 우렁찬 기합과 박력 있는 경기 운영을 보며 같은 선수로서 큰 감동과 존경심을 느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심판으로 활동하셨는데 당시를 회상해 주신다면요?

당시에는 여성 심판이 거의 없어 제가 유일한 여성 심판으로 활동했습니다. 이후 양인옥 사범, 서춘희 사범, 정효심 사범 등 많은 여성 심판들이 배출되면서 여성들의 활동이 점차 확대되었습니다.

여성태권도연맹 창립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셨습니까?

초기에 한국여성태권도연맹이 창립되었고, 이후 한국여성태권도회를 거쳐 다시 한국여성태권도연맹으로 발전했습니다. 연맹을 창립할 당시에는 후원자가 전혀 없었습니다. 집기와 시설도 직접 마련해야 했고, 여러 기관을 찾아다니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특히 이등자 회장님께서 많은 지원을 해주셨고, 그 덕분에 연맹이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후배 여성 태권도인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십니까?

지금도 여성연맹이 존재하는 것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여성 태권도인의 권익을 위해 여성연맹이 앞으로도 계속 존재하며 발전해 나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정효심

- '86 태평양 태권도장 운영
- '86 세계태권도대회 준비위원회 여성위원
- '87 대한태권도협회 여성분과위원회 위원
- '02 한국여성태권도연맹 이사
- '12 세계태권도한마당 대외협력 부위원장
- '24 국기원 고단자 심사 평가위원
- '24 대한태권도협회 품새 부위원장
- 태권도 9단

태권도를 처음 시작하게 된 계기는 무엇이었습니까?

더 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서울에 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열여섯 살이 되던 해, 완행열차를 타고 무작정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당시에는 먹고살기 어려운 시절이었지만, 새벽 시간을 활용하면 무언가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 태권도장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태권도 수련은 어떠했습니까?

남자부 선배들에게 배우며 태권도를 열심히 수련했습니다. 하루에 왼발과 오른발 발차기를 각각 100번씩 했고, 어떤 날은 1,000번 가까이 연습하기도 했습니다. 품새 수련도 매우 많이 했습니다.

당시 도복 가격은 1,500원 정도였는데, 지금처럼 기능성이 좋은 도복이 아니라 광목으로 만든 도복이었습니다. 한 번만 빨아도 길이가 10cm 이상 줄어든 정도였고, 여러 번 삶고 빨아야 비로소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만큼 도복의 품질도 좋지 않았습니

수련 시절 가장 기억에 남는 경험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운동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당시에는 지금처럼 보호장비가 없어 맨몸으로 겨루기를 했습니다. 사범님과 대련할 때는 발차기 위력이 매우 강해 갈비뼈를 다친 적도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강도 높은 훈련을 받으며 실력을 키웠습니다.

본격적으로 지도자의 길을 선택하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두 차례 정도 선수로 시합에 출전해 보니 겨루기 선수는 제 적성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대신 품새에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선수의 길을 계속 걷기보다 체육관을 운영하며 후배들을 지도하는 것이 더 적성에 맞다고 판단해 지도자의 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여성 태권도 사범으로 활동하면서 어려움은 없었습니까?

1980년대에는 대부분의 학부모, 특히 아버지들이 아이를 도장에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성 사범인데다 체격도 크지 않다 보니 “여자 사범이 제대로 지도할 수 있을까?”라는 의심의 시선을 보내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지도력을 증명해야 했던 시기였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이나 에피소드가 있다면 소개해 주십시오.

1988년 서울올림픽이 장충체육관에서 열렸을 때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당시 여성 태권도인들은 태권낭자회를 중심으로 운영요원과 심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며 성공적인 대회 운영을 위해 힘을 보탰습니다. 여성 태권도인들의 역할과 역량을 보여준 뜻깊은 경험이었습니다.

태권낭자회는 어떤 계기로 결성되었습니까?

당시 여성 심판으로 활동하는 후배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여성 태권도인들이 함께 교류하고 발전할 수 있는 모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1986년 ‘여성태권도회’를 시작으로 여성 사범들이 뜻을 모았고, 이것이 오늘날 태권낭자회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선생님께 태권도란 어떤 의미입니까?

태권도는 제 삶 그 자체였습니다. 도복을 입고 오직 태권도의 길만 걸어왔으며, 지금까지도 그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끝까지 태권도를 이어가겠다는 신념으로 살아왔고, 반드시 9단까지 승단하는 것을 평생의 목표로 삼고 노력해 왔습니다.





임신자

- '79 제1회 전국여성태권도개인선수권대회 우승
- '82 제1회 국제친선여자태권도대회 국가대표 선발
- '85 제7회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우승
- '99 인천광역시 태권도부 감독 역임
- '02 한국여성태권도연맹 이사
- '18 제11대 한국여성스포츠회 회장
- '20 대한체육회 여성체육 부회장
- '24 경희대학교 태권도학과 교수

경희대학교와는 어떻게 인연을 맺게 되셨습니까?

대학에 진학할 당시 경희대학교에서 태권도 특기자 1기를 대규모로 선발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10명이 넘는 선수를 선발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학교에서는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4년 장학금을 지원하겠다고 입학을 권유했고, 국가대표였던 저는 자연스럽게 경희대학교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선수 시절 여성 태권도인으로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이었습니까?

당시 도장에는 대부분 남성 수련생들뿐이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남성 선수들과 함께 훈련할 수밖에 없었는데, 체격과 힘의 차이로 인해 제가 더 많이 다치고 더 큰 부상을 입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늘 부상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훈련했던 기억이 납니다.

선수 생활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선수 시절에는 체중 감량이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였습니다. 키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체급을 맞추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야 했습니다. 지금의 전자호구 시스템이었다면 저 같은 선수는 경기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생각도 합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작은 선수라도 기술과 힘이 뛰어나면 큰 선수를 충분히 이길 수 있었습니다.

가장 잊을 수 없는 순간은 1985년 서울에서 열린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세계 챔피언에 오른 때입니다. 시상대 위에서 태극기가 게양되는 모습을 바라보며 느꼈던 벅찬 감동과 뜨거운 눈물은 지금도 가장 소중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선수 생활을 마친 후, 지도자로서의 삶은 어떠하셨습니까?

선수 생활을 마친 뒤 지도자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1999년, 2000년 시드니올림픽을 앞두고 처음으로 올림픽 국가대표 선발전이 진행되었습니다. 당시 태권도가 올림픽 정식종목으로 채택되면서 모든 팀이 국가대표 선발을 목표로 치열하게 준비했습니다.

우리 팀은 좋은 성적을 거두었지만 선발 방식이 변경되면서 처음부터 다시 선발전을 치르게 되었고, 결국 불이익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당시 선수들에게 더 좋은 환경과 기회를 만들어 주지 못했던 점에 대해 지도자로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성 태권도인의 권익 향상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셨습니까?

많은 분들이 제 삶이 늘 순탄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는 가시 발길을 꽃길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 온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여성 선수들이 전국체전에 출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데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당시 인천시청 감독으로 활동하면서 가장 아쉬웠던 점은 전국체전에 여성부종목이 없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여성부가 정식종목으로 채택되기까지 무려 10년이 걸렸습니다.

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절감했고, 이를 학문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교수가 되겠다는 새로운 목표도 세웠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태권도학과 개설 자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족해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한국여성태권도연맹 재창립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셨습니까?

여성태권도연맹의 시작은 초대 회장이셨던 이학선 회장님의 열정에서 비롯되었습니다. 1970년대 후반, 해외를 오가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려운 시절이었지만 한국과 중국 여성 선수들의 국제 교류를 추진하며 여성 태권도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 주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나도 저런 영향력 있는 여성 지도자가 되어야겠다.'는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후 대한태권도협회 이사로 활동하면서 여성 태권도인들과 함께 여성연맹 재창립을 추진했습니다. 장정희 선배님, 정효심 선배님, 서영애 선배님, 서춘희 선배님 등 많은 여성 지도자들이 뜻을 함께했습니다. 하지만 여성들의 권익을 대변하기 위해서는 공식적인 조직이 반드시 필요했고, 이를 위해 연맹 창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큰 어려움은 재정 문제였습니다. 대회를 개최하고 사무국을 운영할 예산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선배들과 함께 이학선 회장님을 찾아갔고, 회장님의 소개로 이등자 회장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등자 회장님은 태권도 전문가는 아니었지만 여성 태권도인들의 열정에 공감해 당시로서는 매우 큰 금액인 5천만 원을 지원해 주셨습니다. 연맹 창립 이후에도 대한태권도협회의 공식 승인을 받는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많은 남성 임원들이 여성연맹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했지만, 결국 대한태권도협회 산하 공식 연맹으로 승인받으며 여성 태권도 발전의 중요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후배 여성 태권도인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십니까?

선배들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여성 태권도의 발전을 위해 자신의 역할을 묵묵히 수행했습니다. 누구보다 열정적이었고, 순수한 마음으로 변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제는 후배들이 그 뜻을 이어 여성 태권도를 한 단계 더 발전시켜 주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더욱 열정적으로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후배와 제자들이 있다면 저는 언제나 가장 큰 응원자가 되어 줄 것입니다.



서영애

‘06~’16 세계태권도품새선수권대회 국가대표
 ‘06~’14 세계태권도품새선수권대회 8연속 우승
 ‘14~’24 국기원 품새 강사
 태권도 9단

태권도를 처음 시작하게 된 계기는 무엇이었습니까?

아는 동생과 말다툼을 하던 중, 태권도를 배우던 그 동생의 형이 저에게 뛰 어 옆차기를 했습니다. 아팠던 기억보다 사람이 날아서 발차기를 하는 모습 이 너무나 신기하고 인상적이었습니다. ‘저게 무엇이지? 사람이 저렇게 날 아서 찰 수 있구나.’ 하는 놀라움이 태권도에 대한 호기심으로 이어졌고, 그 것이 태권도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태권도는 지 금까지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꾸준히 수련하고 있습니다.

당시 태권도 수련 환경은 어떠했습니까?

처음에는 수원에서 태권도를 배웠는데, 여자 수련생은 저를 포함해 세 명뿐 이었습니다. 중학생 때 태권도를 배우겠다고 하니 아버지께서는 “여자가 무 슨 태권도냐.”며 반대하셨습니다. 다행히 도장에서는 집안 형편을 고려해 무료로 수련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습니다.

당시 도장에는 탈의실도 없었습니다. 운동이 끝나면 남자 수련생들이 바로 옷을 갈아입었는데, 저는 시선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몰라 당황했던 기억이 납니다. 또한 당시 도장의 분위기는 매우 엄숙했고, 수련 역시 엄격하게 이 루어졌습니다.

서울에 올라온 뒤에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김영숙 사범님을 비롯한 많은 여성 태권도인들을 처음 만났고, 여학생들이 단체로 수련하는 모습과 여성 태권도 시범단에서 활약하는 여성 사범님들을 보며 ‘여성들도 이렇게 활발 하게 태권도를 하는구나.’ 하고 놀랐습니다. 이후 한국여성시범단의 일원으 로 활동하며 더욱 즐겁게 태권도를 수련할 수 있었습니다.

품새 선수로 활동하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2005년까지는 품새 심판으로 활동했습니다. 그러던 중 2006년 세계품새선 수권대회가 창설된다는 소식을 듣고 심판 등록 대신 선수 등록을 선택했습 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품새를 즐기는 마음으로 출전했는데 예상보다 좋은 성적을 거두면서 ‘내가 품새를 잘하는 사람이구나.’라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 습니다.

선생님께서 생각하는 품새의 변화는 무엇입니까?

제가 처음 선수로 활동하던 시절의 품새는 규정을 정확하게 지키는 것이 가 장 중요했습니다. 먼저 동작의 형태를 익히고, 그 동작이 담고 있는 의미를 이해한 뒤 반복적인 수련을 통해 실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익혔습니다. 마지막에는 자신의 것으로 완성하는 과정이 품새 수련의 핵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품새 경기는 동작의 정확성과 시간 기준 등 경기 규정에 맞 춰 평가하는 비중이 커졌습니다. 제한된 시간 안에 모든 동작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선수 개인의 개성과 수련의 깊이를 충분히 표현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과거와 현재 품새의 가장 큰 차이라고 생각 합니다.

국가대표로 활동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제1회 세계품새선수권대회에서는 단체전 국가대표로 출전해 우승했고, 이 후 2016년까지 개인전 국가대표로 활동했습니다. 모두 10차례 세계선수권 대회에 출전해 금메달 9개를 획득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한 대회에서 표적 발차기 종목을 수행하던 중 착지 과정에서 무릎을 크게 다쳐 경기를 끝까지 치르지 못했던 순간입니다. 그 대 회에서 우승한 독일 선수가 “시상식에 나오지 않아도 괜찮지 않겠느냐.”고 걱정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내가 3위 시상대에 함께 서 있어야 당신의 우승도 더욱 빛날 수 있다. 그것이 함께 경쟁한 선수로서의 예의라고 생각한 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독일 선수는 진심으로 고맙다는 인사를 전 했습니다. 그 일을 통해 경쟁보다 서로를 존중하는 태권도 정신의 가치를 다 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국가대표로 해외 대회에 참가하며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소개해 주십 시요.

초창기 국제대회에서는 종주국 선수라는 이유만으로 외국 선수들이 먼저 다가와 기술을 배우려 했습니다. 심지어 같은 대회에 출전한 경쟁 선수들에 게도 품새를 지도해 주곤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경쟁보다 태권도를 함 께 발전시키려는 종주국의 책임감과 사명감이 더 컸던 시절이었다고 생각 합니다.

후배 태권도인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십니까?

지금의 태권도는 경기력도 중요하지만 태권도 정신을 동작 속에 함께 담아 내는 수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상대보다 점수를 더 많이 얻거나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같은 동작이라도 태권도 정신과 수련의 깊이가 담길 때 비로소 더욱 가치 있는 태권도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술뿐 아니라 정신까지 함께 빛나는 태권도 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논고 1]

여성과 태권도: 도전과 성취

국립태권도박물관 학예연구사 나 승 재

들어가며

태권도는 광복 이후 한국에서 근대적 체계를 갖춘 무도로 정비되었다. 여러 갈래로 나뉘어 있던 도장과 단체가 협회 체계로 모이고, 1972년 국기원 설립과 1973년 세계태권도연맹 창설을 거치며 기술의 표준화와 국제 보급의 틀이 갖추어졌다. 이어 1988년 서울올림픽과 1992년 바르셀로나올림픽에서 시범종목으로 선보인 뒤, 2000년 시드니올림픽에서 정식종목으로 채택되면서 태권도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수련되는 국제 스포츠로 자리 잡았다. 올림픽에서 남녀 경기가 동등한 비중으로 치러지는 오늘의 모습은, 태권도가 여성과 남성 모두의 종목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태권도가 국제 스포츠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여성 선수와 지도자들은 빼놓을 수 없는 역할을 했다. 그러나 그 역사의 서술은 오랫동안 남성 지도자와 선수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여성의 자리는 충분히 기록되지 않았다. 초기 여성 태권도의 흔적은 협회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보존되지 못한 탓에, 오늘날 남아 있는 자료는 신문 기사 몇 줄과 흩어진 대회 자료, 그리고 당사자의 구술 정도에 그친다.

이 시기를 재구성하는 일은 흩어진 자료를 하나하나 모아 빈자리를 메우는 작업에 가까웠다. 국립태권도박물관은 이러한 공백을 메우기 위해 초기 여성 태권도인들의 구술을 새로 채록했다. 김영숙·남궁명석·장정희·정효심·임신자·서영애 여섯 명의 증언은 문헌만으로는 닿기 어려운 현장의 경험을 전해 주며, 흩어진 기록을 잇는 실마리가 된다. 구술은 기억에 기대는 만큼 교차 검증이 필요하지만, 기록이 부족한 시기일수록 당사자의 목소리는 역사를 복원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초기 여성 태권도의 자취는 종목의 역사에 그치지 않는다. 여성의 사회 진출이 제한적이던 시기에 태권도를 택한 이들은 종목

의 성장에 기여하는 동시에 '여성에게 허용된 활동'의 경계를 넓혀 갔고, 그 자취는 태권도사인 동시에 여성사의 한 장면이 된다. 실제로 초기 여성 태권도의 흐름은 한국 여성 스포츠 전반의 발전과 큰 틀에서 비슷하게 전개되었다. 여성 스포츠가 대체로 학교를 통해 저변을 넓힌 것과 달리 태권도는 도장에서 출발했으나, 사회의 성 역할 통념 속에서 활동하며 국제 무대에서의 성취를 통해 인식을 바꾸어 간 과정은 양쪽에서 비슷하게 나타났다. 이 글이 여성 태권도사를 여성사의 한 갈래로 읽으려는 까닭도 여기에 있다.

이 글은 초기 여성 태권도의 역사를 '수련의 저변', '전문 경기', '지도와 행정'이라는 세 영역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시대를 가로지르며 각 영역을 따라가다 보면, 여성의 활동이 참여에서 성취로, 다시 리더십으로 확장되어 온 흐름과 아직 남은 과제가 함께 드러난다. 다만 초기 사료는 단편적이고 구술은 기억에 기대므로, 이 글은 확인 가능한 기록을 우선하고 검증이 더 필요한 대목은 그렇게 밝혀 둔다.

여성과 수련 — 저변의 형성

전통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무에는 남성 고유의 영역으로 통했다. 여성의 신체 활동은 가사와 육아에 필요한 체력 정도로 여겨졌고, 격렬한 신체 접촉을 동반하는 태권도에서 여성의 존재는 더욱 드물었다. 활동적인 종목은 남자아이에게, 정적이고 우아한 활동은 여자아이에게 어울린다는 통념이 강했던 시기였다. 이런 분위기에서 여성이 도장에 들어서는 일 자체가 예외에 속했다.

그 예외를 처음 만든 인물 가운데 김영숙이 있다. 그는 1957년 열살 무렵 태권도에 입문했는데, 가족의 반대 속에서 어머니의 상

복 천을 뜯어 도복을 지어 입고 수련을 이어갔다고 전한다. 도복 한 벌조차 갖추기 어려웠고 함께 수련할 또래 여성도 거의 없던 환경에서, 수련을 지속하는 일은 그 자체가 선택이자 도전이었다. 도장에 드나드는 여성을 향한 시선도 우호적이지만은 않아, 구경거리처럼 여겨지기도 했다는 증언이 남아 있다.

여성 수련이 사회적으로 확인되기 시작한 통로는 학교와 언론이었다. 일부 여자고등학교와 대학에서 특별활동이나 동아리 형태로 태권도를 접할 기회가 생겼고, 여성 유단자의 등장은 언론을 통해 가시화되었다. 1966년 9월 이영옥·이경희와 장명여고의 홍순자가 초단에 합격한 일이 '태권의 세 아가씨'라는 제목으로 보도되었고, 1968년에는 전북 완주의 김홍이 여성 3단에 올랐다는 기사가 실렸으며, 같은 해 주한외국인 태권도대회에 여자부가 처음 편성되었다. 여성의 수련이 취미를 넘어 정식 무도 활동으로 인정받기 시작한 것이다. 여성이 학교를 통해 운동에 입문하는 흐름은 한국 여성 스포츠 전반에서 나타났다. 광복 직후 여성 스포츠는 대체로 학교 체육을 기반으로 시작되었고, 1948년 런던올림픽에 한국 최초의 여성 선수로 출전한 원반던지기의 박봉식도 학창 시절 운동에 재능을 보인 경우였다. 다만 태권도에서 여성의 입문은 주로 도장을 통해 이루어졌고, 학교는 그 수련을 사회적으로 드러내고 저변을 넓히는 통로가 되었다.

1970년대에 저변은 한층 넓어졌다. 1971년 김영숙이 국내 최초의 여성 전용 도장인 선미도장을 열어, 여성이 불필요한 시선이나 차별에서 벗어나 수련할 공간이 처음으로 마련되었다. 이런 공간은 여성 참여를 늘리는 계기가 되었고, 정란여상·은광여고 등 학교 단위 여성팀이 만들어지면서 선수층이 두터워지기 시작했다. 같은 시기 승단심사에서 여성 응시자가 최고 득점을 기록한 사례도 전한다. 태권도를 소재로 한 만화영화 〈마루치 아라치〉가 인기를 끌며 종목에 대한 대중적 친근감이 넓어진 것도 이 무렵으로, 어린이층을 중심으로 한 저변 확대의 한 배경이 되었다. 이러한 확산의 흐름 속에서도, 여성들이 태권도에 들어선 계기와 경로는 저마다 달랐다. 1975년 겨울 서울 을지로의 한 시장 안 도장을 우연히 보고 입문한 정효심은, 새벽반에서 여성은 자신 뿐이라 남성 수련생들 사이에서 운동했다고 전한다. 여덟 살이던 1971년에 입문한 임신자는 집 근처 가게 사이에 있던 도장에서 흠바닥에 광목 도복을 입고 수련하던 어른들의 모습에 이끌렸다고 전한다. 우연한 마주침과 어린 시절의 동경이 입문의 계기가 되었고, 이렇게 들어선 이들이 1980년대 이후 선수와 지도자로 성장했다.

다만 수련 환경은 여전히 남성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었다. 1972년 문을 연 국기원도 개원 초기에는 여자 화장실을 갖추지 못했다. 1973년 지도자 교육에 참가한 유일한 여성이던 김영숙은 이러한 상황을 바꾸고자 시설 개선을 요구했다.¹⁾ 여성 참여가 늘면서 여성용 보호구에 대한 고민과 연구도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입문기와 1970년대를 통틀어, 여성 태권도의 저변은 제도의 뒷받침보다 개인의 의지에 더 많이 기댔다. 일반 사회의 무예가 남성 중심의 경기단체를 통해 조직된 것과 달리, 여성 태권도는 학교와 소수의 전용 공간이라는 한정된 통로를 거쳐 한 사람씩 늘어났다. 이는 아직 조직이나 정책으로 보호받지 못한 만큼 개개인의 결단에 의존하는 취약함을 안고 있었다. 그럼에도 이 시기에 형성된 저변이 없었다면, 뒤이은 경기와 지도의 확장은 출발점을 갖지 못했을 것이다.

여성과 경기 — 선수의 무대

여성 태권도가 개별 수련에서 공식 경기로 옮겨 간 것은 1970년대였다. 1970년 전국 규모의 태권도 개인선수권대회에 여자부가 처음 편성되어, 41명이 참가한 이 여자부 경기에서 남궁명석이 우승했다.²⁾

이 대회 우승자 남궁명석은 훗날 미국으로 건너가 사범으로 활동했으며, 1997년에는 여성 최초로 국기원 공인 9단에 올랐다. 이후 학교와 도장을 단위로 한 여성 선수층이 늘면서 여성부 경기 신설 요구도 이어졌고, 프레월드 태권도대회 등 국내외 대회에 여성이 참가하며 경기 경험을 쌓았다. 1979년에는 이학선을 초대회장으로 하는 한국여성태권도연맹이 창립되고 제1회 전국여성태권도개인선수권대회가 열려, 여성 전용 대회와 대표 선발이 정례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1) 김영숙의 구술 회고에 따르면, 「당신의 역사: 험난했던 태권우먼의 길, 국기원에 여자화장실도 없었지」 중앙일보(2014); 「어머니 옷 잘라 태권도 도복 만들어 입었어요」 오마이뉴스(2014. 9. 15).

2) 이 대회의 정식 명칭은 제1회 전국국민학교태권도개인선수권대회 겸 전국여자부태권도개인선수권대회이다(경향신문, 1970. 10. 26).

초기 경기에서 여성이 늘 동등하게 대우받은 것은 아니었다. 여성부 경기가 따로 마련되기 전에는 출전 기회 자체가 제한되었고, 여성의 경기를 진지한 종목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분위기도 남아 있었다. 이런 제약을 겪으며 여성들은 별도 대회와 연맹의 필요성을 제기했고, 그 요구가 1970년대 후반의 조직화로 이어졌다.

여성 경기 스포츠의 성장은 태권도에 국한된 현상이 아니었다. 한국 여성 스포츠는 1960~70년대 농구·배구·탁구 같은 구기 종목에서 국제 대회 성과를 내기 시작했고, 1970~80년대를 거치며 전문화되었다. 태권도 여성 경기 역시 학교와 도장을 기반으로 선수층을 키워 1980년대 중반 이후 국제 무대로 나아갔으며, 다른 종목의 여성 선수들이 그러했듯 국제 대회에서의 성취를 통해 여성 체육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꾸어 갔다. 시기와 종목은 달라도, 여성이 보조적 참여자에서 경쟁의 주체로 나아간 흐름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다만 태권도는 구기나 기록 종목과 달리 직접적인 신체 접촉을 동반하는 무도이자 도장과 단증 체계를 중심으로 발전한 종목이라는 점에서 고유한 특성을 지녔고, 여성의 진입이 한층 낯설게 받아들여지거나 전용 공간의 필요가 일찍 제기된 것도 이러한 특성과 맞닿아 있다.

여성 경기가 자리잡는 과정은 태권도가 스포츠로 정비되던 흐름과 맞물려 있었다. 이 시기 태권도는 체급과 경기 규정, 보호구를 갖추며 경기 종목으로서의 틀을 다졌고, 여성 경기도 그 안에서 남녀 체급별 체계로 자리 잡았다. 여자부는 1978년 여자 고등부가 8체급으로 처음 출전했고, 1979년 제1회 전국여성태권도개인선수권대회는 8체급 146명 규모로 열려 여성 경기의 체급 체계가 자리를 잡았다.

국제 무대에서의 성과는 빠르게 이어졌다. 남자부 경기만 치러지던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는 서울에서 열린 1985년 제7회 대회에서 처음으로 여자부 경기가 함께 열렸고, 이 대회에서 임신자는 땀띠급 우승자로 금메달을 차지하며 한국 여성 선수의 경기력을 국제 무대에 알렸다. 여자부가 정식으로 편성된 것은 1987년 제8회 대회로, 이때 제1회 세계여자태권도선수권대회가 함께 개최되며 여성 태권도 경기는 국제적 위상을 갖추기 시작했다. 1988년 서울올림픽에서 태권도가 시범종목으로 선보일 때 여자 대표선수도 함께 출전했으며, 1992년 바르셀로나올림픽 시범종목을 거쳐, 1994년 국제올림픽위원회는 2000년 시드니올림픽부터 태권도를 남녀 정식종목으로 확정했다. 국내에서도 전국체전이 1993년 여자부를 시범종목으로 채택한 데 이어 1995

년 정식종목으로 채택하면서, 여성 경기는 제도권 안에서 확고한 자리를 얻었다. 그리고 2000년 시드니올림픽에서 태권도가 정식종목으로 처음 치러졌을 때, 여자부에서 정재은과 이선희가 금메달을 차지하며 한국 여성 태권도는 올림픽 무대에서 처음으로 성과를 거두었다.

여성이 국제 대회에서 거둔 성과는 경기 기록을 넘어선 의미를 지녔다. 여성의 격투 종목 참여를 낯설게 여기던 사회 인식 속에서, 세계 무대에서의 입상은 여성도 정상급 무도 경기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었다. 1988년 서울올림픽을 비롯한 국제 대회를 계기로 여성 체육인에 대한 성차별적 인식이 조금씩 달라진 흐름은 태권도에서도 다르지 않았다. 이 무렵 여성은 더 이상 ‘수련의 대상’이 아니라 ‘경쟁의 주체’로 자리매김했으며, 올림픽 정식종목 채택 이후 여성 경기가 남성과 동등한 비중으로 치러지게 된 것도 이 시기 선수들이 쌓아 올린 성과 위에서 가능했다.

여성과 지도·행정 — 리더십의 진입

여성의 활동은 선수에 머무르지 않고 심판·지도·행정으로 확장되었다. 겨루기 선수로 활동하던 장정희(개명 전 장정남)는 1981년 여성 최초로 심판 자격을 취득했고, 1987년 춘계 종별선수권 대회에서는 서춘희·박정옥·양인옥이 여성 심판으로 위촉되어 활동했다. 심판 강습회를 통해 자격을 갖춘 여성이 늘면서, 경기를 운영하고 판정하는 자리에도 여성이 들어서기 시작했다. 1988년에는 대한태권도협회 기술전문위원회 산하에 여성분과 위원회가 신설되어, 여성이 정책 결정 구조에 진입하는 제도적 통로가 마련되었다.

여성인 심판과 임원으로 진입한 일은 단순한 활동 영역의 확대 이상을 뜻했다. 경기의 규칙을 적용하고 판정하며 정책을 결정하는 자리는 종목 안에서 발언권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영역이다. 선수로서의 성취가 개인의 기록에 머문다면, 심판과 행정으로의 진입은 여성이 태권도의 운영 자체에 관여하기 시작했음을 의미했다.

지도 영역에서도 활동 범위가 넓어졌다. 김영숙은 전용 도장을 운영하며 여성 지도자로 활동을 시작했고, 임신자는 선수에서 국가대표 코치로 활동을 이어 가며 후속 세대의 진입 경로를 넓혔다. 정효심은 도장을 운영하며 여성 지도자로 활동했고, 서영애는 1980년대 주부 선수로 겨루기에 나선 뒤 품새로 전향해 세

계 정상급 선수로 활동했다. ‘도복을 처음 입은 뒤로 다른 길을 걸어 본 적이 없다’는 그의 말처럼, 여성의 참여 방식은 한 갈래에 머물지 않았다. 1980년대 이후에는 해외로 나가 태권도를 보급하는 여성 지도자도 나타나, 겨루기와 품새, 국내외 도장 운영에 이르기까지 여성 태권도인은 종목 안의 여러 영역에서 전문성을 쌓아 갔다.

여성들의 결속도 리더십의 기반이 되었다. 1979년 출범한 한국여성태권도연맹은 1984년 해체되었으나, 1986년 여성 지도자 21명이 한국여성태권도회를 새로 결성했다. 이 조직은 1987년 태권낭자회로 이름을 바꾸며 계간지를 발행했고, 1994년 다시 한국여성태권도회로 명칭을 바꾸었다. 태권낭자회는 1980년대 여성 태권도 활동을 앞장서 이끈 단체로, 발행한 계간지는 흩어져 활동하던 여성 태권도인을 잇고 그 활동을 기록으로 남긴 통로였다. 오늘날 초기 여성 태권도사를 재구성하는 핵심 자료가 바로 이 기록들이다.

1957년 입문했던 김영숙이 2000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제1회 국제여자오픈태권도대회 조직위원장을 맡은 것은, 한 개인의 자취가 수련에서 경기와 운영의 영역까지 이어졌음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한 사람의 생애 안에서 입문과 경기, 도장 운영과 국제 행사 주관이 차례로 나타난 셈이다.

그러나 참여와 성취가 곧바로 리더십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선수층의 성장에 견주어 협회 임원·국제심판 등 결정 권한이 모이는 자리의 여성 비중은 여전히 낮은 편이다.³⁾

전문성을 쌓은 여성 인력이 출산·양육 등으로 현장을 떠나는 경력 단절, 해체와 재건을 거듭해 온 여성 조직의 불안정한 기반도 함께 남은 과제다. 국제 무대에서도 세계태권도연맹은 이사회에 대륙별로 남녀 이사를 최소 1명씩 두도록 정관에 규정하고, 2029년까지 이사회의 성별 균형을 이루겠다는 목표를 함께 두고 있다.⁴⁾

여성인 수련하고 경쟁할 권리를 넓혀 온 만큼 이끌고 결정할 기회 또한 고르게 열려야 한다는 과제는, 태권도만의 것이 아니라 한국 여성 스포츠가 함께 풀어 온 숙제이기도 하다.

나가며

초기 여성 태권도의 역사는 수련의 저변에서 출발해 전문 경기로, 다시 지도와 행정으로 활동을 넓혀 온 과정이었다. 자원도 제도도 거의 없던 시기에 한 사람씩 참여를 이어 온 이들의 활동을

바탕으로, 오늘날 여성은 선수뿐 아니라 사범·국제심판·협회 임원으로 활동하며 일선 도장 수련생의 상당수를 이룬다. ‘여성 없는 태권도’를 상상하기 어려운 오늘날의 모습은 이 초기 세대의 활동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이 초기 세대의 활동을 전하는 기록은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어, 온전히 전해지지 못한 채 남아 있다. 흩어진 자료가 체계적으로 수집·보존되고 있는지는 앞으로의 연구가 이어받아야 할 몫이다. 이 전시가 구술채록과 소장품을 모아 미기록 영역을 채우려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품새 도복과 대회 자료집, 태권낭자회 계간지 같은 소장품과 여섯 명의 구술이 흩어진 신문 기사와 함께 그 시대를 증언하며, 한 사람씩 이어 온 자취를 다시 잇는다. 남성 중심으로 서술되어 온 태권도사를 다시 쓰는 이 작업 속에서, 여성 태권도의 역사는 비로소 온전한 모습을 갖춘다.

3) 한국체육학회가 2021년 세계여성의 날 기념 토론회에서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대한체육회를 비롯한 주요 스포츠단체의 여성 임원 비율은 2021년 3월 기준 약 10%에 그쳤다.

4) 세계태권도연맹 정관(2026. 4. 11. 시행) 제5.8.3조: “Each continent must be represented by at least one (1) male and one (1) female Council Member.”(각 대륙은 최소 남성 1명과 여성 1명의 이사로 대표되어야 한다.) 제 2.2.4조: “...equal gender representation within its Council, Commissions and Committees by the year 2029.”(…2029년까지 이사회·위원회의 성별 균등 대표를 지향한다.)

[논고 2]

여성 태권도인으로서의 삶과 태권도 활동 경험: 태권도 운명이 되다

우석대학교 태권도학과 교수 송 남 정

1. 태권도와 함께한 여정

1) 태권도와의 만남

5살 때 서울로 이사를 왔다. 김포공항 가까이 있던 동네로 서울에서도 외곽에 속했던 공향동이다. 어렴풋이 기억나는 것은 7살 때 스스로 태권도를 배우겠다고 그 동네 2층 건물에 있는 태권도장으로 올라갔다. 그때가 1977년이였다. 특히 그 시절에는 태권도 수련생들이 거의 남자였으니 그때의 관장님도 조금은 당황스러웠을 것 같다. 부모의 손을 잡고 온 것도 아니고 키도 크지 않은 조그마한 선머슴같이 보이는 여자아이가 혼자 와서 태권도를 배우겠다고 했으니까 말이다. 그때의 관장님께서 ‘무슨 여자아이가 태권도를 배우냐’며 혼쭐을 내서 그냥 돌아야 했다. 이후 한 달쯤 지났을까 다시 찾아갔을 때는 다른 관장님께서 지도하고 계셔서 태권도 수련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태권도와 저의 인연이 시작되었다.

저의 초등학교 시절은 집→학교→태권도장→집이 하루 일과였다. 태권도를 배우는 동안 한 번도 지루하게 느낀 적이 없으며, 태권도 수련시간이 아니어도 태권도장에 가서 놀았던 기억이 난다. 그 당시 오전 6시 새벽 수련시간도 있었는데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일어나 태권도장에 가곤 했다. 특히 한 겨울 새벽 수련을 가기 위해 아무도 밟지 않은 새하얀 눈길을 밟아 나의 발자국을 남기며 걸어갔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다. 또한 매년 야외 태권도 시범을 보였는데 멀리뛰어 차기(옆차기·뒤차기), 장애물 뛰어 앞차기 등의 기술격파를 주특기로 선보였던 기억, 작은 키인데도 체중이 많이 나가 하루에 500ml 우유로 버티며 체중 조절을 해서 겨루기 시합에 참여했던 기억이 새록새록하다. 남자 수련생들 속에서의 힘든 연습 과정이었지만 참 열심히 했었다.

이런 저에게 또 다른 재능이 있었는데 그것은 춤이었다. 춤추는 걸 좋아해서 그 시절 유행하는 춤은 거의 따라 했던 것 같다. 춤에 대한 흥미는 창작 안무로 이어졌고 초등학교 때부터 그 당시 유행하던 허슬(Hustle)을 친구들에게 지도해서 학예회나 소풍 때 선보이곤 했다. 물론 태권도 시범과 함께. 이것이 학창시절 나의 삶이었고 태권도와 춤은 저의 특기이며 자랑이었다. 이런 저는 초등학교·중학교에 제출하는 장래희망 조사에 언제나 ‘무술 1인자’라고 작성하는 일반적이지 않은 여학생이었다.

2) 태권도 운명이 되다

20대 다양한 경험을 하며 사회생활을 혹독하게 배워나간 것 같다. 그러다 30살이 되었을 때 자리잡지 못한 나의 진로에 대해 깊이 고민했고 제일 좋아하고 잘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금 생각했을 때 그것은 태권도와 지도하는 것이었고 이때부터 태권도 수련 및 지도·연구에 몰입하기 시작했다.

그동안 많이 접했던 무용적인 움직임(에어로빅, 께즈댄스, 한국무용, 현대무용, 발레, 힙합댄스, 라틴댄스 등)과 접목한 ‘송남정 태권무’를 개발하여 2004년부터 보급했다. 동시에 품새 선수로도 활동하며 제1회, 제2회, 제3회 세계태권도품새선수권대회에서 3회 연속 우승하는 기록을 세웠고 이를 통해 대통령 체육훈장 거상장을 수훈했다. 또한 기술의 깊이를 위해 석·박사과정을 거치며 학문적 사고를 넓히며 수련에 매진했다.

2000년대 중반에 이창후(2000)의 「태권도의 철학적 원리」 저서를 접하며 몸에 익혀왔던 많은 무용적인 움직임이 몸 움직임을 숙련성을 높이고 있음을 깨달았고 그러한 무용적인 움직임이 태권도 기술 발휘와 다르지 않음을 알게 되었다. 그의 저서에 ‘태권도의 품새 역시 제대로 태권도의 의미를 담아 이루어진다면 단지 강하고 날카롭기만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드럽고 그 흐름



1981(11세)



2005년(35세)



2017년 세계태권도한마당 갈라쇼 위력격파 시범

은 율동적이어서 생명력을 드러내는 것이다. 어느 것이 춤이고 어느 것이 태권도인가? 춤과 태권도의 <도>란 곧 움직임의 <도>이다’라고 기술되어 있는 것과 같이 저의 경험이 몸 움직임의 숙련성을 높이고 기술을 이해하는 폭을 넓혔다고 판단했고 이것이 품새 지도를 전문적으로 하면서도 태권무를 보급했던 이유였다. 또한 박사과정을 통해 타 무술을 접하면서 태권도 기술의 깊이를 깨달았고, 살아 있는 기술 발휘를 위한 수련과 연구에 더욱 흥미를 갖게 되었다. 현재까지도 이에 대한 수련과 연구는 지속되고 있다.

저의 지난 세월을 돌이켜보면 7살 때 태권도를 시작했는데 동일한 나이의 조카를 보며 ‘저렇게 어렸던 내가 혼자서 태권도장에 찾아가 어떻게 입관했지’라는 생각에 신기하게 느껴졌다. 이에 ‘태권도는 나의 운명이었구나’라고 생각하며 태권도와 함께 살아가고 있다.

2. (여성) 태권도인으로 산다는 것 : 후배 세대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

1970년대에 여성이 태권도 수련을 한다는 것은 앞에서 언급했듯이 태권도 사범(관장)님부터 편견을 가지고 있어서 쉽지 않은 일이었다. 태권도장은 남성 지도자 및 수련생이 대부분이어서 태권도를 수련하는 여성은 그 속에서 적응을 잘하는 성격의 소유자였던 것 같다.

그렇게 성장하여 태권도를 깊이 있게 이해하고 수련하게 된 계

기는 2002년 국기원에서 선발하는 제1기 품새 실기 강사¹⁾로 발탁되면서였다. 품새에 남다른 관심을 갖고 수련해 온 사범님들이 모인 집단(품새 실기 강사회)인 품새 실기 강사(사범)에게 국기원 연수원(WTA)에서는 국기원에서 보급하고 있는 태권도 기술을 전수했고 또한 태권도 기술을 함께 토론·연구하며 품새 전문 사범으로 성장시켜 주었다. 이 기간은 저에게 귀한 시간이었다. 이 시기 한참 품새 선수로도 활동하고 있어서 품새를 잘하는 사범 측에 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기원 정식 품새 실기 교수(사범)로 활동은 2008년이 되어서야 가능했다.

태권도가 성인 남성 위주 수련으로 시작하여 보급되었고 그러다 보니 태권도 지도자 및 단체 관계자들이 남성 위주로 움직여지는 구조였던 건 사실이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남성들도 인정할 실력이라고 생각했다. 여기에서의 ‘실력’이란 태권도의 기술적인 실력을 우선적으로 갖춰야 하고, 학문적인 역량, 넓은 안목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통찰력, 타인과 조화를 이룰 줄 아는 심력 등 많은 것을 포함하는 실력을 말한다. 지난 세월을 돌이켜보면 이러한 실력을 갖추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 2017년 공식적인 행사에서 여성이 얼음 위력격파는 최초로 했던 시범으로 ‘여성도 태권도 기술 수련에 매진하면 충분히

1) 제1기 품새 실기 강사는 17명(남성 15명, 여성 2명)이 선발되었으나 청강생 사범(4명) 포함 21명의 사범이 1년간 국기원에서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았다. 이후 품새 실기 강사회의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토론·연구·수련을 진행했다.

큰 힘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고자 했다. 현재는 각 태권도 기관·단체에서 여성을 대표하는 임원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정하고 있어서 능력있는 여성 태권도인들의 활동을 유도하고 있어 고무적이다. 그러나 가끔 성별의 차이로 태권도 기술·능력 차이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태권도인을 만날 때도 있다. 태권도인 스스로가 이러한 사고를 버려야 하는 것이 우선이다. 국제태권도사범 자격연수 과정에서 품새 지도를 할 경우 항상 하는 말이 있다. ‘저는 성별에 있어서 여성이지만 태권도인으로서 사범님들을 지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라는 메시지다. 후배 세대 여성 태권도인들에게 다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 여성 태권도인이지만 성별을 떠나 태권도인으로서 자질 즉, 실력을 갖춘 사범이 되길 바란다고.

3. 가르치고, 연구하고, 함께서다

이 말은 후배들에게만 건넨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먼저 한 다짐이기도 했다. 몸으로 부딪히며 하나씩 채워온 시간들이었다. 품새를 통해 실전적인 힘의 발휘, 즉 움직임의 원리를 터득하는 것을 목표로 수련에 임했고 그러한 목적을 위해 연구해왔다. 이를 통해 축적된 수련 방법을 보급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현재 국기원·대한태권도협회 등의 공공기관 또는 개인 세미나를 통해 전국·전 세계에 태권도 기술을 보급하고 있다. 2016년부터는 WTA 새품새 개발과 유단자 품새 수정 작업에도 참여하며, 품새를 가르치는 일을 넘어 그 기준을 함께 만드는 자리에도 서 왔다. 이 과정에서 쌓인 것들은 「태권도 공인품새 해설」을 비롯한 몇 권의 책으로도 남겼다. 이와 함께 태권무(음악과 함께 하는 태권도 기술 수련)를 통해서도 같은 목적에 다가가고자 했다. 태권도에 흥미를 갖고 재미있게 수련에 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과, 태권도 기술 발휘를 위한 몸 움직임의 숙련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2000년대 초반부터 이를 개발·보급해 왔다. 이 흐름은 2007년 대한태권도협회 '공인태권체조' 개발로 이어져 협회 차원의 정식 프로그램으로 자리잡았고, 지금도 우석대학교 태권도학과에서 이를 가르치고 있다. 품새와 태권무, 이 두 갈래의 수련에 대한 기술적 연구·보급과 함께 이론적 정립을 위한 연구도 꾸준히 해오고 있다. 여러 편의 논문을 학회지에 발표해왔고, 한국무예학회·세계태권도문화학

회·한국여성체육학회의 이사로 활동하며 이 분야 연구 공동체 안에서 자리를 지켜왔다. 이것이 후세 태권도 수련자와 연구자에게 심도 있는 수련 및 연구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이 모든 과정은 태권도를 수련한 여성 태권도인으로서의 정체성과 늘 함께였다. 오랫동안 한국여성태권도연맹에서 교육분과 위원장과 이사로 활동하며 여성 태권도인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역할을 해왔고, 대한태권도협회와 태권도진흥재단의 이사로도 자리를 넓혀왔다. 현 사회에서 약자로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반 여성들을 위한 대처 방안을 모색하는 데에도 힘을 보태고자 호신술 프로그램을 개발해 꾸준히 보급해왔다. 태권도 공공기관의 여성 태권도 임원으로 활동하며 여성 태권도인의 위상을 높이하고자 하는 것도 같은 마음에서다. 이러한 활동이 후배 세대의 여성 태권도인들에게 길잡이가 되었으면 한다.

<필자 주요 이력>

- 2003~2009 국내 다수의 태권도 품새 대회 우승
- 2004~2017 '송남정태권무' 개발 및 국내외 보급
- 2006~2008 세계태권도품새선수권대회 성인부 3연속 우승
- 2007 「태권도 공인품새 해설」 공저
- 2007~2010 대한태권도협회 '공인태권체조' 개발 팀장
- 2008~현재 국기원 세계태권도연수원 품새 실기 교수
- 2008~2016 한국여성태권도연맹 교육분과 위원장
- 2010~현재 한국무예학회 이사
- 2012~2018 Smart-3S호신술 개발 및 보급
- 2013~2019 한국여성태권도연맹 이사
- 2014~현재 대한태권도협회 교육 강사
- 2016~현재 세계태권도문화학회 이사
- 2016~2020 WTA-WT 새품새 개발 및 수정 위원
- 2017~2024 대한태권도협회 이사
- 2018~현재 우석대학교 태권도학과 태권체조 지도
- 2019 「스마트-3S 호신술」 공저
- 2020~현재 한국여성체육학회 이사
- 2025~현재 태권도진흥재단 이사
- 2025 「KTA 2024 표준교육과정 품새」 공저

도판목록
List of Plates

1 대한뉴스 제140호 「당수도 연무대회」 Daehan News, Issue 140 “Tang Soo Do Demonstration Tournament” 1957 1분 15초 한국정책방송원	2 태권의 세 아가씨 영예의 초단 Three Taekwondo Ladies Receive Honorary 1st Dan 1966. 9. 20. 조선일보
3 여자 태권 사범, 해외 진출 Female Taekwondo Instructors Dispatched Overseas 1969. 2. 22. 조선일보	4 여자 태권도 3단 완주 ‘김홍’ 양 획득 Miss Kim Hong Earns 3rd Dan in Women’s Taekwondo 1968. 4. 22. 경향신문
5 여자 태권 사범 파견 Dispatch of Female Taekwondo Instructors 1969. 4. 4. 조선일보	6 외국인 태권도 선수권 대회 Foreigner Taekwondo Championships 1968. 6. 11. 조선일보
7 「태권도」 창간호 『각종 태권도 대회』 Taekwondo, First Issue “Various Taekwondo Competitions” 1971 25.3×18.2	8 「태권도」 제5호 『학교 순례』 Taekwondo, Issue 5 “School Tour” 1972 25.4×18.7
9 「태권도」 제14호 『태권도의 메아리』 Taekwondo, Issue 14 “Echoes of Taekwondo” 1975 25.5×18.5	10 「태권도」 제22호 『여성태권도 지도자로서의 꿈을 키우자』 Taekwondo, Issue 22 “Let’s Nurture Dreams as Female Taekwondo Instructors” 1977 25.5×18.7
11 「태권도」 제26호 『태권도부 설치에 대하여』 Taekwondo, Issue 26 “On Establishing Taekwondo Clubs” 1978 25.7×18.7	12 「태권도」 제25호 『여대생들의 태권도』 Taekwondo, Issue 25 “Taekwondo Among Female University Students” 1978 25.7×18.8

13
제1회 국제여자오픈
태권도대회 팸플릿

Pamphlet for the 1st International Women's
Open Taekwondo Championships
2000 | 29×22.5

14
제1회 국제여자오픈
태권도대회 자료집

Proceedings of the 1st International
Women's Open Taekwondo Championships
2000 | 30.7×22.7

15
제1회 국제여자오픈
태권도대회 결과보고서

Results Report for the 1st International Women's
Open Taekwondo Championships
2000 | 30.8×22.5

16
「태권도」 제17호
『여성의 해에 태권도 여걸들』

Taekwondo, Issue 17
“Taekwondo Heroines in the Year of
Women”
1975 | 25.5×18.7

17
제6회 외국인·여성태권도
선수권대회 페넌트

6th Foreigners' & Women's Taekwondo
Championships Pennant
1975 | 28.5×19.5

18
제7회 외국인·여성태권도
선수권대회 페넌트

7th Foreigners' & Women's Taekwondo
Championships Pennant
1976 | 36×27.5

19
「태권도」 제13호
『눈보라 속에도 국기의 부정이』

Taekwondo, Issue 13
“Even in the Blizzard, a Father's Love for the
National Sport”
1974 | 25.7×18.5

20
「태권도」 제21호
『나는 태권도가 좋아요』

Taekwondo, Issue 21
“I Love Taekwondo”
1977 | 25.5×18.7

21
「태권도」 제17호
『태권도 연무시범으로 봉사활동 펴는
여성시범단』

Taekwondo, Issue 17
“Women's Demonstration Team Engaging
in Volunteer Work Through Taekwondo
Demonstrations”
1975 | 25.5×18.7

22
한국비둘기태권도시범단
페넌트

Korea Pigeon Taekwondo Demonstration
Team Pennant
1979 | 24.5×16.2

23
「태권도」 제7·8합본호
『태권만평』

Taekwondo, Combined Issues 7 & 8
“Taekwondo Cartoons”
1973 | 25.7×18.8

24
「태권도」 제29호
『연재만화 태순양』

Taekwondo, Issues 29
“Serialized Comic: Taesunyang”
1979 | 25.7×18.5

25
만화영화
「태권동자 마루치 아라치」

Animated Film: Taegwondongja Maruchi
Arachi
1977 | 80분 | 한국영상자료원

26
한국·홍콩 합작 영화
「위험한 영웅」

Korea-Hong Kong Co-production Film:
Dangerous Hero
1974 | 96분 | 한국영상자료원

27
새 챔피언 15명
국민학교 태권도

Fifteen New Champions in Elementary School
Taekwondo
1970. 10. 26. | 경향신문

28
「태권도」 제2호(여름호)
『각종 태권도 대회』

Taekwondo, Issue 2 (Summer Issue)
“Various Taekwondo Competitions”
1971 | 25.3×18.7

29
「태권도」 제4호
『1971년 여자부 우수선수』

Taekwondo, Issue 4
“Outstanding Female Athletes of 1971”
1972 | 25.2×18.7

30
「태권도」 제21호
『제3회 전국중·고등학교
태권도개인선수권대회』

Taekwondo, Issue 21
“The 3rd National Middle and High School
Taekwondo Individual Championships”
1977 | 25.5×18.7

31
「태권도」 제27·28합본호
『제5회 한국 중·고등학교 태권도
개인선수권 대회』

Taekwondo, Combined Issues 27 & 28
“The 5th Korea Middle and High School
Taekwondo Individual Championships”
1978 | 25.7×18.5

32
제14회 대한태권도협회장기쟁탈전
및 제5회 한국중·고등학교태권도
개인선수권대회 기념메달

Commemorative Medal for the 14th Korea
Taekwondo Association President's Cup
and the 5th Korea Middle and High School
Taekwondo Individual Championships
1978 | 지름 5.8

33
프레월드게임 태권도 대회
자료집

Pre-World Games Taekwondo Tournament
Handbook
1978 | 27×20

34
프레월드게임 태권도 대회 페넌트

Pre-World Games Taekwondo Tournament
Pennant
1978 | 30×19.5

35
프레월드게임 초청 태권도 대회

Taekwondo Tournament at the Pre-World
Games
1978 | 59초 | 한국정책방송원

36
「태권도」 제31·32합본호
『대만 국제 친선 태권도 대회』

Taekwondo, Combined Issues 31 & 32
“Taiwan International Friendship Taekwondo
Championship”
1979 | 25.8×18.6

37
한국여성태권도연맹 창립 총회
페넌트

Pennant from the Inaugural General
Assembly of the Korea Women Taekwondo
Federation
1979 | 27.5×21

38
제1회 전국여성태권도
개인선수권대회 자료집

Proceedings of the 1st National Women's
Taekwondo Individual Championship
1979 | 26×19

39
「태권도」 제31·32합본호
『제1회 전국여성태권도 개인선수권대회』

Taekwondo, Combined Issues 31 & 32
“The 1st National Women's Taekwondo Individual
Championship”
1979 | 25.8×18.6

40
여성태권도의 활성화 방안
세미나 자료집

Proceedings of the Seminar on Measures to
Revitalize Women's Taekwondo
2002 | 26.8×19.9

41
제3회 한국여성태권도연맹회장배
전국태권도품새대회

The 3rd Korea Women Taekwondo
Federation President's Cup National
Taekwondo Poomsae Competition
2005 | 29×21

42
2007 전국청소년 태권가족
페스티벌 메달

Gold·Silver·Bronze Medal, 2007 National Youth
Taekwondo Family Festival
2007 | 지름 6.7, 끈 42

43 「태권도」 제49호 『성신여자대학교 태권도부』 Taekwondo, Issue 49 “Sungshin Women’s University Taekwondo Team” 1984 25.7×18.7	44 「태권도」 제60호 『태권도학과 1회 졸업생 24명 배출』 Taekwondo, Issue 60 “Twenty-four Graduates from First Class of the Taekwondo Department” 1987 25.8×18.6	45 「태권도」 제43호 『태권도 훈련의 시합 용구 개발』 Taekwondo, Issue 43 “Development of Competition Equipment for Taekwondo Training” 1982 25.8×18.6
46 「태권도」 제49호 『84년도 여자 국가대표 선수 선발 대회』 Taekwondo, Issue 49 “1984 Women’s National Team Selection Tournament” 1984 25.7×18.7	47 「태권도」 제53호 『85년 여자 국가대표 선발 대회』 Taekwondo, Issue 53 “1985 Women’s National Team Selection Tournament” 1985 25.7×18.7	48 「태권도」 제56호 『1986년도 한국 여자 대표 선수 선발 대회』 Taekwondo, Issue 56 “1986 Women’s National Team Selection Tournament” 1986 25.7×18.7
49 「태권도」 제56호 『대망의 대표선수가 되기까지』 Taekwondo, Issue 56 “The Long Road to Becoming a National Team Member” 1986 25.7×18.7	50 「태권도」 제56호 『박선영 선수가 대표 선수가 되기까지』 Taekwondo, Issue 56 “Park Sun-young’s Journey to Becoming a National Team Member” 1986 25.7×18.7	51 「태권도」 제37호 『81년도 전국 종별 신인 선수권 대회』 Taekwondo, Issue 37 “The 1981 National Rookie Championship by Category” 1981 25.7×18.7
52 「태권도」 제51호 『제7회 회장기궐탈 전국대학대학 태권도대회』 Taekwondo, Issue 51 “The 7th National University Taekwondo Championship for the President’s Cup” 1984 25.7×18.7	53 「태권도」 제57호 『1986년도 여자태권도선수권대회』 Taekwondo, Issue 57 “The 1986 Women’s Taekwondo Championship” 1986 25.7×18.7	54 제1회 국제 친선 여자태권도대회 페넌트 Pennant from the 1st International Women’s Taekwondo Friendship Tournament 1982 24.5×16.3
55 「태권도」 제44호 『한·중 친선 여자 태권도 대회 마치고』 Taekwondo, Issue 44 “Reflections on Conclusion of the Korea-China Friendship Women’s Taekwondo Tournament” 1983 25.7×18.7	56 제7회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실시결과보고서 Report on Results of the 7th World Taekwondo Championships 1985 27×20	57 제7회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보고서 Report on the 7th World Taekwondo Championships 1985 31×24

58 「태권도」 제63호 『제1회 세계여자태권도선수권대회』 Taekwondo, Issue 63 “The 1st World Women’s Taekwondo Championships” 1987 25.7×18.6	59 제8회 세계태권도대회 및 제1회 세계여자태권도선수권대회 페넌트 Pennant for the 8th World Taekwondo Championships and the 1st World Women’s Taekwondo Championships 1987 31×24	60 제8회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및 제1회 세계여자태권도선수권대회 국제심판 임명장 Certificate of Appointment of Seo Myeong-su as International Referee for the 8th World Taekwondo Championships and the 1st World Women’s Taekwondo Championships 1987 26.4×37.5
61 제9회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및 제2회 세계여자태권도선수권대회 선수단 안내서 Team Handbook for the 9th World Taekwondo Championships and the 2nd World Women’s Taekwondo Championships 1989 19.3×13.4	62 제9회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및 제2회 세계여자태권도선수권대회 결과보고서 Results Report for the 9th World Taekwondo Championships and the 2nd World Women’s Taekwondo Championships 1989 25×18.2	63 제9회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및 제2회 세계여자태권도선수권대회 한국대표선수단 페넌트 Pennant of the Korean National Team for the 9th World Taekwondo Championships and the 2nd World Women’s Taekwondo Championships 1989 42×29
64 제2회 세계여자태권도선수권대회 플라이급 1위 원선진 상장 Certificate for Won Seon-jin, 1st Place in the Flyweight Division at the 2nd World Women’s Taekwondo Championships 1989 27.8×43	65 제9회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및 제2회 세계여자태권도선수권대회 여자 핀급, 패더급 대진표 Women’s Finweight-Featherweight Bracket for the 9th World Taekwondo Championships and the 2nd World Women’s Taekwondo Championships 1989 29.7×21	66 제9회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및 제2회 세계여자태권도선수권대회 참가신청 현황 Registration List for the 9th World Taekwondo Championships and the 2nd World Women’s Taekwondo Championships 1989 29.7×21
67 「태권도」 제57호 『제7회 아시아태권도선수권대회를 마치고』 Taekwondo, Issue 57 “Reflections on the 7th Asian Taekwondo Championships” 1986 25.7×18.7	68 「태권도」 제65호 『제8회 아시아태권도선수권대회』 Taekwondo, Issue 65 “The 8th Asian Taekwondo Championships” 1988 25.7×18.7	69 「태권도」 제60호 『제1회 세계대학선수권대회』 Taekwondo, Issue 60 “The 1st World University Championships” 1987 25.7×18.7
70 제1회 세계대학태권도선수권대회 배지 Badge of the 1st World University Taekwondo Championships 1986 2.3×2.3	71 제1회 세계대학태권도선수권대회 한국대학팀 페넌트 Pennant of the Korea University Team at the 1st World University Taekwondo Championships 1986 31×25	72 제3회 세계대학태권도선수권대회 기념 페넌트 Commemorative Pennant of the 3rd World University Taekwondo Championships 1992 34.5×26

73 제24회 서울올림픽 한국태권도 대표팀 페넨트 Pennant of the South Korean Taekwondo Team at the 24th Seoul Olympics 1988 35×28	74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 태권도 경기종목 소개 리플릿 Brochure Introducing Taekwondo Events at the 24th Seoul Olympics 1988 21.3×51.4	75 제24회 서울올림픽 금메달 Gold Medal from the Taekwondo Competition at the 24th Seoul Olympics 1988 7×6, 끈 48.5
76 제2회 문교부장관기 쟁탈 전국국민학교 태권도대회 자료집 Proceedings of the 2nd National Elementary School Taekwondo Championships for the Education Minister's Cup 1981 26.5×19	77 「태권도」제40호 『82년도 전국 종별 신인선수권대회』 Taekwondo, Issue 40 “1982 National Rookie Championships by Category” 1982 25.7×18.7	78 ‘82년도 전국 종별 태권도 신인선수권대회 자료집 Compilation of the 1982 National Taekwondo Rookie Championships by Category 1982 27.5×20
79 「태권도」제61호 『87년도 전국춘계종별 선수권대회』 Taekwondo, Issue 61 “1987 National Spring Category Championships” 1987 25.7×18.7	80 ‘86년도 심판 강습회 기념패 Commemorative Plaque from the 1986 Referee Training Course 1986 16.8×14.2	81 「태권도」제57호 『심판 교육을 받고 나서』 Taekwondo, Issue 57 “After Receiving Referee Training” 1986 25.7×18.7
82 「태권낭자」제11·12호 Taekwon Nangja, Issue 11·12 1989 27.3×19.9	83 「태권낭자」제10호 Taekwon Nangja, Issue 10 1989 27.3×20	84 제16회 국제심판강습회 사진액자 Photo Frame from the 16th International Referee Training Course 1988 50.3×63
85 「태권도」제66호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 태권도 경기 총결산』 Taekwondo, Issue 66 “Final Summary of the Taekwondo Competition at the 24th Seoul Olympics” 1988 25.7×18.8	86 「태권도」제69호 『89년 한국 여자 대표 선수 선발 대회』 Taekwondo, Issue 69 “1989 Korea Women's National Team Selection Tournament” 1989 27.3×20	87 「태권도」제42호 『대한체육회 코치 아카데미에서 최우수상 받아』 Taekwondo, Issue 42 “Grand Prize at the Korean Amateur Sports Association Coach Academy” 1982 25.7×18.7

88 「태권도」제46호 『특별심사실시』 Taekwondo, Issue 46 “Special Referee Examination Conducted” 1983 25.7×18.7	89 「태권도」제60호 『여성 태권도를 말한다』 Taekwondo, Issue 60 “On Women's Taekwondo” 1987 25.7×18.7	90 「태권도」제60호 『인천 여자 태권도의 산실』 Taekwondo, Issue 60 “The Cradle of Women's Taekwondo in Incheon” 1987 25.7×18.7
91 「태권도」제61호 『1987년도 전국여자개인선수권대회』 Taekwondo, Issue 61 “1987 National Women's Individual Championships” 1987 25.7×18.7	92 「태권도」제67호 『US배 태권도 대회 및 친선 경기를 마치고』 Taekwondo, Issue 67 “Reflections on the U.S. Cup Taekwondo Tournament and Friendly Matches” 1988 25.7×18.7	93 「태권도」제68호 『상명여자대학교 태권도부』 Taekwondo, Issue 68 “Sangmyung Women's University Taekwondo Team” 1989 25.7×18.7
94 「태권낭자」창간호 Taekwon Nangja, First Issue 1987 28.3×20.7	95 「태권도」제63호 『대한태권도협회 기술심의회에 여성분과위원회 신설』 Taekwondo, Issue 63 “Women's Subcommittee Established within the Technical Committee of the Korea Taekwondo Association” 1987 25.7×18.6	96 「태권도」제68호 『여성분과의 역할 다할터』 Taekwondo, Issue 68 “Women's Subcommittee Will Completely Fulfill Its Role” 1989 25.7×18.7
97 「태권낭자」제18·19호 Taekwon Nangja, Issue 18·19 1991 27.5×20	98 제2회 태권낭자 회장기타기 태권도대회 자료집 Proceedings of the 2nd Korea Women's Taekwondo Association President's Cup Taekwondo Tournament 1992 26×19	99 「한국여성태권도」제26호 Korean Women's Taekwondo, Issue 26 1994 26.7×20
100 한국여성태권도회 제8회 품새 및 겨루기 대회 자료집 Proceedings of the 8th Poomsae and Sparring Tournament of the Korea Females' Taekwondo Association. 1998 19.3×26.8	101 제74회 전국체육대회 자료집 Proceedings of the 74th National Sports Festival 1993 25.7×18.8	102 「태권도」제95호 『서울 종합 우승 차지, 올해 처음 실시된 여자부 전남, 광주 강세 보여』 Taekwondo, Issue 95 “Seoul Wins Overall Title; Jeonnam and Gwangju Dominate the Women's Division in the First-Ever Competition” 1995 25.7×18.7

103 「태권도」 제102호 『97 중별선수권대회』 Taekwondo, Issue 102 “1997 National Taekwondo Championships” 1997 25.6×18.7	104 「태권도」 제104호 『소년체전』 Taekwondo, Issue 104 “Youth Sports Festival” 1997 25.6×18.7	105 「태권도」 제129호 『제34회 대통령기 전국 단체대항 태권도대회』 Taekwondo, Issue 129 “The 34th Presidential Cup National Team Taekwondo Championship” 1999 25.5×18.7
106 「태권도」 제115호 『제8회 용인대학교총장기타기 전국남·여고등학교 태권도대회』 Taekwondo, Issue 115 “The 8th Yongin University President’s Cup National High School Taekwondo Tournament for Boys and Girls” 1998 25.6×18.7	107 제8회 용인대학교총장기타기 전국남·여고등학교 태권도대회 포스터 Poster for the 8th Yongin University President’s Cup National High School Taekwondo Tournament for Boys and Girls 1998 63.6×43	108 제12회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 제5회 여자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박경숙의 ID카드 ID Card of Park Gyung-suk for the 12th World Taekwondo Championships and the 5th World Women’s Taekwondo Championships 1995 15.2×10.4×38
109 제12회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 제5회 여자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포스터 Posters for the 12th World Taekwondo Championships and the 5th World Women’s Taekwondo Championships 1995 61×45	110 박경숙 표창장 Park Gyung-suk’s Commendation Certificate 1990 45.3×57	111 박경숙 체육훈장 백마장 훈장증 Park Gyung-suk’s Order of Sports Merit (Baekma Medal) Certificate 1994 45×56.2
112 「태권도」 제98호 『제1회 세계주니어태권도선수권대회』 Taekwondo, Issue 98 “The 1st World Junior Taekwondo Championships” 1996 25.8×18.8	113 제1회 세계주니어 태권도선수권대회 페넌트 Pennant of the 1st World Junior Taekwondo Championships 1996 26.5×19	114 「태권도」 제104호 『97년 부산 동아시아게임 금메달리스트들』 Taekwondo, Issue 104 “Gold Medalists at the 1997 Busan East Asian Games” 1997 25.6×18.7
115 제2회 부산 동아시아게임 태권도팀 매뉴얼 2nd Busan East Asian Games Taekwondo Team Manual 1997 25.7×17.7	116 「태권도」 제122호 『제13회 방콕 아시안게임』 Taekwondo, Issue 122 “The 13th Bangkok Asian Games” 1999 25.6×18.7	117 제13회 방콕아시안게임 한국대표단 기념배지 Commemorative Badge of the South Korean Delegation to the 13th Bangkok Asian Games 1998 2.5×1.7

118 「태권도」 제139호 『2000년 시드니 올림픽 대표 선수』 Taekwondo, Issue 138 “2000 National Taekwondo Championships by Category” 2000 25.5×18.7	119 제27회 시드니올림픽 태권도 정식종목 기념 태권도 국가대표팀 포스터 Poster Featuring the National Taekwondo Team, Commemorating the 27th Sydney Olympics, Where Taekwondo Was an Official Event 2000 71.9×51	120 제27회 시드니올림픽 태권도 기념 주화 Commemorative Coin for Taekwondo at the 27th Sydney Olympics 2000 6.5×9.7
121 제27회 시드니올림픽 태권도 배지 Taekwondo Badge for the 27th Sydney Olympics 2000 2.7×3.8	122 「태권도」 제73호 『여자 상임심판원 이정연·김혜연씨』 Taekwondo, Issue 73 “Women’s Permanent Referees Lee Jeong- yeon and Kim Hye-yeon” 1990 25.7×18.6	123 「태권도」 제73호 『태권도 시범으로 동구권을 순회하고』 Taekwondo, Issue 73 “Touring the Eastern Bloc with Taekwondo Demonstrations” 1990 25.7×18.6
124 「태권도」 제76호 『91년도 전국종별선수권대회』 Taekwondo, Issue 76 “1991 National Taekwondo Championships” 1991 25.8×18.7	125 「태권도」 제82호 『92 바르셀로나올림픽 태권도 경기』 Taekwondo, Issue 82 “Taekwondo Competition at the 1992 Barcelona Olympics” 1992 25.8×18.8	126 제25회 바르셀로나 올림픽 태권도복 상의 Top of the Taekwondo Uniform from the 25th Barcelona Olympics 1992 93.8×50.7
127 「태권도」 제85호 『나의인생, 나의 태권도』 Taekwondo, Issue 85 “My Life, My Taekwondo” 1993 25.8×18.8	128 「태권도」 제85호 『쿠웨이트 여자 국가대표팀 육성하고 싶다』 Taekwondo, Issue 85 “I Want to Cultivate Kuwait’s Women’s National Team” 1993 25.8×18.8	129 「태권도」 제93호 『인천시청, 여자실업팀 최초로 창단』 Taekwondo, Issue 93 “Incheon City Hall Establishes First-Ever Women’s Professional Team” 1995 25.8×18.8
130 「태권도」 제105호 『챔피언들이 털어놓는 강해지는 비결』 Taekwondo, Issue 105 “Champions Share Their Secrets to Building Strength” 1997 26.7×20	131 「태권도」 제98호 『연구개발특별위원회 발족』 Taekwondo, Issue 98 “Launch of the Special Committee on Research and Development” 1997 25.8×18.8	132 「태권도」 제124호 『2000년 시드니 올림픽 대표선수 경기력 향상 특별위원회』 Taekwondo, Issue 124 “Special Committee on Enhancing National Team Performance for the 2000 Sydney Olympics” 1999 25.5×18.7

133 「태권도」 제122호 『제13회 방콕 아시안게임』 Taekwondo, Issue 122 “The 13th Bangkok Asian Games” 1999 25.8×18.8	134 「태권도」 제124호 『상임심판원 56명 선발, 교육실시』 Taekwondo, Issue 124 “Fifty-Six Permanent Referees Selected and Trained” 1999 25.8×18.8	135 「태권도」 제107호 『학문적 기초세워 세계화』 Taekwondo, Issue 107 “Laying an Academic Foundation for Globalization” 1997 25.5×18.7
136 제11회 용인대 총장기 전국 남·여 고등학교 태권도대회 자료집 Proceedings of the 11th Yongin University President’s Cup National High School Taekwondo Tournament (Boys and Girls) 2001 25.8×19	137 제14회 경희대학교 총장기 전국 남·여 고등학교 태권도대회 포스터 Poster for the 14th Kyung Hee University President’s Cup National High School Taekwondo Tournament (Boys and Girls) 2002 43.2×60.8	138 계명대학교 태권도학과 1기 졸업생 일동 감사패 Plaque of Appreciation from First Graduating Class of the Department of Taekwondo, Keimyung University 2000 5.8×24.9×23.3
139 제1회 한국체육대학교총장배 태권도경연대회 금메달 Gold Medal from the 1st Korea National Sport University President’s Cup Taekwondo Championships 2002 6.6×39	140 「태권도」 제110호 『이대 태권도인』 Taekwondo, Issue 110 “Taekwondo Practitioners at Ewha Womans University” 1998 27.5×20	141 「태권낭자」 제25호 Taekwon Nangja, Issue 25 1993 25.8×18.8
142 제1회 세계 태권도 품새 선수권대회 상장 Certificate from the 1st World Taekwondo Poomsae Championships 2006 29.7×2	143 제2회 세계 태권도 품새 선수권대회 상장 Certificate from the 2st World Taekwondo Poomsae Championships 2007 29.5×21	144 제5회 WTF 세계 태권도 품새 선수권대회 페넌트 Pennant from the 5th WTF World Taekwondo Poomsae Championships 2010 20.5×46.5
145 제6회 WTF 세계 태권도 품새 선수권대회 페넌트 Pennant from the 6th WTF World Taekwondo Poomsae Championships 2011 36.5×51.5	146 서영애 체육훈장 맹호장 Order of Sports Merit (Mangho Medal) awarded to Seo Young-ae 2012 39.5×52, 8×6×34.5	147 송남정 체육훈장 거상장 훈장증 Certificate for Geosang Medal of the Order of Sports Merit Awarded to Song Nam-jeong 2009 37.8×25.7
148 서영애 태권도복 Taekwondo Uniform Worn by Seo Young-ae at the World Taekwondo Poomsae Championships 2009 상의 76×130.5 띠 157×4.5	149 송남정 태권도복 Taekwondo Uniform Worn by Song Nam-jeong at the 1st World Taekwondo Poomsae Championships 2009 상의 80×62 하의 94×60 띠 202.5×5	

국립태권도박물관 | 기획전시 |
Special Exhibition at the National Taekwondo Museum

태권낭자

Taekwondo Girls

발행일

2026년 9월 1일

발행처

태권도진흥재단 국립태권도박물관
(55547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설천면 무설로 1482)

북디자인

참디자인(주)

ISBN

979-11-976950-4-9

© 2026년 국립태권도박물관 '태권낭자' 기획전
도록에 수록된 사진 자료의 사용 권한은 국립태권도박물관과 각 소장처에 있습니다.